ESG 실천, 우리 삶으로부터

나와 너, 공동체와 지구를 성찰하는 청소년을 위한 ESG 교과서

안지훈 외

서울시교육청

이 책의 내용(들어가며)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오늘날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기업 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ESG의 중요성이 단지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선진민주사회를 살아가는 미래세대에게 과연 ESG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ESG는 가치교육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 지속가능성교육, 사회적가치교육 등과 연계되어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관점에서 ESG는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수많은 가치 중에 각각의 이니셜로 요약되는 3가지 영역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시민의 처지에서 참여를 의미합니다. 환경과 사회적가치와 참여(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오랜 연구를 거쳐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시 교육청의 의뢰로 학교에서 ESG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칙과 방법에 대해 소셜혁신연구소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이 연구용역을 수행하였고, 가치교육으로 방향성을 정립했습니다. 그 성과물에 바탕하여 학교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의 ESG교육 교과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과서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한 학기 동안 주1회 수업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정하였지만, 다른 학년 또는 동아리 등 다른 단위는 물론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챕터별로 모든 활동들은 모듈화되어 있어 지도교사가 각각의 활동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차원을 넘어 시민 일반, 특히 미래세대를 향한 가치교육으로 ESG교육을 수행하는 일은 외국에서도 아직까지 유례가 없으며 이번 교과서 개발을 통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수행하면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에 더 발전된 교과서로 발전시킬 구상입니다. 이 책을 통해 ESG가 그저 기업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 특히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 차

1강	ESG? 애쓰지?
2강	ESG와 한국의 사회적 가치
3강	ESG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4강	쓰레기와 자원순환
5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6강	안전한 삶과 보건복지
7강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존중
8강	노동권과 괜찮은 일자리
9강	기업 간의 상생과 사회적책임
10강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순환
11강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12강	마을에서의 민주적 참여
13강	정부의 민주적 지배구조
14강	학교에서의 참여와 의사결정
15강	ESG와 우리
16강	ESG &

교과서 주요 내용

강	제목	구분	주요 내용
1강	ESG? 애쓰지?	ESG 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ESG의 의미 유사 개념과의 구분 사회적 가치와 ESG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 ESG 경영 :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서의 기업의 새로운 위상 ESG와 교육: 가치교육으로서의 ESG교육
2강	ESG와 한국의 사회적 가치		
3강	ESG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4강	쓰레기와 자원순환	환경 감수성	Environmental의 의미 환경과 사회문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환경
5강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6강	안전한 삶과 보건복지	사회 감수성	Social의 의미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 모두가 평등한 사회로의 발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사회
7강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존중		
8강	노동권과 괜찮은 일자리		
9강	기업 간의 상생과 사회적책임		
10강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순환		
11강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감수성	Governance의 의미 지배구조와 윤리경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참여
12강	마을에서의 민주적 참여		
13강	정부의 민주적 지배구조		
14강	학교에서의 참여와 의사결정		
15강	ESG와 우리	ESG와 나	나의 ESG 실천 학교에서의 ESG 실천 지역에서의 ESG 실천 세계 청소년들의 활동 유명인과 ESG
16강	ESG &		

○ 2022년 용역에서 환경감수성 비중을 줄이고, 사회감수성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어 E, S, G 비중에 차등을 주었음

○ 1~3강은 전체 주제의 총론 격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 1강 : ESG? 애쓰지? → ESG의 의미
- 2강 : ESG와 한국의 사회적 가치 → ESG와 사회적 가치의 연관성
- 3강 : ESG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 ESG와 SDGs의 연관성

○ 4~5강은 E(환경 감수성)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함
- 4강 : 쓰레기와 자원순환
- 5강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 6~10강은 S(사회감수성) 영역으로 12+1에서 환경이 E로 포괄되고 참여가 G로 포괄되기에 나머지 주제를 유사한 내용별로 2가지씩 한 챕터로 구성
- 6강 : 안전한 삶과 보건복지
- 7강 :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존중
- 8강 : 노동권과 괜찮은 일자리
- 9강 : 기업 간의 상생과 사회적 책임
- 10강 :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순환

○ 11~14강은 G(참여감수성) 영역으로 좁은 의미의 ESG(지배구조)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마을, 정부, 학교에 대한 참여 감수성을 포함하여 구성
- 11강 :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 12강 : 마을에서의 민주적 참여
- 13강 : 정부의 민주적 지배구조
- 14강 : 학교에서의 참여와 의사결정

○ 제15~16강은 전체 주제의 결론격으로 10대인 학생/청소년들은 ESG와 무관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제15강 : 10대 중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을 남긴 사례를 소개하며, 10대도 ESG 실천을 할 수 있음, 해야 함을 느낄 수 있게 구성함
- 제16강 : 10대에게 인기가 있는 셀레브러티의 ESG 참여 소개를 통해, ESG가 모두의 문제이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느끼도록 함
- 16강은 & 이후 여백을 둬서 각자 실천적인 방안을 더 성찰, 모색하자는 의미의 제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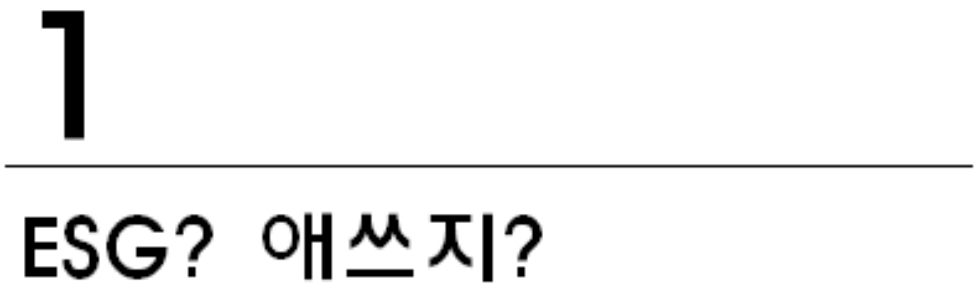
교과서 교육과정 구성

순번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1	장별 표제	장별표시	장별 번호 장별 제목
2		수업목표	문장형 키워드
3	들여다보기	전체 수업 소개	문장형 요약 주요 개념
4	확장하기	학습활동 1.	자료
5		학습활동 2.	자료
6		학습활동 3.	자료
8	상상열기	토론활동 1.	전체토론 주제 제시
10		토론활동 2.	그룹토론(찬반토론) 주제 제시
12		토론활동 3.	추가토론 주제 제시
14	상상더하기	실천활동 1.	관련 동영상 시청 및 감상문 쓰기
15		실천활동 2.	관련 콘텐츠 제작
16		실천활동 3.	지역사회 실천활동 or 또래 실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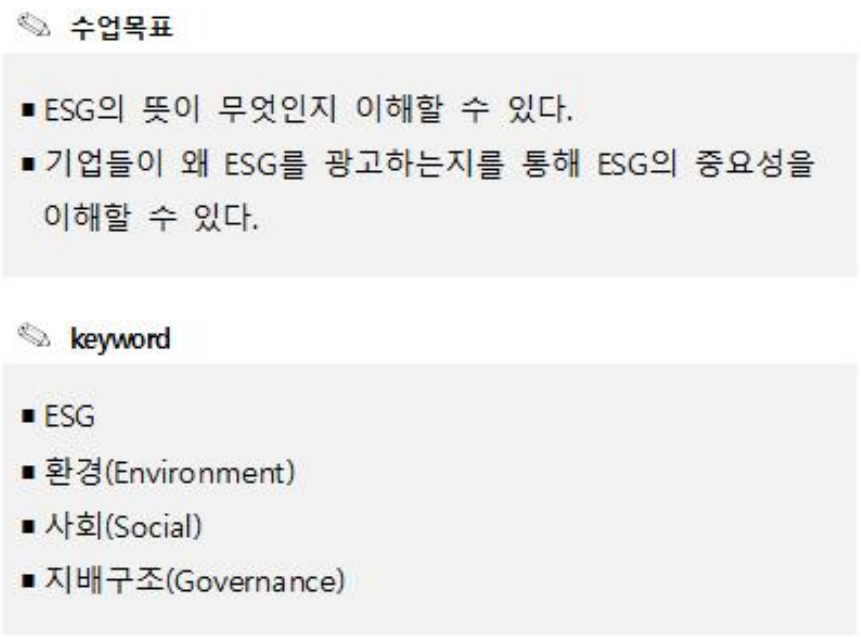
○ 장별 표제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함.

- 장별 번호, 장별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문장형



○ 들여다보기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케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들여다보기

✓ **수업요약**

-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 ESG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 투자할 때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ESG를 중시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주요개념**

- ESG
  :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줄여서 일컫는 말.
- 환경(Environment)
  :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주로 자연적 조건을 의미한다.
- 사회(Social)
  : 함께 살아가는 인간집단을 의미하지만, 국가사회, 지역사회처럼 국가 또는 지역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지배구조(Governance) :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좁은 의미로는 주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각급 조직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 재무적 요소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 중 재무 곧, 돈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
- 비재무적 요소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 중 재무 곧, 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요소
- 기업 가치
  : 원래는 기업의 재무, 시장, 경영, 기술 등을 토대로 기업을 평가하여 수치로 표현한 가치, 거의 가격과 같은 말. 근래에는 비재무적 요소도 기업 가치 평가에 함께 반영하는 추세다.
- 투자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에 돈을 대는 행위.

○ 확장하기 : 학습활동 1, 2, 3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확장하기

학습활동 1

✓ 'ESG'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자.

✓ E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 S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 G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학습활동2

✓ ESG를 광고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자.

✓ 광고에서 E. S. G로 만든 말을 찾아보자.

MEMO

학습활동3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
출처 :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어려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 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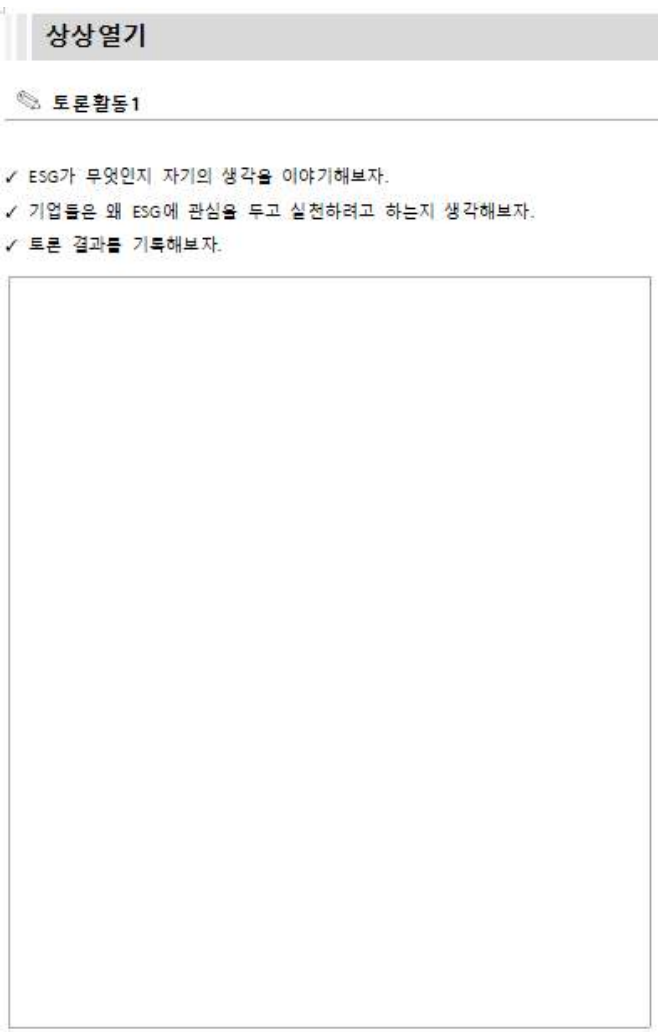
✓ 지배구조

✓ 기업 가치

○ 상상열기 : 토론활동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2

✓ 내가 기업에 투자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돈을 잘 버는 기업
모둠2 돈을 잘 버는 것 외에도 다른 것도 잘하는 기업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3

✓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말해보자. 왜 좋아하는지 이유도 말해보자.

✓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왜 좋아하는지 이유도 물어보자.

○ 상상더하기 : 실천활동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게 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상상더하기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2

✓ ESG로 3행시를 지어 보자.

E	
S	
G	

예시

E	이토록
S	신나는
G	지구

E	에너지를
S	서비스하는
G	글로벌 기업

✓ 세 명씩 짝을 지어 ESG 3행시 이어가기를 해보자.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3

✓ ESG가 들어간 그림을 그려보자.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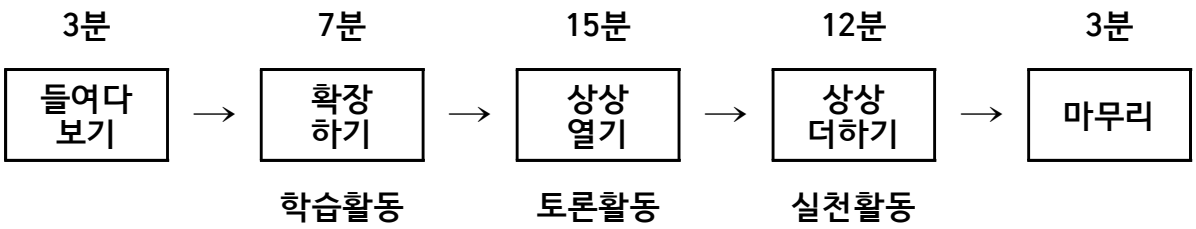
○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다양한 내용을 수록함

○ 각 활동의 모든 내용을 교과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지도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통해 각 활동별로 1가지 활동 선정 필요함

○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 가능함

○ 수업 40분 기본 운용(안)



지도안

1.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의 총적인 방향성

1) 내용적 방향성 : 가치교육의 ESG 관점의 범주 재편

□ ESG를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경우 초중고 공교육에서 ESG교육은 가치교육의 일환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됨.

○ 일각에서는 ESG의 일시적 유행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하나 개념 자체는 바뀔 수 있을지라도 우리 사회의 가치적 지향으로서 ESG 각각의 가치적 지향은 지속될 것이며, 지속되어야 할 것임.

○ 기업의 역할과 관련하여 단순히 어떤 수단이든 이윤만 달성하면 된다는 과거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조직들에서도 이러한 관점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특히 기업에서 시작된 투자 시 돈을 잘 버는지 여부 곧, 재무적인 측면만의 고려가 아니라 환경을 감안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느냐 하는 점들을 고려하는 관점은 앞으로도 사회 전반의 가치적 지향으로 바람직하며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적가치교육, 기타 제반 가치 교육을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으로 포괄한 후 이를 사회운영원리로서의 ESG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가치교육으로서 ESG교육을 자리매김하고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에 포괄되는 내용들을 ESG교육의 범주에 맞추어 재범주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은 기업 현장에서 투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쓰이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사회운영원리로서의 넓은 의미의 ESG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 가치교육으로서 ESG 교육을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역 구분에 따라 환경 교육, 사회 교육, 참여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전문가 G :
ESG가 한때 우리가 또 지나가는 유행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지만 기업계에서 좀 시작된 어떤 투자에서 그러니까 재무적인 측면 그러니까 회계 돈을 잘 버느냐 이거 말고도 환경을 감안하느냐, 기업이 사회를 생각을 하느냐 또 내부적으로도 어떤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느냐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글쎄요 앞으로 개념은 바뀔 수 있겠지만 그 방향에서는 갈 것 같거든요.
계속 어떤 기업의 과거에는 환경오염을 공해를 일으키면서도 돈만 벌면 투자자들은 이윤을 얻어가니까 됐던 그 몇십 년 전에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뭔가 환경을 오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도 오히려 그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했다가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투자 실패 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 그러니까 블랙록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부터 해서 본격화돼서 뭔가 투자금을 잘 회수하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도 환경과 사회와 어떤 지배 구조가 제대로 된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이 앞으로 ESG라는 말은 안 쓸 수 있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계속 지속되지 않겠나 싶은 거죠. 또 그렇게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2) 영역적 방향성 : 정서지능과 연계된 ESG 감수성 교육을 통한 사회 운영 원리의 습득

□ 학교교육에서 ESG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실천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ESG와 관련하여 지식 위주가 아니라 관심 제고 및 실천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원칙으로 하는 교육은 ESG 감수성 증진이라고 할 수 있음.

○ 가치적 지향과 관련하여 '○○감수성'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음.

○ 특히 '환경감수성'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예를 발견할 수 있음.

○ 'ESG 감수성'이라는 표현도 현업에서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

□ 언론이나 현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을 제외하더라도 학계에서 논문화된 내용만 들더라도 상당히 많은 용례를 발견할 수 있음.

□ ESG교육을 환경 교육, 사회 교육, 참여 교육으로 재구성할 때 각각의 분야의 핵심적인 교육 원칙은 곧, 환경 감수성 교육, 사회 감수성 교육, 민주 감수성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 환경 감수성 교육은 이미 기존에 학계와 현업에서 사용중인 환경 감수성 교육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함.

- 환경 감수성 교육은 환경교육, 생태교육, 녹색교육 등의 유사 명칭도 모두 포괄할 수 있음.

○ 사회 감수성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의 상당 부분과 UN 차원의 SDGs을 사회 감수성의 내용으로 포괄할 수 있음.

○ ESG 중 G 곧, 지배구조는 사회운영원리로서 ESG를 상정할 때는 참여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음.

-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등 좁은 의미의 ESG 중 G를 담아내는 표현이기 때문임.

- 좁은 의미의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의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ESG 감수성 교육은 정서지능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현업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ESG 감수성 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할 만한 개념으로 '공헌역량'이 있음.

- 아직 학계의 논의가 없어 향후 연구가 필요함.

○ 정서지능과 ESG 교육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교사 D :
감수성이라는 표현이 현재 학교에서 일반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럴 것 같고요.
환경 감수성, 인권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감수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 전혀 연구가 없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이미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감수성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 E :
다문화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체 사실 가이드라인이 없고요.

3) 교과적 방향성 :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을 통한 ESG교육의 실행

□ 사회운영원리로서의 넓은 의미의 ESG 교육은 정규교과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기준으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시민교육도 정규교과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ESG교육을 전면적인 정규교과과정 재편의 잣대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통과되기 어려울 것임.

□ ESG교육의 학교교육에의 커리큘럼 반영 방향에서 가장 현실적인 안은 범교과 학습 주제의 재편을 통한 ESG교육의 실행이라고 할 것임.

□ 추가적으로 기타 진로교육, 학생회 임원 연수 등의 ESG교육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임.

4) 학교급별 방향성 : 중학교 중심의 ESG교육이 바람직

□ 학교급별로 구분하는 경우 ESG교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곳은 중학교로 판단됨.

○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활용해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ESG교육이 가능할 것임.

- 중학교 1학년 시기를 활용한 자유학기제의 경우 제도의 취지도 ESG교육을 비롯한 가치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 적절한 계기가 될 것임.

□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 부담 때문에 ESG교육은 물론 대부분의 가치교육이 쉽지 않은 형편이며, 시민교육을 비롯한 가치교육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도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학생회 임원 등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특수한 계기의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ESG 교육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교사 A :
ESG 교육을 고등학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 준비가 중심이 되고 기존의 교과를 소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입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거는 해당 교과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ESG 교육을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기존에 지금은 많은 범교과 학습 주제나 이런 것들도 잘 제대로 잘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이제 원래 자유학기가 3학년에 예정돼 있다가 1학년으로 내려간 게 입학한 초기에 입시에 부담이 덜할 때 뭔가 입시와 상관없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성장시키는 교육을 하자는 방향에서 준비가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중학교는 1학년 때 이제 자유학기제를 이용을 하면 ESG교육을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일부 어떤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또 희망하는 학생들을 발굴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회 임원들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하는 기회 같은 경우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 그다음에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별도의 특별한 교육을 하는 계기가 있을 때 그다음에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 활동, 학급 회의 뭔가 이런 활동들이 참여의 과정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사회 감수성과 환경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들이 조금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수, 수련회 같은 경우 자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 E :
그러면은 이거를 초등 수준에서 할 건지 중학교 수준에서 할 건지 중학교는 자유학기제가 있거든요.
자유학기제라고도 하는 학교도 있고 학년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2015년 교육과정을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기 고대에 사실 요 자유학기제를 만들 때는 학생들이 진로 교육이 안 되니까 중3 2학기 되니까 맨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불안하죠. 이때 다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학원을 그래서 결국은 중3으로 교육과정 학자들이 만들었는데 실천이 안 되니까 중1로 내려오는 거예요. 1학년 1학기 학기제로 그래서 전혀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여기다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주 교과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계속 범교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중학교에서 쓰는 거라서 이거를 지금 이거 가져오신 거는 중학교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안전 건강 교육인데 이것도 초등학교 수준으로 할지 중학교 수준으로 할지 중학교에서도 범교과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 도시를 중심으로 할지 아니면은 농어촌으로 할지 아니면 아까처럼 정규 교과가 아니라 뭐지 창의적 체험으로 이거를 좀 연구소 안에서 범위를 작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그래서 중학교 창체가 사실 이거 하기 제일 좋거든요.
그니까 중학교 창체를 이렇게 조금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중학교를 가지고 하나 연구소에서 포맷을 만들고 나머지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안으로 만드시는 거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입시라는 트랙 때문에 허들이 너무 높아서 안 되니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진로 교육 방법은 요즘 진로 교육이 있잖아요. 진로 교육 걔네 하니까 진로가 제일 관심사거든요. 다른 거 다 관심없어요.
어떤 학교는 경제 금융을 또 안 배우는 학교도 있거든요.
독도 교육 같은 경우는 교장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고 다문화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도심에 있는 학교들보다는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더 많이 하거든요.

□ 초등학교의 경우 이미 환경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의 ESG 교육은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초등학생들의 경우 아직 ESG 각각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교사 A :
초등학교는 이미 사실 좀 ESG 교육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런 말은 쓰지 않았지만 환경을 중요시하는 이런 교육들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어떤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또 초등학생들의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약간의 어떤 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ESG 교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존의 교과에 이미 많은 내용들에서 사실은 환경의 중요성이라든가 또 다른 이웃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어떤 편성을 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검토에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 E :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이게 ESG라는 용어만 사실 ESG를 실천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화분같은 거 키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ESG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지 종이팩 우유 먹은 종이팩을 이렇게 하는 것도 분리하는 거 말리는 이런 것도 일종에 다 ESG 교육으로 녹여져 있었기 때문에 활동은 또 전혀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다 너무 커가지고 수준을 이렇게 줄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초등 수준은 아예 전체 교과가 다 교사들이 다 범교과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교장의 의지가 다 중요하거든요

ESG 감수성 교육의 범주별 구성

□ ESG교육을 환경 교육, 사회 교육, 참여 교육으로 재구성할 때 각각의 분야의 핵심적인 교육 원칙은 곧, 환경 감수성 교육, 사회 감수성 교육, 참여 감수성 교육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3-2) 사회 영역의 사회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사회 감수성 교육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음.

○ 특히 사회적 가치의 국내적 맥락으로서의 12+1의 상당 부분과 UN 차원의 SDGs를 사회 감수성의 내용으로 포괄할 수 있음.

○ ESG 교육의 사회 감수성 교육에서 사회의 의미는 사회과 교육에서 말하는 사회의 의미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사회적 가치 또는 지속가능성 등의 개념과 유사한 외연과 내포를 가짐.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관심, 공동체성 증진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사회 감수성 교육으로 재정의할 때, 기존에 정립된 교육 중 가장 유사한 내용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이제 한국 사회도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능력 즉, 개인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신호와 상황을 식별하고 인식하고 공동체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공헌하는 사회감수성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사회 감수성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정의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 신장
-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서 타문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진실된 관점을 취하려는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 신장

○ 인지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즉각적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인식 능력 신장
-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민주주의 원리, 사회정의, 공정함과 동등함에 대한 이해

○ 행동적 영역의 목표

-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행동 능력 신장
-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차별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신장

□ 사회감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 내용 : 3개 영역, 9개 핵심역량

- 사회 감수성 수용성의 3개 영역(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서 각각 3개씩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인식, 관용, 수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구성

□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주제 커리큘럼 개발(안) 개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학습자를 위한 사회감수성 진단검사지 개발의 어려움
- 범교과주제 선정의 어려움
- 시수/시간/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의 어려움
- 범교과주제선정 및 커리큘럼 개발에 학습자/교수자의 의견 반영 및 수용의 어려움

전문가 E :

1. 사회감수성 증진 커리큘럼의 개발 필요성

지난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대규모로 빠르게 유입되었고, 이것은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56,000(교육부, 2013)명 정도이고, 앞으로 이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점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양성을 다룰 필요가 증가하고, 사회적 자본을 찾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OECD 생애핵심역량, 2005).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능력 즉, 개인이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신호와 상황을 식별하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회감수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감수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사회감수성의 개념을 적용함으로써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있으며, 사회감수성의 기본 원칙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사회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감수성 증진 커리큘럼 개발의 목적 및 목표

□ 목적
- 사회감수성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민감성 강화
- 범교과학습 주제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감수성 증진 교육 지원
-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을 통해 사회감수성 교육의 활성화

□ 목표
○ 정의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 정서를 유지하는 능력 신장
- 타인의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정체성을 넘어서 타문화의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진실된 관점을 취하려는 신념과 태도를 견지하는 능력 신장

○ 인지적 영역의 목표
- 나와 다른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즉각적 가치판단을 중지하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차이 및 다양성에 대한 인식 능력 신장
-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이해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 민주주의 원리, 사회정의, 공정함과 동등함에 대한 이해

○ 행동적 영역의 목표
- 문화적으로 다른 상황에서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능력 신장
-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집단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행동 능력 신장
- 차별적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차별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신장

3. 사회감수성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안)

□ 프로그램 내용 : 3개 영역, 9개 핵심역량

교육내용은 사회감수성수용성의 3개 영역(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에서 각각 3개씩의 핵심역량을 선정하여 인식, 관용, 수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을 기르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주제 커리큘럼 개발(안) 개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1) 학습자를 위한 사회감수성 진단감사지 개발의 어려움, 2) 범교과주제 선정의 어려움, 3) 시수/시간/운영을 위한 교사 배치의 어려움 4) 범교과주제선정 및 커리큘럼 개발에 학습자/교수자의 의견 반영 및 수용의 어려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회감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이 주는 효과성 연구, 진단도구개발을 통해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사회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주제 커리큘럼 교육을 활성화를 통해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3) 지배구조 영역의 참여 감수성으로의 재구조화

□ ESG 중 G 곧, 지배구조는 사회운영원리로서 ESG를 상정할 때는 참여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바뀔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참여 감수성 교육으로 정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등 좁은 의미의 ESG 중 G를 담아내는 표현이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높아지고 이는 민관 차원의 다양한 제도화로 이어짐.

- 좁은 의미의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사회 전반의 운영원리로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의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배구조라는 개념의 좁은 사용례 및 ESG 교육의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 참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되는 기업계의 지배구조라는 개념에 참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임.

- 좁은 의미의 ESG에서 지배구조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이 강하나 ESG를 넓은 의미의 시민교육과 사회 운영 원리와 통합하여 바라보는 ESG 교육에서는 관련 주체들의 직간접적인 참여의 양적, 질적 확대를 중시한다는 차이가 있음.

-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편성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더라도 내용적인 면과 방법적인 면에서 교육 주체들의 최대한의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참여의 가치는 특히 민주시민교육에서도 가장 중시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참여 감수성을 높인다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지식 전달과 제반 실천 활동이 누군가가 결정을 해서 그냥 따라가기만 가는 것은 수동적인 역할은 시민의 역할이 아니라는 관점을 심어주는 넓은 의미의 관점임.

○ ESG교육의 참여 감수성 교육은 참여를 통해 부당한 권리의 침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나 룰을 결정하는데 스스로의 목소리를 더하고 그 과정에서 직접 적절한 역할을 맡는다는 의미도 포함함.

□ 참여 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 주제 커리큘럼 개발(안) 개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 참여감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수업시간/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

- 적극적으로 참여/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진의 확보와 학교와 지역사회/학교관리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

전문가 E :
예상되는 어려움과 해결방안 :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범교과학습주제 커리큘럼 개발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1) 참여감수성 증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안정적인 수업시간/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2) 범교과학습주제로 적극적으로 참여/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사진의 확보와 학교와 지역사회/학교관리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의 어려움이 예상됨,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교사학습단체/소그룹을 통해 다양한 교과, 다양한 학습주제에 ESG 참여감수성 증진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 모임 지원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ESG? 애쓰지?

1. ESG? 애쓰지?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ESG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기업들이 왜 ESG를 광고하는지를 통해 ESG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ESG
■ 환경(Environment)
■ 사회(Social)
■ 지배구조(Governance)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이다.
■ ESG는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 투자할 때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ESG를 중시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

✓ 주요개념

■ ESG
: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줄여서 일컫는 말.
■ 환경(Environment)
: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의미하지만 주로 자연적 조건을 의미한다.
■ 사회(Social)
: 함께 살아가는 인간집단을 의미하지만, 국가사회, 지역사회처럼 국가 또는 지역과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 지배구조(Governance) :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좁은 의미로는 주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각급 조직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 재무적 요소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 중 재무 곧, 돈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
■ 비재무적 요소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 중 재무 곧, 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요소
■ 기업가치
: 원래는 기업의 재무, 시장, 경영, 기술 등을 토대로 기업을 평가하여 수치로 표현한 가치, 거의 가격과 같은 말. 근래에는 비재무적 요소도 기업가치 평가에 함께 반영하는 추세다.
■ 투자
: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업에 돈을 대는 행위.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 1

✓ '**ESG**' 하면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자.

에너지 서비스 그룹, 에그 스페셜 과자, 에그머니 서프라이즈 고스트

✓ **E**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에너지, 엔터프라이즈, 이코노미

✓ **S**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스페셜, 수퍼맨, 스파이더맨 ,싱어

✓ **G**로 시작하는 말을 생각해보자.

거번먼트, 그리스, 그래픽

✎ 학습활동2

✓ ESG를 광고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보자.

BNK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SK이노베이션

✓ 광고에서 E, S, G로 만든 말을 찾아보자.

애쓰지, 이로운 세상을 그리다, 이런 생각 굿

☞지도안

- 수거한 스마트폰의 배포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직접 광고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교사가 찾아서 보여줍니다.
- 몇 명의 학생만 자원 또는 지명을 통해 앞에 나와 찾아보도록 해도 무방합니다.

✓ 참고할 수 있는 광고
- BNK금융그룹
- 하나금융그룹
- SK이노베이션

✓ 광고를 찾은 후 이야기 나누기
- 각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
- 각 회사가 ESG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확인
- 각 회사가 광고하고 있는 내용

☞**교사용 자료**



그림 1



그림 2



그림 3

✎ 학습활동3

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

출처 :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 어려운 말의 의미를 찾아보자.

✓ 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요소

■ 재무적 요소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 중 재무 곧, 돈과 직접 관련되는 요소.
■ 비재무적 요소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 중 재무 곧, 돈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요소

✓ 지배구조

■ 지배구조(Governance) :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 좁은 의미로는 주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넓은 의미로는 각급 조직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의미한다.

✓ 기업 가치

■ 기업가치
: 원래는 기업의 재무, 시장, 경영, 기술 등을 토대로 기업을 평가하여 수치로 표현한 가치, 거의 가격과 같은 말. 근래에는 비재무적 요소도 기업가치 평가에 함께 반영하는 추세다.

☞교사용 자료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요약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면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 반영해 평가한다. 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비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림 4

기업의 새로운 경영 전략, ESG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2020년 1월 투자자들과 기업 CEO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리스크를 장기적인 투자의 리스크로 보고 투자 결정 요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래리 핑크의 언급을 신호탄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ESG라는 경영 전략이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어 단어 첫 알파벳을 딴 용어로, 2004년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ESG는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SG 요소를 투자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기업의 지배구조와 같은 비(非)재무적 성과를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림 5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ESG가 무엇인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 기업들은 왜 ESG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생각하는 중요한 거야! 기업들이 왜 ESG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지 알아봐야 해. 우선, 환경 문제는 우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거야.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일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중요해. 기업들이 사회에 도움을 주고, 규칙과 윤리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믿고 좋아해줄 거야.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는 것도 중요해.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어.

이렇게 ESG를 실천하는 기업들은 오래 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사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리고 ESG는 세계에서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기업들이 ESG를 신경 써야해.

☞**교사용 자료**

SRI펀드, '착한 기업'에 투자하면 돈 된다.
스튜어드십 도입으로 각광받는 ESG 평가...
'착한 경영' 기업이 투자수익률 높아
[한경비즈니스=이정흔기자] 운용 자산 규모만 9100억 달러(약 1030조원)에 이르는 국부 펀드인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은 3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한전의 매출 중 석탄발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가 넘어선다는 것이 그 이유다.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연기금(캘퍼스, CalPERS)도 석탄 화력 발전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나 연장을 내규로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스웨덴도 자국법을 통해 석탄 관련 회사에 공공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단순히 많은 매출을 올리는 회사가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을 따져본 뒤'에 투자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회책임(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투자'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책임투자(SRI) 펀드가 주목받고 있다.특히 새 정부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SRI펀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활성화 'ESG' 뜬다
'돈 잘 버는 착한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
SRI 펀드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투자의 기본 원칙은 '높은 수익률'이다. 그런데 아무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이라 할지라도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숨어있는 위험요소'가 불거질 수 있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책임 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도 수익률이 높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최근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의 운영사인 MP그룹의 주가는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6월 19일 종가 기준 1700원에서 7월 19일 종가 기준 1305원으로 한 달 새 23% 하락했다. 반면 올해 초부터 착한 기업의 미담이 알려지며 '갓뚜기' 칭호를 얻은 오뚜기의 주가는 1월 65만3000원대에서 7월 현재 74만7000원대까지 올랐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이와 같은 '착한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ESG 평가'다.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사회책임투자전문가그룹인 서스틴베스트에서 한국 기업들의 ESG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SRI 투자에 대한 관심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부쩍 늘어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문 대통령이 경제공약으로 내걸었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의사결정 행사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미 GPF, 캘퍼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기금과 뱅가드,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데 ESG 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이와 같은 요소들을 경영활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목소리를 높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때문에 영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이후 ESG 지수가 상대적으로 각광을 받은 바 있다.

박종한 서스틴베스트 팀장은 "신정부 들어 국내 자산운용사나 투자 기관들 역시 ESG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ESG 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나 투자자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펀드평가 전문업체 제로인에 따르면 국내 SRI 펀드 중 운용자산 10억원이 넘어서는 11개 펀드(5월 첫 설정된 '하이 사회책임투자 펀드' 제외)들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7.97%에 달한다. 박 팀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발달에 힘입어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과 비교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의 수익률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상관관계는 향후 더더욱 커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SRI 펀드의 진화 "올해가 원년"
국내에 SRI 펀드가 처음 주목받은 것은 2009년 무렵 부터다. 국민연금이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에 가입한 것이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SRI 펀드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었다.

현재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사회책임투자는 약 23조 달러 규모다. 전체 관리 운용 자산 대비 약 26%의 비율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 운영되는 SRI 펀드는 15여 개 남짓이다. 설정액 총액도 2000억원이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역시 2016년 말 기준 사회책임투자 운용 자산이 약 6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내 주식 운용 자산(102조원) 대비 6.3% 정도의 비율을 차지한다.

다만 분위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첫 스타트를 끊은 곳은 하이자산운용이다. 하이자산운용은 5월 말 SRI 펀드인 '하이 사회책임투자 펀드'를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SRI 펀드다. 출시 한 달 만에 65억원 정도의 자금을 그러모았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다.

삼성자산운용도 8월 중 SRI 펀드 출시를 준비 중이며 이 밖에 다수의 자산 운용사들이 SRI 펀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KB자산운용 등 국내 대형 기관투자가 40여 곳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SRI 펀드를 속속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선호 하이자산운용 책임투자리서치팀장은 "'착한 투자'라고 하면 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한다는 오해가 있다"면서 "투자 기업을 선별할 때 재무적인 요소를 따져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을 추려낸 뒤 이들 중에서도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더 좋은 투자 대상'을 찾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도 죄악주(전쟁·담배·도박 등)나 ESG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기업들을 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ESG 평가 등급이 일정 정도 이상 상승하는 기업', '섹터별 ESG 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ESG 평가를 종목 구성에 반영하는 펀드들이 등장하고 있다.

박 팀장은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의 자금을 운용하는 일본연기금(GPIF)이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SRI 투자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며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을 필두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활성화된다면 SRI 투자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707251037b

✎ 토론활동2

✓ 내가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돈을 잘 버는 기업

모둠2 돈을 잘 버는 것 외에도 다른 것도 잘하는 기업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면 우리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기업들은 수익이 크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돌려줄 수 있어. 우리가 돈을 더욱 늘리고 풍부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옳은 선택이야.

다른 면에서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
돈을 잘 버는 것 말고도 다른 면에서도 기업이 잘하는지 생각해보면 좋아!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고 책임지며,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고, 제대로된 경영을 하는 경우 더 오래 가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의 투자도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좋은 전략이야.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건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면에서도 잘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장기적인 성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라 할 수 있어. 투자자로서 어떤 걸 선택할지,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따라 생각해봐야 해.

✎ 토론활동3

✓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말해보자. 왜 좋아하는지 이유도 말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기업은 OOO장난감회사야! 이유는 몇 가지 있어.
첫째, OOO장난감회사는 항상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들어내서 내가 즐겁게 놀 수 있어. 그들의 장난감은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해주는데,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그들의 제품들은 디자인도 멋지고 품질도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
둘째, OOO장난감회사는 환경에도 신경을 쓰는 거 같아. 그들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어.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나에게 큰 호감을 주는 거야.
셋째, OOO장난감회사는 사회적인 책임도 잘 다하고 있어. 그들은 기부나 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착한 행동들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줘서 좋아하는 기업이야.
그래서 OOO장난감회사를 좋아하는 거야. 그들은 재미있는 제품을 만들면서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해.

✓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기업이 어디인지 물어보자.
왜 좋아하는지 이유도 물어보자.

나는 OOO아이스크림회사를 좋아해!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
첫째, OOO아이스크림의 맛이 정말 맛있어서 좋아해! 그들의 아이스크림은 다양한 맛과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매번 먹을 때마다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진짜 과일이나 초콜릿 같은 맛이 진하게 느껴져서 더욱 매력적이야.
둘째, OOO아이스크림회사는 직접 생산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서 품질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맛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느낄 수 있어. 그들은 청결한 생산 시설을 유지하고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고객들에게 항상 좋은 제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셋째, OOO아이스크림회사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친환경적인 포장재를 사용하고, 재활용을 장려하며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들의 제품을 더욱 좋아하게 만들어.
그래서 OOO아이스크림회사를 좋아하는 거야. 그들은 맛과 품질에 신경을 쓰면서도 환경을 생각하고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줘.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맛과 함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아해.

☞교사용 자료

[창간 4주년]④-2 착한기업, 결국엔 돈 된다
원정희 기자 jhwon@bizwatch.co.kr
2017.06.20(화) 10:15

사회적책임, 길을 묻다...주목받는 사회적 책임투자
ESG 체크해야 '지속가능경영' 선순환...투자자도 이익
세계 책임투자 비중 26%...다양한 활동사례 참고할만
지난해 이맘때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게 한 '옥시사태'다. 뒤늦게 진상규명이 이뤄지면서 이를 제조·판매 혹은 유통했던 기업들에 대한 여론도 들끓었다.

당시 국민연금이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국내외 기업들에 대규모로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한번 충격을 주었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말하자면 몹쓸 기업, 나쁜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에 국민연금은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동시에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 역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투자 규모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재무적인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인까지도 고려함으로써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 비재무적인 요소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요약되는 ESG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는 것이 기업은 물론이고 주주나 투자자에게도 모두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결론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책임투자는 아직은 규모나 방식 면에서 모두 걸음마 수준이지만 최근들어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ESG를 고려하지 않고선 더는 주주나 투자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책임투자 대상 기업은 어떤 곳일까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투자 대상일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를 평가해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6 ESG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S를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A+ 기업에는 DGB금융, KB금융, S오일,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화재, 신한금융지주, 포스코 등 8곳이 포함됐다.

8곳 중에 4곳이 금융회사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지분이 분산돼 있고, 전문 CEO 경영이라는 점에서 지배구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등급이 떨어진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로 지배주주일가의 사적이익추구 행위나 소비자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기업들이다.

국내 사회책임투자펀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스틴베스트도 일년에 두번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높은 AA등급부터 7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자산 2조원 이상에서 최고등급 AA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과 동부화재 단 두 곳이다.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신창산업, 롯데정밀화학, 한전기술, 두산엔진, 코웨이, 풀무원 등 12곳이 최고등급을 받았다.

주로 은행, 상업전문서비스, 에너지 분야 기업들이 상위 등급에 분포해있고, 음식료, 소매, 담배 등은 하위등급 비중이 높다.

◇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게 수익률도 좋을까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규모도 7조원 수준에 불과해 트랙 레코드를 찾기 쉽지 않고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어렵다. 다만 ESG 등급이 좋은 착한 기업들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방문옥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분석1팀장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전체 투자자산의 26%가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되고 있고,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실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010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6년간 시가총액 방식으로 AA와 A등급 종목의 수익률과 코스피200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AA와 A등급 종목의 수익률이 코스피200 수익률을 5%나 상회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 자료:서스틴베스트 '시장을 이기는 책임투자 전략' 발췌. ESG등급 2단계 개선된 기업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때 수익률.

최근들어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책임투자의 다양한 방법론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하나가 ESG성과가 개선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박종한 서스틴베스트 투자분석팀장은 "사회책임투자에도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ESG 최하위 등급엔 투자하지 않는 선에서 심플한 전략만 사용하다보니 차별화된 포트폴리오 구성이 안된다"며 "해외에서는 ESG등급이 상승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좋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스틴베스트는 ESG등급 2등급 이상 상향 조정되는 종목을 편입하는 식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수익률을 테스트한 결과 연 수익률이 8%에 육박한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같은 기간 코스피200의 연간 수익률은 2.28%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대단한 성과다. 5년반 누적수익률은 약 51%에 달했다.

◇ 해외에선 '착한기업' 유도해 투자수익 높이기도
지난해 전세계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되는 자산은 22조89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운용자산의 26.3%에 해당한다. 2014년의 18조2760억달러보다 25%나 늘어났고, 2012년보다는 약 102%나 불어난 규모다.

사회책임투자 방식도 훨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해외의 공적연기금은 주주관여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책임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식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은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주주에게 더 높은 투자수익을 돌려준다'는 투자철학으로 적극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캘퍼스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 리스트(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기업은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해외 연기금이 국내에서 주주관여활동을 통해 문제를 개선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공무원연금(ABP)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피해 이슈가 제기된 시점부터 삼성전자, 피해자 대표, 시민단체, 정부 등과 정기적인 접촉을 통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14년 삼성전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백지영 서스틴베스트 수석애널리스트는 "해외에선 공적 연기금을 넘어 블랙록(Black Rock), 뱅가드(Vanguard) 등 메인스트림 자산운용사도 운용프로세스에 ESG 분석과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17/05/25/0001/prev_ver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N22WNzYBjsw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최고 등급, 1등급을 받다!!! | ESG편 | 경제번역기 / 기획재정부

☞ https://www.youtube.com/watch?v=4i1E7z0-rDc
풀무원이 말하는 ESG / SBS pick!

☞ https://www.youtube.com/watch?v=U6Fcvhg7UDQ
[생활ESG영화제-세상을바꿀 1.5분 생활ESG 영상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박하선 "다 함께 생활 ESG" / 안치용

☞ https://www.youtube.com/watch?v=7u9n5hoSEoI
[생활ESG영화제-세상을바꿀 1.5분 생활ESG 영상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배유미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 생활ESG영화제

☞ https://www.youtube.com/watch?v=_OnZevnGO1A
[다큐S프라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ESG 열풍 / YTN 사이언스

☞ https://www.youtube.com/watch?v=UHPrwWGwTYM
[Monthly SOVAC] 더 나은 세상을 위한 ESG 이야기 / SOVAC

☞ https://www.youtube.com/watch?v=8lEMrH-3L-Y
"ESG 알아요?" 요즘 아이들에게 LG화학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물었을 때 반응은? / LG Chem

☞ https://www.youtube.com/watch?v=bE1iSUYA0KI
드디어 배운 '재무제표' 읽는법(홍진경,슈카) /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 실천활동2

✓ ESG로 3행시를 지어 보자.

E	
S	
G	

예시

E	이토록
S	신나는
G	지구

E	에너지를
S	서비스하는
G	글로벌 기업

✓ 세 명씩 짝을 지어 ESG 3행시 이어가기를 해보자.

Efficiency, our main attraction,
Sustainable future we enjoy,
Green energy in action, renewable solutions we deploy,

애쓰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고, 친구들을
쓰담쓰담 격려해주며 함께 성장하자
지혜와 열정으로 꿈을 향해 가자

에너지를 아껴
쓰는 사람은
지구를 지키지

✎ 실천활동3

✓ ESG가 들어간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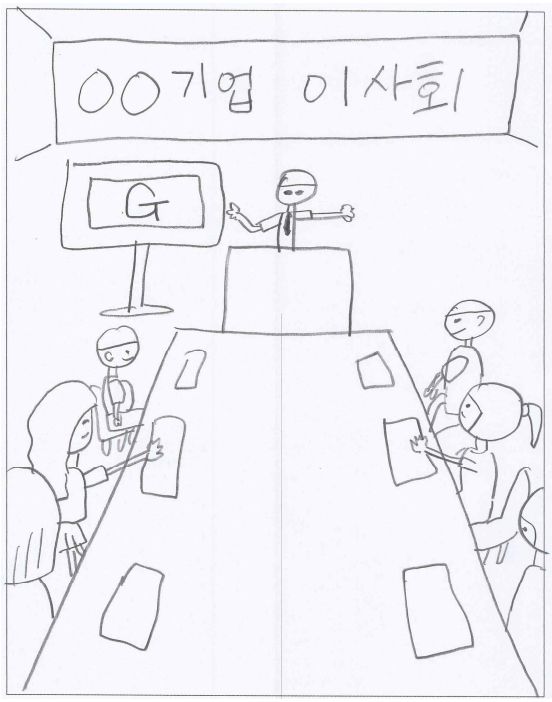


그림 7

2

ESG와 한국의 사회적 가치

2. ESG와 한국의 사회적 가치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ESG의 관련 개념, CSR과 CSV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사회적 가치
■ CSR
■ CSV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의미하고, CSV(Creating Shared Value)는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뜻이다.

■ CSR과 CSV의 개념 차이는 있지만, 기업이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갖는다.

■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이 본래의 목적인 이윤 추구와 함께 공동체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ESG를 고려하고 있다.

✓ 주요개념

■ 사회적 가치

: 사회·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치(www.socialenterprise.or.kr)

■ CSR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윤 추구에 더해 기업에 요구하는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

■ CSV

: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기업은 경제적 가치로서 이윤 추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증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CSR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8

📖 아래 단어가 무엇을 줄인 말인지 찾아 적어보자.

✓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윤 추구에 더해 기업에 요구하는 법적, 윤리적, 경제적 책임.

✓ CSV

Creating Shared Value, 공유 가치 창출. 기업은 경제적 가치로서 이윤 추구와 함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 증진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를 일컫는 말

✎ 학습활동2



그림 9

✓ ESG와 CSR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ESG와 CSR은 기업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나타내는 두 가지 개념이야.
ESG는 환경, 사회, 회사지배구조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CSR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을 말해. 둘 다 기업이 사회적인 영향을 생각하고 경영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 ESG는 기업이 환경, 사회, 회사지배구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야. 반면에 CSR은 주로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
ESG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경영 성과와 관련이 있고, CSR은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
ESG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반면, CSR은 주로 기업의 외부적인 이미지와 평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요약하면, ESG는 기업이 환경, 사회, 회사지배구조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고, CSR은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책임을 말해.



그림 10

✓ ESG와 CSV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ESG와 CSV는 둘 다 기업이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ESG는 기업이 잘 운영되고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것을 강조해. CSV는 기업이 돈을 버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중요시해.

ESG와 CSV는 기업이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ESG는 기업이 환경을 좋게 지키고 사람들과 잘 지내며 규칙을 잘 지키는 거야.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야.
CSV는 기업이 돈을 벌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기업이 돈을 벌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ESG와 CSV는 기업이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는데 초점을 둔다는 뜻이야.



그림 11

✓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무슨 뜻인지 생각해보자.

재무적 요소는 돈과 관련된 것들이야.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익이 있는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이 재무적 요소야. 예를 들면 매출액, 이익, 지출 등이 재무적 요소에 해당해.
비재무적 요소는 돈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이야.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환경을 보호하는지, 사람들과 잘 지내는지,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지 등이 비재무적 요소야. 예를 들면 사회공헌활동, 환경보호, 고객만족 등이 비재무적 요소에 해당해.
이렇게 재무적 요소는 돈과 이익과 관련된 것이고, 비재무적 요소는 사회적인 가치와 윤리, 환경 등과 관련된 것이야. 기업이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서 성공을 이룰 수 있어.

☞**교사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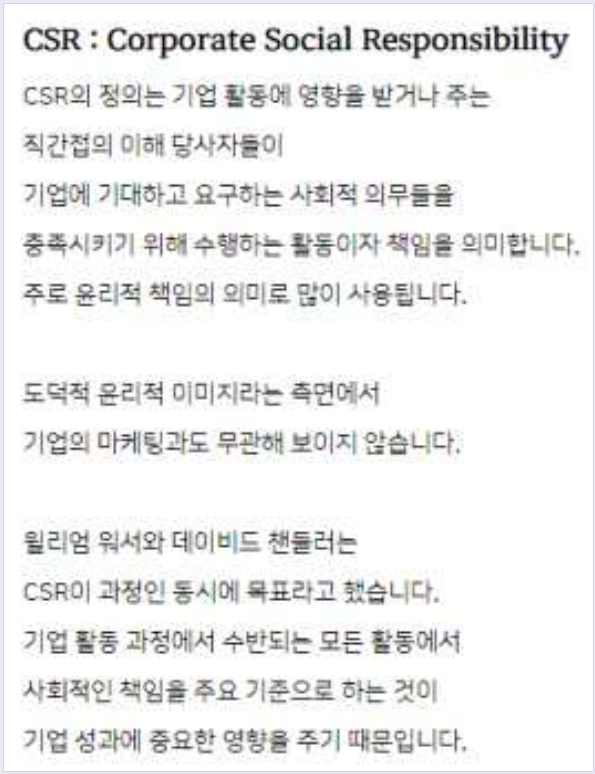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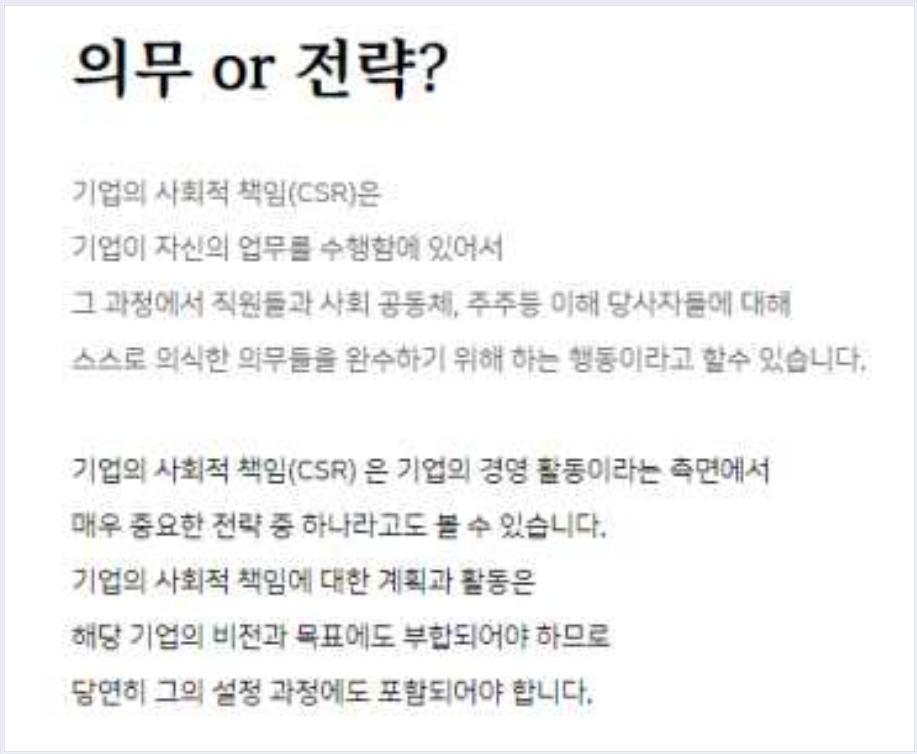


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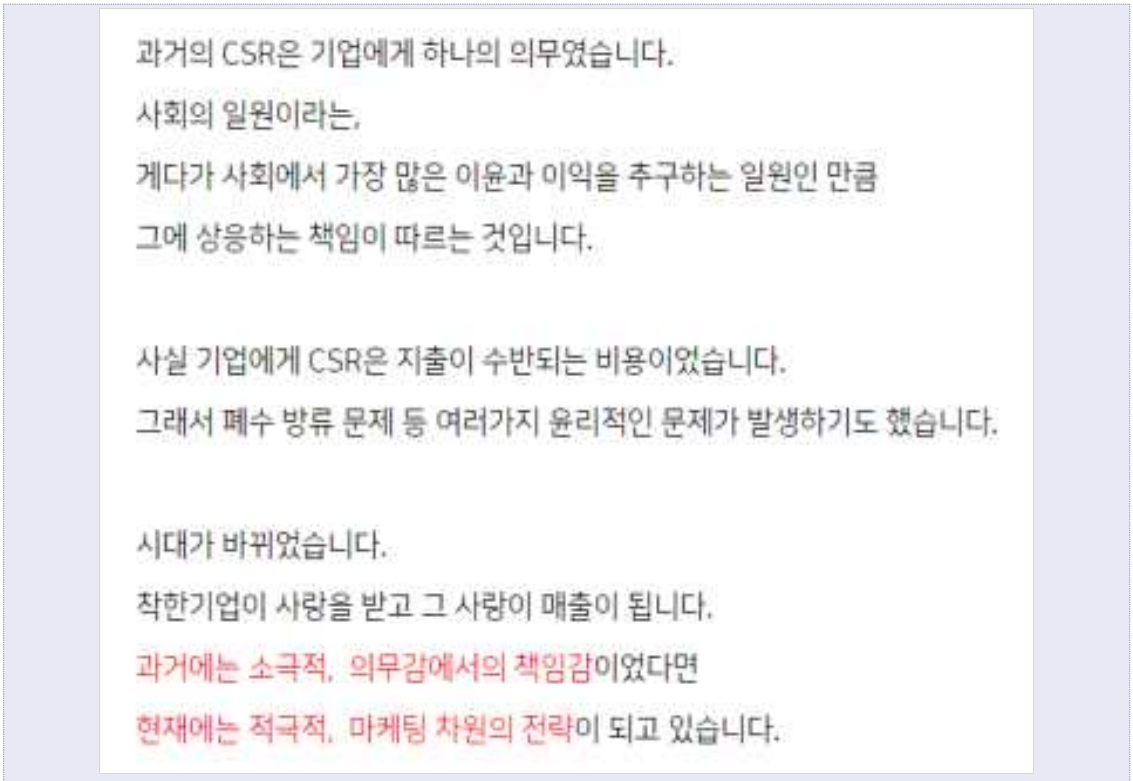

과거의 CSR은 기업에게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사회의 일원이라는,
게다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이윤과 이익을 추구하는 일원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 기업에게 CSR은 지출이 수반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수 방류 문제 등 여러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착한기업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매출이 됩니다.
과거에는 소극적, 의무감에서의 책임감이었다면
현재에는 적극적, 마케팅 차원의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 14

☞교사용 자료

국민 열에 여섯은 "기업 CSR 수준 높아져" 인식

우리 국민 중 열에 여섯은 국내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이행 수준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가지로는 투자와 고용을 통한 경제발전 기여를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유시장경제와 기업의 역할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국민 과반은 기업의 CSR 이행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인식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CSR 이행 수준을 평가하는 질문에 '강화(58.2%) 됐다'는 답변이 '비슷(27.0%)', '약화(12.8%)' 보다 많았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CSR 분야는 소비자가치 제고(28.3%)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역사회참여(16.7%), 지배구조 개선(16.2%), 친환경(15.7%) 등의 순이었다.

<기업 CSR 수준이 제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CSR 수준이 높은 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 경향도 나타났다. CSR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기업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87.3%(매우 그렇다 30.6% +그런 편이다 56.7%)로 나타난 반면, 구매와 무관하다(9.9%), 잘 모르겠다(2.8%)는 낮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기업 CSR 활동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의견도 87.5%에 달했다.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을 묻는 질문에선 투자와 고용 확대(40.4%), 이윤 등 경제적가치 창출(3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15.4%), 사회 불평등 완화(7.9%), 창의와 혁신을 통한 사회변화 선도(6.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바라는 기업의 역할>

또한 상당수 국민은(74.6%)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자유시장경제가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 퇴보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11.4%에 불과했다.

보다 강화해야 할 CSR 분야로는 고용안정.양질의 일자리 제공(20.8%), 오염방지·기후변화 대응(18.4%), 법규 준수 및 윤리경영(14.3%), 소비자보호 및 분쟁 해결(11.1%) 등이 지적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자유시장경제의 확산은 결국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며, "기업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라도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더욱더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업의 노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tnews.com/20230510000009

☞교사용 자료

[DBR]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아레테' 찾아라
호메로스-키케로-미켈란젤로 '眞善美의 삶'

인문학은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을 직접 제시하기보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과 방법을 알려준다. 경영자들의 현실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준다는 데 인문학의 진정한 가치가 있다. DBR그래픽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모든 학문은 역사가 깊어질수록 연구 방법론이 경직된다. 기존 이론에 대한 유연한 해석이나 혁신적인 접근은 연구의 엄밀성을 유지하려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좌절된다. 이처럼 학계의 경직성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학문은 이른바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 지금의 인문학 열풍은 경직된 전문가 집단의 인문학 연구에 대한 반발이란 측면도 있다.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인문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김상근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가 진단한다. 시공을 초월한 인문학적 성찰의 기본 정신인 '탁월한 진선미(眞善美)의 삶'을 통찰한 이 글의 원문은 DBR(동아비즈니스리뷰) 86호(8월 1일자)에 실려 있다.

○ 그리스 시대(眞) 호메로스의 인문학-나는 누구인가
그리스의 서사시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10년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또 다른 10년간 온갖 고난을 극복하며 고향 이타케로 돌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다. 오디세이아는 이렇게 시작한다. "들려주소서, 무사 여신이여! 트로이의 신성한 도시를 파괴한 뒤 많이도 떠돌아다녔던 임기응변에 능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들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았으며 바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우들을 귀향시키려다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제1권 1-5절)
호메로스는 첫 구절부터 오디세우스를 강인한 영웅으로 묘사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존재라고 밝혔다. 세상의 모든 리더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그 고통이 깊어진다.
리더는 또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다. 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시켜야 한다. 이때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를 돛대에 꽁꽁 묶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란 질문을 해야 한다. 호메로스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란 사실이다. 진실로 참된 인간이 되려면 '고통을 견뎌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호메로스 인문학의 요체다.

○ 로마 시대(善) 키케로의 인문학: 내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의무론'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가 무엇인지 고민했다. 키케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자신을 해치지 않는 이상 남을 해치지 말 것, 공공물은 공공을 위해 사용할 것, 개인의 사유물은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 등이다. 이른바 '정의로운 사회'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자기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계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세에서 완성된다.

키케로는 남을 돕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강자가 초법적으로 군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돌본다. 이런 사상을 담고 있는 아래 구절은 키케로의 '의무론'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주는 것과 같다. 남에게 불을 붙여줬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은 아니다."(1:51)

○ 르네상스 시대(美) 미켈란젤로의 인문학: 나는 어떤 아름다움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르네상스 시대는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의 시대였다. 미켈란젤로가 20대 후반에 완성한 걸작 '다비드'상을 보자. 5m가 넘는 거대한 순백(純白)의 대리석에 미켈란젤로는 생명을 불어넣었다. 차가운 대리석 표면에 온기가 돌고 깊이 파인 눈에서는 광채가 뿜어 나온다. 예술사가들이 "조각이란 장르는 이 작품으로 끝이 났다"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탁월하다.

미켈란젤로는 아레테(Aret‾e·탁월함)를 추구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인간이 이룩할 수 있는 아레테의 최고봉에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정상에 올라 본 사람만이 그 산(山)의 전모를 아는 것처럼 미켈란젤로는 아름다움의 극단에서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겸허하게 삶과 죽음을 성찰했다.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심판' 앞에서 작품을 주문했던 교황 바오로 3세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교황조차 '최후의 심판' 앞에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것이다. 이 작품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은 더 충격적이다. 한 선지자의 손에 들려 있는 미켈

란젤로의 흉측한 모습이 살가죽만 남은 시신으로 묘사됐다. 교황까지 고개를 숙이게 한 위대한 작품을 그린 예술가가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그림을 그린 자신도 결국 최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회한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름다움의 극단까지 올라갔던 미켈란젤로는 결국 자신도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란 최후를 맞이한다는 게 인문학적 성찰의 마지막이다.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다했을 때 뒤에 남게 될 인생의 무늬는 진정 아름다울 것인가 아니면 추할 것인가.

김상근 연세대 신과대학 교수 I 정리=김남국 기자 march@donga.com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10721/38984541/1

☞교사용 자료

벤치마킹, 그냥 따라라?... 경영사례 베스트40

▼DBR Case Essentials

'비수기에도 고객을 유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상권의 범위가 좁고 입지마저 열악한 영업점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쟁쟁한 프리미엄 브랜드가 즐비한 시장에서 시장 개척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벤치마킹,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독자들을 위해 DBR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2008년 1월 첫 호 발간 후 3년 반 동안 DBR에 실린 수많은 경영 사례 중 40개를 엄선했다. 마케팅, 전략, 인사조직, 운영관리 등 각 분야별로 기업 실무자들이 부닥치는 고민과 그에 대한 솔루션을 Q&A 형식으로 요약했다. 역경과 고난을 극복한 기업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본주의 위기 해결방안 '공유가치 창출'

▼ Harvard Business Review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곤경에 처한 자본주의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새로운 해결책으로 '공유 가치 창출(CSV·Creating Shared Value)'이란 개념을 제시했다. 공유 가치는 사회 발전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이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함에 따라 경제 발전과 성장을 방해하는 정책들이 양산되는 현 시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글이다. 이미 창출한 가치를 재분배하는 데 주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수준을 넘어 CSV는 경제사회적 가치 총량의 확대를 주장한다.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출처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0721/38984541/1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ESG와 CSR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ESG와 CSR은 기업이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그러나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
ESG는 Environmental (환경), Social (사회적), Governance (지배구조)의 약자야. 이는 기업이 환경 문제를 고려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을 의미해. ESG는 기업이 다양한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규범적인 지배구조를 가지는 것을 강조해.
CSR는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약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의미해. CSR은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문제에 기여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강조해.
ESG와 CSR의 차이점은 주로 초점이 다른 점이야. ESG는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대한 요소를 강조하는 반면, CSR은 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창출에 집중해.
하지만 ESG와 CSR은 결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어. 기업이 ESG와 CSR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 학생들이 어려워 할 수 있다면, 우수한 학생들을 대표로 뽑아 토론하는 방법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 ESG, CSR, CSV의 구체적인 의미를 따지면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기업이 돈을 버는 기본 목적 이외에도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토론활동2

✓ 기업이 ESG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반드시 해야 한다.

모둠2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기업이 ESG 활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건 "규칙" 같은 거야,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지, 그렇게 하면 기업이 모범적인 예가 되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모둠2>

기업이 ESG 활동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

기업이 주로 돈을 버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돈을 잘 벌면 경쟁력도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기업이 ESG 활동을 어떻게 할지는 기업과 사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아두자,

✎ 토론활동3

✓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 CSR 활동으로 제안하고 싶은 활동을 이야기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는 CSR 활동으로 어떤 제안을 해볼까?
나는 OOO회사가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활동을 해주면 좋겠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동물 보호소나 어린이 병원을 방문해서 도움을 줄 수 있어. 우리는 동물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주고, 아픈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선물할 수 있어.
또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도 해보면 좋겠어! 우리는 쓰레기를 줍고, 나무를 심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환경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 지구를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
또한, 교육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때? 우리는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교육용 장난감과 책을 기부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어린이들이 꿈을 키우고 미래에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이런 CSR 활동을 해주면, 사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기업에 제안해보고 싶어! 어때? 같이 좋은 일을 해보면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

✓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어떤 기업이 어떤 CSR 활동을 하면 좋을지 기록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기업에는 어떤 CSR 활동을 제안해볼까?
OO아이스크림 기업은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활동을 해주면 좋겠어!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초대해서 아이스크림 만들기 체험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그 아이스크림을 판매해서 수익금을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
환경을 생각한 활동도 해보면 좋겠어! 우리는 친환경적인 패키지를 사용하고, 재활용 가능한 컵과 숟가락을 제공할 수 있어. 또 지역의 청소 활동에 참여해서 우리 주변을 더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또한,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무료 아이스크림을 나눠주거나, 사회적 약자를 돕는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어.
우리 아이스크림 기업이 이런 CSR 활동을 해주면,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을 거야! 제안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 함께 좋은 일을 해보자!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 실천활동2

✓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알려주는 책 만들기를 해보자.

사회적 가치란 무엇일까?	

✎ 실천활동3

✓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찾아 기업을 좋아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자.

✓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 또는 CSR 활동이 무엇인지 조사해보고 보고서를 써보자.

나는 스니커즈 기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첫째, 스니커즈를 신으면 멋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스니커즈는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나와서 내 스타일에 맞게 골라 신을 수 있어. 그래서 학교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
둘째, 스니커즈 기업들은 종종 환경을 생각한 제품을 만들어줘!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스니커즈를 출시하기도 해. 그래서 나는 환경을 지키는 일에 도움을 주는 스니커즈 기업을 좋아해!
셋째, 스니커즈 기업들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해줘! 예를 들면,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지원 활동을 진행하기도 해. 그래서 나는 스니커즈를 사면서 동시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느껴!
이런 이유들로 인해 나는 스니커즈 기업을 좋아하게 됐어! 스니커즈를 신으면 멋지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을 응원하고 싶어!

3

ESG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3. ESG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지속가능한 발전과 SDGs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ESG와 SDGs의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지속가능한발전
■ SDGs
■ UN
■ 빈곤
■ 경제발전
■ 공동체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UN은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국가별 추진을 독려하고 있다.
■ SDGs는 모두 17가지의 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ESG는 SDGs의 달성을 위해 기업에 특별히 부과된 목표로 이해할 수 있다.

✓ 주요개념

■ 지속가능한 발전
: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을 하더라도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미.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2015년 유엔에서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해 채택한 공동 목표.
■ UN
: 국제연합. 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빈곤
: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어려운 상태.
■ 존엄성
: 가장 높은 수준에서 귀한 성질. 인간 존엄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경제발전
: 국가의 부가 증가하여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상태.
■ 공동체
: 같은 생활공간에서 서로 영향을 끼치며 일정한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는 집단.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반기문 "한국도 지속가능발전 위해 독자적 전략 세워야"

한승희 기자
입력 2018.11.29.22:41

전경련, 반기문·日 경단련 초청 특별대담 개최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UN SDG와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한·일 경제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9일 경제계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일본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과 함께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유엔 SDG와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대담은 빈곤, 인권, 환경오염 등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SDG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 연사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단련 신임 회장이 참여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유엔 총회를 통해 SDG 채택을 이끌었고, 나카니시 회장은 소사이어티 5.0을 처음 제안해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림 15

✓반기문이 누구인지 조사해 보자.

오늘은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으로 활동했어요. 사무총장은 유엔의 가장 중요한 직책이에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전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제 사회를 이끌었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어요. 그는 세계 평화와 안전, 인권,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그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고 도전했어요. 전쟁이나 기근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를 동원했어요.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사람들의 안전과 복지를 중요시했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파리 기후 협정을 이끌었어요. 또한, 세계적인 전염병인 에볼라와 싸우기 위해 국제 사회를 동원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국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그의 노력과 열정은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모두 좋은 영향을 주었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이렇게, 반기문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반기문 UN총장이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한 SDGs는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SDGs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목표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SDGs는 17가지 목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의 목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교육, 식량 안보, 깨끗한 물, 인프라 구축, 기후 변화 등이 있어요.
SDGs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어린이들도 SDGs에 참여하여 미래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SDGs 중 하나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교에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SDGs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체들로 가득차있어요. SDGs는 지구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후 변화'와 관련된 목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해요.
SDGs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룰 수 있어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SDGs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일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것도 SDGs를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SDGs를 이루면, 더욱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미래의 지구를 위해 노력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린이들로서 SDGs에 도전해봐요!

✎ 학습활동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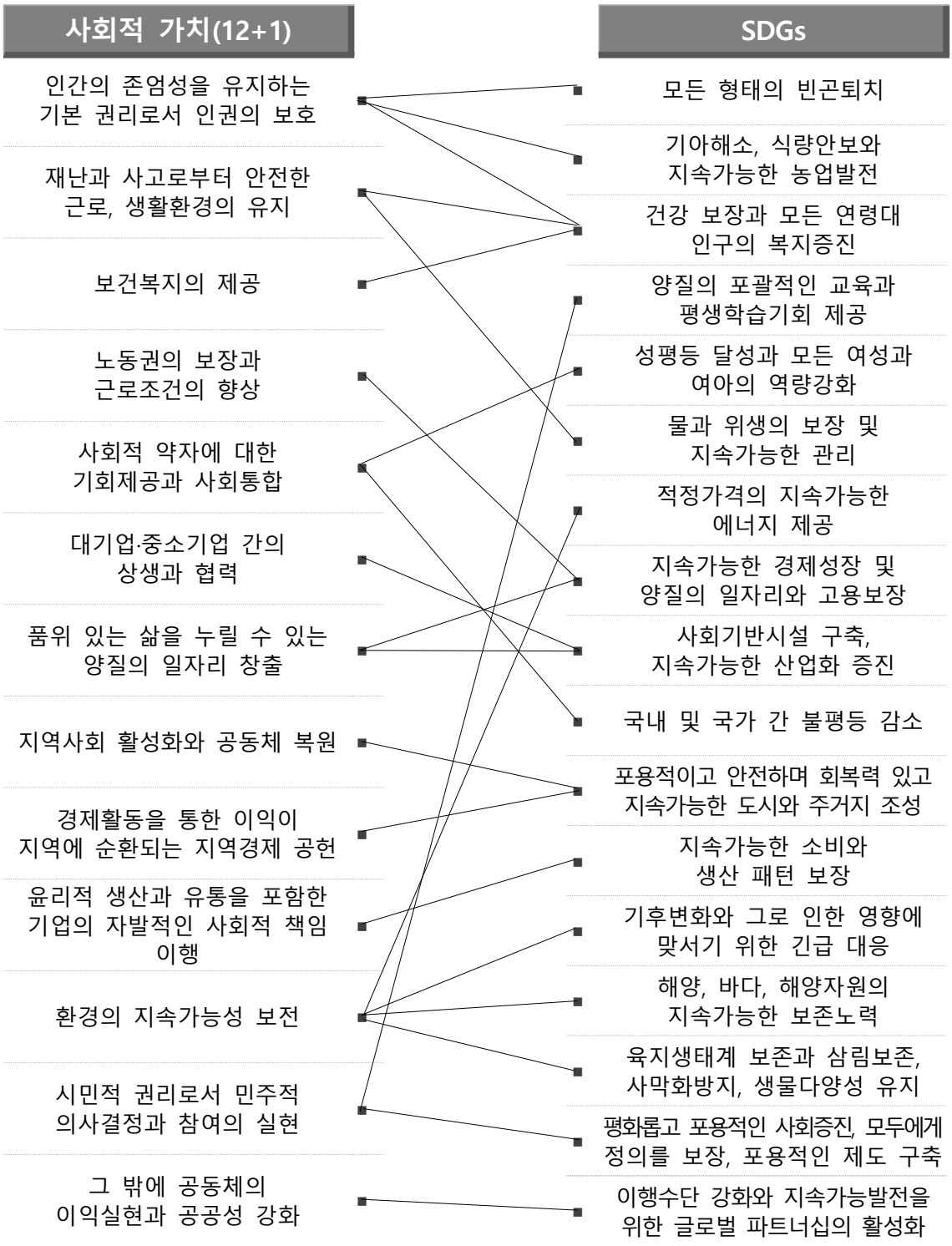
그림 16 UN

📖 SDGs 17가지 항목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1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2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보장
3	건강 보장과 모든 연령대 인구의 복지증진	13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
4	양질의 포괄적인 교육과 평생학습기회 제공	14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5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15	육지생태계 보존과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생물다양성 유지
6	물과 위생의 보장 및 지속가능한 관리	16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를 보장, 포용적인 제도 구축
7	적정가격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17	이행수단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활성화
8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보장		
9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10	국내 및 국가 간 불평등 감소		

✎ 학습활동3

📖 사회적 가치(12+1)와 SDGs 항목에서 비슷한 것을 연결해보자.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SDGs의 17가지 항목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을 골라 어떤 내용인지 토론해 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교육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요. SDGs에서 '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세계에는 여전히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교육을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사고방식을 배우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어요.
하지만 '교육'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해요. 우리 어린이들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육에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도와주면 모두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SDGs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항목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 토론활동2

✓ SDGs의 17가지 항목에서 더 추가해야 할 항목은 없는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17가지로 충분하다.

모둠2 추가로 반영할 주제가 있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1모둠>
저희는 SDGs의 17가지 항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아래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유들이에요.
첫째, 17가지 항목은 지구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 '식량 안보', '기후 변화' 등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SDGs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으며, 국제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이루도록 돕고 있어요.
둘째, SDGs는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어요. 17가지 항목은 환경,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영역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행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셋째, SDGs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공통된 목표들이에요. 17가지 항목은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기구와 많은 국가들에 의해 합의된 것이에요. 이는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저희는 SDGs의 17가지 항목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항목들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SDGs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해봐요!

<2모둠>
저희는 SDGs에 추가로 반영할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SDGs의 17가지 항목은 이미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몇 가지 주제들을 더 추가함으로써 더욱 포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아래는 몇 가지 주제들과 그 이유에 대한 저희 의견이에요.
첫째, '사회적 평등'이라는 주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사회적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의미해요. 이를 위해서는 성별, 인종, 장애 여부, 경제적 배경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인권이 보장되어야 해요.
둘째, '정신 건강'이라는 주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정신 건강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한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신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셋째,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도 추가할 수 있어요. 소비자 보호는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공정한 가격과 품질을 보장받는 것을 의미해요. 소비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주제들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SDGs는 이미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국제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된 목록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모으고 협상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SDGs에 반영된 주제들을 실천함과 동시에 다른 주제들에 대한 관심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에요.

✎ 토론활동3

✓ UN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토론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UN은 "United Nations"의 줄임말이야. 유엔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모여 협력하고 평화와 안전, 인권, 개발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기구야.
유엔은 1945년에 설립되었어. 그 때 이후로 19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해있지! 유엔은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여러 기구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어.
첫째, 유엔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세계 평화"야. 유엔은 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국가들 사이에서 대화와 협상을 장려하며,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평화유지군 등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어.
둘째, "인권"도 유엔의 중요한 주제야. 유엔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는 전 세계에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셋째, "개발"도 유엔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야. 유엔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가들이 빈곤을 줄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 유엔개발계획(UNDP)과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유엔은 국가들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회의와 협상을 진행해. 또한, 유엔은 국제법을 개발하고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유엔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어.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 실천활동2

✓ SDGs 17가지 항목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보자.

SDGs의 17가지 항목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항목들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앞 글자를 이용하는 거야. 각 항목의 영어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약어를 만들어볼 수 있어. 예를 들어, "No Poverty"를 P로 표현하고 "Quality Education"를 E로 표현하면 P, E, L, H, G 등의 약어가 나오겠지?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이나 상징을 사용하는 거야. 각 항목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야. 예를 들어, "Good Health and Well-being"을 나타내기 위해 건강한 사람을 그려볼 수 있어.

세 번째 방법은 연상법을 사용하는 거야. 각 항목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미지나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를 연상시키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볼 수 있어.

마지막으로, 항목들을 간단한 문구로 요약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를 "지속 가능한 도시와 커뮤니티"라고 요약해볼 수 있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SDGs의 17가지 항목을 기억할 수 있어요. 방법을 선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재미있게 시도해보고, SDGs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걸 잊지마세요!

✓ SDGs 항목 중 한 가지를 골라 그림을 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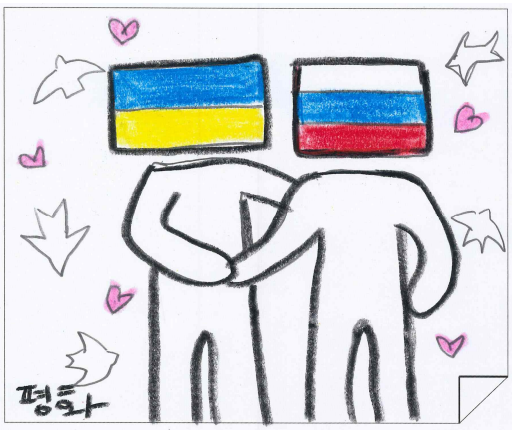


그림 17



그림 18

✎ 실천활동3

✓ UN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주변에서 SDGs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찾아 조사해보자.

주변에서 SDGs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많은 사람들이 SDGs를 실천하고 있어,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 동네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 사람들이 쓰레기를 잘 버리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동네에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태양열 패널이 설치된 집도 있어, 이렇게 하면 지구를 보호하고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도 많이 있어,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어,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공원을 청소하거나,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해, 이런 활동은 사람들 사이의 연대감을 높이고, 더 나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어,

"교육을 즐기는 활동"도 있어, 동네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어, 어린이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어, 또한, 동네 주민들끼리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 이를 통해 모두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건강을 챙기는 활동"도 중요해, 우리 동네에는 체육 시설이나 운동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있어, 또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농장이나 시장도 있어, 우리 동네 사람들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건강한 삶을 즐기고 있어,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SDGs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생각해보면 더 많은 활동이 있을 거야, 우리도 SDGs를 실천하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4

쓰레기와 자원순환

4. 쓰레기와 자원순환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자원순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쓰레기
■ 자원순환
■ 재활용
■ 분리배출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스스로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도 실천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 자원순환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 툰베리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등교를 거부해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 주요개념

■ 쓰레기
: 인간이 사용 후 배출하는 고체 형태의 폐물질.
■ 자원순환
: 인간이 사용 후 배출된 폐기물을 다시 사용하여 자원의 역할을 하게 하는 행위.
■ 재활용
: 쓰레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과 함께 쓰레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 분리배출
: 쓰레기를 종류에 따라 나누어 버리는 행위.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19

✓ 나의 분리배출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분리배출을 해본 경험)
나도 분리배출을 해봤어!
우리 집에서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기로 했어.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유리병, 음식물 쓰레기 등을 따로 모아서 버리는 거야.
먼저, 일반 쓰레기는 흰색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거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뚜껑, 과자 포장지 등이 이에 해당돼. 이런 쓰레기는 손에 안 묻게 조심해서 봉투에 넣어주면 돼.
다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해. 음료수 병이나 플라스틱 용기, 비닐 봉지 등이 여기에 해당돼.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투명한 봉투에 따로 모아서 버릴 수 있어.
그리고 종이도 분리해서 버려야 해. 책이나 신문지, 과제지 등 종이로 만들어진 것들은 모아서 특별한 종이용 봉투에 넣어주면 돼. 이렇게 하면 나무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어.
유리병은 따로 모아서 버려야 해. 음료수병이나 소스병 등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별한 장소에 버려야 해. 이렇게 함으로써 유리를 재활용하고 자원을 아끼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해서 버려야 해.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빨간색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해. 과일 껍질이나 음식물 조각 등을 이에 해당돼. 음식물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버리면,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
분리배출을 통해 우리 집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작은 일을 하고 있어. 나도 어린이로서 환경을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분리배출에 참여하니까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 나중에는 친구들에게도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줄 거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험)
얼마 전에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했다가 엄마한테 혼났어.
어느 날, 나는 너무 바빠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안 했어.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유리병, 음식물 쓰레기를 다 섞어버렸어. 쓰레기를 모으는 때에는 정말 급했고, 분리배출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엄마는 분리배출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아끼며 재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엄마는 나에게 환경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셨어.
그래서 엄마가 쓰레기통을 확인하러 갔을 때, 엄마는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를 발견했어. 엄마는 정말 화가 나셨고, 제대로 분리배출하라고 말씀하셨어. 엄마는 환경을 생각하며 쓰레기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
나는 그 순간 정말 미안했어. 엄마한테 사과하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할 것을 다짐했어. 이 경험을 통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배웠어.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분리배출에 책임을 지고 참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이제부터는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기 위해 쓰레기를 분리하는 데 더 신경쓸 거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지구를 지킬 거야. 분리배출은 작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나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거야.

✎ 학습활동2



그림 20

그레타 툰베리(Greta Tintin Eleonora Ernman Thunberg)

200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태어난 툰베리는 8살이 되던 2011년 기후변화에 대해 처음 듣고 난 뒤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이후 기후변화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절망감에 빠졌고, 11살 때 우울증을 겪으면서 아스퍼거 증후군과 강박장애 및 선택적 함묵증(특정 장소 및 조건에서 말을 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인 발언만 하는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는다.
툰베리는 15세가 되던 2018년 여름, 262년 만에 가장 더웠던 스웨덴의 폭염과 산불을 겪으면서 행동에 나선다. 그해 8월 총선이 열리는 9월까지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변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녀는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school strike for climate)'이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총선 이후로도 매주 금요일 학교를 빠지고 시위를 계속해 나갔다. 이 시위는 세계적 기후 운동인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로 이어져, 그레타의 호소에 감화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기후 재앙에 반대하며 매주 금요일 등교를 거부하고 동조 시위를 벌였다.

이후 툰베리는 같은 해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제24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에 참가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변화 대비를 촉구했다. 또 이듬해 1월 다보스 포럼, 8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도 연설을 이어가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툰베리는 2019년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주는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을 비롯해 '대안 노벨상'으로 불리는 바른생활상을 수상했다.

툰베리는 2019년 9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툰베리는 태양광 요트를 이용해 대서양을 건넜다. 종전까지는 유럽에서만 활동해 왔는데, 탄소 배출이 많은 항공기나 선박 이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회의에서 툰베리는 각국 정상들에게 '세계 지도자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각종 환경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실질적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 '생태계가 무너지고 대멸종 위기 앞에 있는데도, 당신들은 돈과 영원한 경제성장이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며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미래 세대의 눈이 당신들을 향해 있다'며, '우리를 실망시킨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그레타 툰베리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자.

그레타 툰베리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그녀는 2003년에 태어난 스웨덴의 소녀야. 그레타는 환경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있어.

그레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 파괴에 대해 걱정하며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 그녀는 지구 온난화와 같은 문제들이 인류의 미래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레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

2018년 가을, 그레타는 학교를 끝내고 매주 금요일마다 스웨덴의 의회 앞에서 "금요일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슬로건으로 환경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어. 이 시위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레타의 목소리에 주목하게 되었어.

이후 그레타는 유엔에서 열리는 환경 관련 회의에서 강연을 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그녀는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제안하고 있어.

그레타는 어린이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알고, 그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레타처럼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지구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그레타 툰베리는 환경 문제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의 방식과 목소리에 대해 비판을 할 수도 있어. 그레타의 행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과장되고 과격한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

첫째로, 그레타가 금요일 학교를 빠져나가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 일부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중요시하고, 시위를 통한 환경 운동은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또한, 그레타의 시위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너무 강제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둘째로, 그레타의 강렬한 톤과 비판적인 발언은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해. 그녀는 종종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매우 강한 언어를 사용해.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공격적이고 과격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

마지막으로, 그레타의 제안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어. 그녀는 종종 문제를 제기하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해.

그레타 툰베리의 열정과 목소리는 분명히 중요하고 주목할 만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 학습활동3

📖 기사를 완성해 보자.

'탄소중립'에 이어 최근엔 '자원순환'이라는 용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자원순환'이라는 용어의 뜻을 알아봤다. 자원순환기본법에 정의된 [A]은 환경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5월 26일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 둘째,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한다. 셋째,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원칙에 따라 순환 이용하거나 처분한다.

결국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우리가 매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도 폐기처분할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버리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하는 데 있다. 재활용도 일회성으로 한 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영구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B]에 넣어서 버리는 쓰레기는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을 거쳐서 없앤다. 하지만 쓰레기를 매립하면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C]를 소각하면 대기 중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 결국 쓰레기를 폐기처분하면 환경이 오염되므로 친환경적이지 않을뿐더러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과도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폐기처분하는 쓰레기양을 줄이면서 분리배출한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하려는 제도 및 정책 등이 마련되고 있다.

이제 우리 주변에서 자원순환의 사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떤 게 있을까? 지난 10월에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2022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에서도 자원순환을 거쳐 재탄생한 여러 제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가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종이로 제작한 제품들이 눈에 띄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자원순환
B	종량제봉투
C	쓰레기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툰베리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야기해보자.

✓ 내가 툰베리처럼 행동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만약 내가 툰베리처럼 행동한다면, 환경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줄게,
첫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해 알리고 의식을 높일 수 있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설명해줘. 그들에게 분리배출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
둘째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불이나 전등을 끄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 또한, 플라스틱 물병이나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함에 올바르게 버리는 것도 잊지 말아줘,
셋째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나무를 심을 수도 있어. 트리플랜팅이라는 활동에 참여해 보면 돼. 공원이나 정원에서 나무를 심는 것은 지구를 더욱 녹색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 또한, 환경을 위한 단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함께 지구를 지킬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 툰베리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주장하고, 작은 일이라도 환경을 위해 행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친구들에게 네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함께 환경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어보자,
툰베리처럼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우리 모두의 일부가 될 수 있어.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어. 너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줘!

나는 학교를 가지 않고 더 많이 놀고 싶어. 학교가 재미없거나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 나는 학교에서 얻는 지식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놀면서 배우고 싶어.
우선, 더 많이 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여행이야.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면서 자연과 문화를 배울 수 있어. 동물들과 친구가 되거나 다양한 음식을 맛보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배울 수 있어.
또한, 놀이동산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롤러코스터를 타고 아슬아슬한 경험을 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기구에 타면서 스릴을 느낄 수 있어. 놀이동산에서는 놀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도 있고, 협동과 팀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자연 속에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 공원이나 숲으로 가서 나무를 타거나 숲속에서 모험을 할 수 있어. 건강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어. 자연에서는 식물과 동물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지구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놀기 위해서는 책임도 중요해. 놀면서 안전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과 존중하며 협력하는 것도 잊지 말아줘. 또한, 놀이를 통해 배운 것들을 자신의 경험으로 삼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도 더 많이 놀면서도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해. 놀면서도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 토론활동2

✓ 툰베리의 등교 거부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을까?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적절한 방법이다.

모둠2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나는 등교 거부가 툰베리에게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첫째로, 툰베리의 등교 거부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어. 그녀의 행동은 많은 언론과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이야기되는 계기가 되었어. 툰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으로써 지구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했어.
둘째로, 툰베리의 행동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시그널이었어. 그녀의 등교 거부는 정부와 국제 사회에게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어. 이를 통해 정책 변화와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었어.
세번째로, 툰베리의 등교 거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를 강조하고 존중해줬어.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고 변화의 주역이야. 툰베리의 행동은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줌으로써 더욱 강조되었어.
이런 이유로, 툰베리의 등교 거부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법이었어. 그녀의 행동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모둠2>
나는 툰베리의 등교 거부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첫째로, 학교는 지식과 교육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야. 등교를 거부하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지식을 놓치게 돼. 학교에서는 환경 문제를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 배우고, 사회적, 과학적, 문화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등교를 거부하면 이러한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지식과 이해도가 부족해질 수 있어.
둘째로, 학교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야. 등교를 거부하면 친구들과의 교류와 팀 프로젝트, 동료들과의 협동을 경험하는 기회를 놓치게 돼. 학교에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배울 수 있어요. 등교를 거부하면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상실하게 돼.
세번째로, 학교는 환경 교육을 위한 자원과 활동을 제공하는 장소야. 학교에서는 지구 환경 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 활동, 클럽 등이 있어. 이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등교를 거부하면 이러한 환경 교육 자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돼.
따라서, 툰베리의 등교 거부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우리가 지구 환경을 이해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교를 포기하면 환경 보호를 위한 지식과 경험을 놓치게 돼. 대신,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환경 교육에 참여하여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 토론활동3

✓ 우리 집은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는지 알아보자.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뒷마당에 있는 쓰레기통이야. 우리 집 쓰레기통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는 재활용 쓰레기통이야. 여기에는 종이, 플라스틱 병과 금속캔, 유리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를 넣어줘야 해. 재활용은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사용한 것을 다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여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줘야 해. 예를 들어 과일 껍질이나 음식 남은 것들을 여기에 버리면 돼.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변해 식물이 자랄 때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지켜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일반 쓰레기통이야. 이곳에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넣어줘야 해. 예를 들어 더러운 휴지, 종이컵, 먹은 음식포장지 등이 여기에 속해. 이 쓰레기는 재활용되거나 퇴비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버려야 해.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올바른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쓰레기가 어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해. 함께 환경을 아끼고 지구를 사랑하는 우리의 작은 기부를 통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단을 만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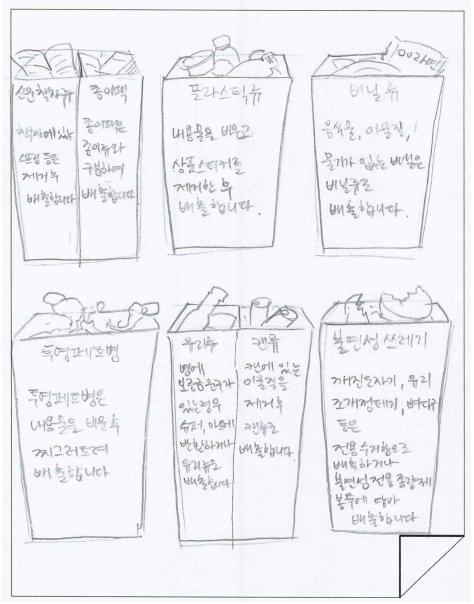


그림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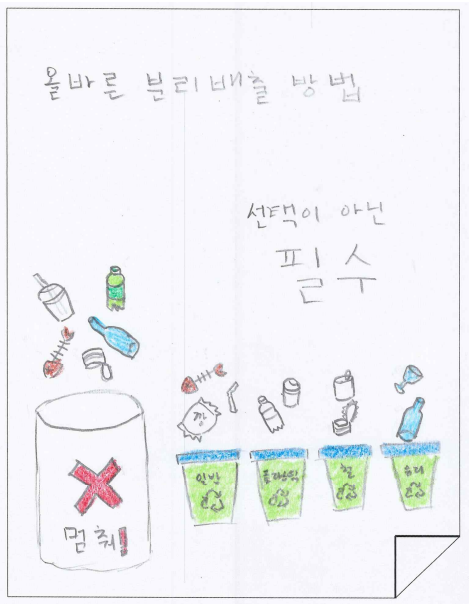


그림 22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 실천활동2

✓ 주변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곳을 찾아 사진을 찍어 보자.

✓ 쓰레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곳에 붙일 안내문을 만들어 보자.

안 내 문

우리가 쓰레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환경과 동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첫 번째, 쓰레기를 적절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중요해요. 쓰레기통은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져 있어요. 재활용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 등으로 나뉘어 있어요. 각각의 쓰레기를 맞는 쓰레기통에 넣어줘야 해요.

두 번째, 분리배출을 잊지 말아야 해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어주고,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배출을 잘 해주면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만들어 자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쓰레기를 주변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길이나 공원, 해변 등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고 동물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꼭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해보자고 제안해볼게요.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물병 대신 재사용 가능한 물병을 사용하면 많은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 실천활동3

✓ 우리 주변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사람을 찾아보자.

✓ 직접 요청해서 만남이 어려우면 주변 어른들께 부탁하자.

✓ 사진을 찍을 때는 허락을 받도록 하자.

만난 사람	OOO	
주 소	서울시 OO구 OO동	
방문일시	2020년 O월 O일	
활동의 특징	일요일마다 둑방길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고 있음	
느낀점	나는 일요일마다 둑방길을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어른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 그 어른은 정말 멋지고 친절한 사람이었어. 그들은 산책하면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서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거야.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어. 첫째로, 그 어른은 환경을 사랑하고 지구를 아꼈어. 그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동물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거야.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야. 둘째로, 그 어른은 작은 일이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 그들은 자신의 작은 행동으로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 그래서 나도 어떤 작은 일이라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 셋째로, 그 어른은 인내와 헌신의 모델이었어. 쓰레기를 주우며 걸어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도 그들은 항상 웃으며 열심히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배워야겠어. 그 어른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대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 나도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쓰레기를 올바른 장소에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어. 그 어른을 보며 배운 것들은 작지만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우리도 그들처럼 작은 일이라도 환경을 아끼고 사회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보자고 생각해	
사 진		

5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5.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기후위기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탄소중립과 탄소발자국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기후위기
■ 탄소중립
■ 북극
■ 리사이클링
■ 탄소발자국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기후위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인간에게 초래되는 위험으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까지 모두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탄소발자국 줄이기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이다.

✓ 주요개념

■ 기후위기
: 기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인간에게 초래되는 위험을 뜻하는 말이지만, 보통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위험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기후 비상사태, 기후 변화가 있다.
■ 탄소중립
: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탄소 배출량이 중립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 여기서 중립은 0(없음)을 의미한다.
■ 북극
: 지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북쪽 끝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학계에서는 훨씬 넓은 범위를 북극으로 포괄한다. 지구의 북쪽 자전축 끝 지점은 북극점으로 구분한다.
■ 리사이클링 = 재활용
■ 탄소발자국
: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특히 이산화탄소)의 양을 일컫는 말.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23

✓ 다큐멘터리 제목인 북극의 눈물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자.

북극의 눈물이란 말은 실제로는 비유적인 표현이야.
북극은 차가운 지역이고, 그곳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 그런데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는 거야. 이것은 동물들과 자연에게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북극의 눈물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표현이야. 이는 북극의 동물들과 생태계가 위협 받고, 북극의 얼음이 녹아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거야.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지 못하면 북극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라는 의미야.
북극의 눈물은 우리에게 경고와 깨달음을 주는 것이기도 해.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줘.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북극의 눈물을 보며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환경을 아끼는 책임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잘 해야 해. 물을 아끼고, 나무를 심고, 동물들과 자연을 존중해야 해. 우리 모두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면서 북극의 눈물을 멈출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구를 더욱 아름답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거야.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생각하고,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해 지구를 위한 책임을 다해보자! 북극의 눈물을 멈추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 이렇게 하면 북극의 동물들과 자연이 행복하게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가 북극의 눈물을 멈추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

✎ 학습활동 2



* 글로벌재활용재단(Global Recycling Foundation)은 2018년부터 3월18알을 '글로벌 재활용의 날'로 정해 지구살리기를 실천하고 있다. 지구의 천연 자원 중 물, 공기, 석유, 천연 가스, 석탄, 광물 등 6가지를 이을 7번째 자원이 리사이클자원이라는 취지이다. 7번째 자원인 재활용을 실천함으로서 우리는 매년 7억 톤 이상의 CO2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림 24

✓ 글로벌 재활용의 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글로벌 재활용의 날은 매년 11월 15일에 열리는 특별한 날이야. 이 날은 전 세계에서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이 재활용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행사를 해.
재활용은 우리가 사용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해. 예를 들면,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분리하여 처리하고, 이를 다시 재생이 가능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거야.
글로벌 재활용의 날은 사람들에게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재활용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있어. 이 날에는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이 개최돼. 학교에서는 재활용에 대한 강연이나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며, 정부와 기업들은 재활용 시설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해.
글로벌 재활용의 날을 통해 우리는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중요성을 배우고, 재활용을 통해 더 나은 지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어. 모두가 함께 재활용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면, 지구를 지키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재활용을 잘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어.

✎ 학습활동3



그림 25

✓탄소발자국 계산기가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시키는 탄소배출량을 쉽게 계산해주는 도구야. 탄소배출량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가스, 연료 등으로 인해 대기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와 다른 온실가스들을 말해. 이 탄소배출량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우리는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어.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탄소배출을 하는지 계산해줘. 이 계산기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가스, 차량 이동, 음식 소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탄소배출량을 예측하고 알려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이 더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지 알 수 있고, 개인적으로 더 환경 친화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사용하면 우리는 자신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 예를 들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어. 우리가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더욱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탄소발자국 계산기는 우리에게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지키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야.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하고 우리의 탄소배출량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어. 재미있는게, 계산기를 사용하면 우리의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도전 과제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탄소발자국 계산기를 사용해서 우리의 힘으로 지구를 지키도록 하자.

✓탄소 문제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지구의 탄소 문제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어. 탄소배출이 많아지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CO2)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쌓여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게 돼. 이런 기후변화는 우리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면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극과 극 사이의 기온 차이가 줄어들어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기도 해.
그리고 탄소 문제는 우리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대기 중에 있는 공해물질과 유독한 물질들이 증가할 수 있어. 이러한 오염은 우리의 호흡 기관에 나쁜 영향을 주고,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탄소 문제에 대해 알아차리고 행동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 우리는 더욱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 또한, 자동차를 자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탄소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것이야.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탄소 문제의 중요성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함께 실천하면, 우리는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탄소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야. 우리가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아끼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면서, 미래에 더 나은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내가 만약 북극곰이라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토론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북극곰: "안녕하세요! 나는 북극곰이에요. 지구의 한 구석에서 사는 동물이에요. 저희 북극에는 아름다운 얼음과 눈이 가득해요. 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제 집이 위기에 처해있어요."

북극곰: "저희 북극에 사는 동물들은 얼음 위에서 사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저희가 먹을 먹이도 없어지고, 서식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굶주리고 위험에 처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북극곰: "지구를 지키려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해요. 재활용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해야 해요. 그래야만 지구가 계속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어요."

북극곰: "저희 동물들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동물들과 자연을 존중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를 사랑하고 지키면 더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북극곰: "마지막으로, 저희 북극곰은 멸종 위기에 처해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해요. 북극곰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계의 일부인데, 우리를 함께 지켜주세요!"

✎ 토론활동2

✓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까?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정부와 기업의 큰 문제이므로 우리는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모둠2 정부와 기업의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을 것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기후위기 해결과 탄소중립은 정말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정부와 기업들이 큰 역할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린이들은 굳이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
첫째로, 정부와 기업들은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지식과 자원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조치와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면 우리 모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리는 그들에게 신뢰하고 역할을 맡기면 돼.
둘째로, 우리는 어린이로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 에너지를 아끼고 재활용을 잘 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올바른 환경 가치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환경에 대해 배우고 관심을 가질 때, 나중에 성장한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리더가 될 수 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미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어. 우리가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면, 가족, 친구, 선생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굳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정부와 기업들이 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우리는 작은 일들을 통해 배우고 행동해가며 환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모둠2>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정부와 기업은 큰 규모의 조치와 정책을 시행해야 하지만, 우리 어린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소중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이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해.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활용을 하며 친환경적인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가족, 친구, 선생님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함께 지구를 지키는데 동참할 수 있어요.

✎ 토론활동3

✓ 재활용의 날이 우리나라도 필요한지 토론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우리나라도 '글로벌 재활용의 날'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재활용은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야.
첫째로, 재활용은 환경 보호에 큰 도움을 줘.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자원이 제한적이라서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해. 재활용을 하면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토양오염을 예방할 수 있어. 또한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신규 자원 생산을 줄일 수 있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면 미래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둘째로, 재활용은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는 거야. 재활용을 활발히 하면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이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거야. 재활용 산업은 재료 수급을 위해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국내에서 자원을 활용해 생산하므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거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재활용의 날'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들은 재활용 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또한 재활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활발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우리는 환경 문제와 자원 절약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재활용을 통해 더욱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해. 우리가 재활용에 노력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에게 큰 가치를 전달해줄거야.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qLXJlHoSz8w
김상욱 교수 | 지구 온난화의 주범은 '인간'일까 '태양'일까? 과학적 팩트로 알아보는 기후 위기의 핵심 [환경읽어드립니다] / 사피엔스 스튜디오

☞ https://www.youtube.com/watch?v=R8D64WD02DQ
홍수, 가뭄, 화재.. "지옥으로 가는 길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21-22 UHD환경스페셜 기후변화 특집 지구의 경고 8편 그랜드 에필로그 위대한 전환] KBS 211216

☞ https://www.youtube.com/watch?v=BJz4F6BDJV8
[하이라이트] 인류가 마주하게 될 기후 전쟁 디스토피아 | 세 개의 전쟁 3회 | JTBC 230127 방송 / 차이나는 클라스

☞ https://www.youtube.com/watch?v=GrMCf4PrKsQ
[다큐S프라임] 탄소중립, 지구의 마지막 1℃ / YTN 사이언스

✎ 실천활동2

✓ 집에서 온 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집 탄소 발자국 실천 항목 5가지를 정하고, 포스터로 그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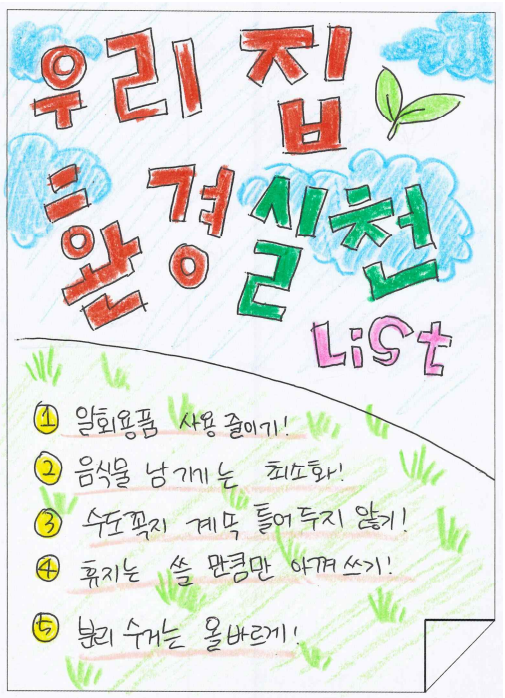


그림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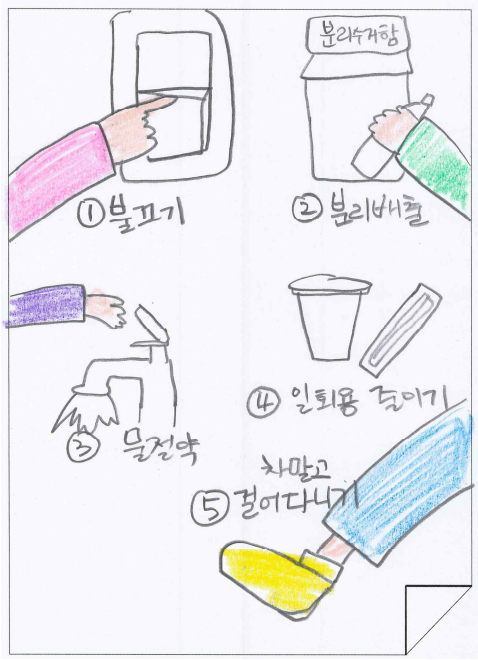


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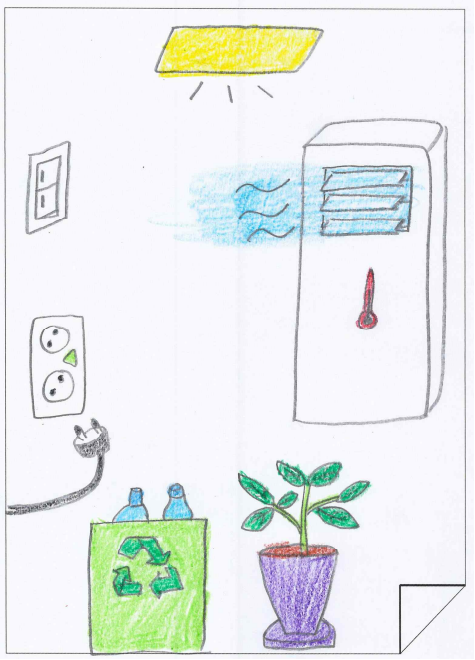


그림 28

✎ 실천활동3

✓ 기후위기, 탄소 중립 같은 주제를 다룬 책을 찾아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자고 권해 보자.

책 제목	
저 자	
발간연도	
내 용	
느낀점	
권한사람	
반 응	

☞교사용 자료

<탄소중립 관련 책 소개>

☞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I 권승문, 김세영 I 휴머니스트 2022년

☞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자고? I 박재용 글, 심민건 그림 I 나무를심는사람들 2021년

☞ 궁금했어, 탄소 중립 I 윤상석 글, 이한아 그림 I 나무생각 2023년

☞ 탄소 중립이 뭐예요? I 장성익 글, 방상호 그림 I 풀빛 2022년

☞ 탄소중립을 위해! 쓰레기를 자원으로 I 이성엽 글. 정유나 그림 I 쉼어린이 2022년

6

안전한 삶과 보건복지

6. 안전한 삶과 보건복지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사회적 가치로서 안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가치로서 보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안전
■ 보건
■ 전동킥보드
■ 구호용품
■ 사회적비용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위험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위험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우는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코로나 경험을 통해 보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고 보건을 위한 국가의 노력, 기업의 노력, 개인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 주요개념

■ 안전
: 인간이 살아가는 데 위험의 원인이 없거나 위험한 원인은 있더라도 예방 대책이 세워져 인간에게 위해가 되지 않는 상태.
■ 보건
: 건강을 보전하거나 증진시키는 활동.
■ 전동킥보드
: 전기로 충전하여 이동할 수 있는 스쿠터. 킥보드는 브랜드명이다.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한다.
■ 구호용품
: 구호활동에 쓰이는 물품. 구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거나 보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 사회적비용
: 소비 또는 생산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신문고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누구나 휴대폰 등으로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www.safetyreport.go.kr)
■ 코로나
: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해 발병하는 호흡기 감염질환.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했다.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29

✓ 안내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지하철 안에 있는 안내문이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어.
자전거를 끌고 가지 않고 타고 가면, 보행자,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 놓았어.

✎ 학습활동2



그림 30

✓ 전동 킥보드가 위험한지 조사해보자.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전기로 움직이는 작은 차량이야. 그래서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운전자가 조종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데 전동 킥보드는 조심해야 할 위험도가 있어.
첫째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항상 안전하게 운전해야 해. 무리한 속도로 달리거나 다른 차와 부딪히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우리는 항상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해야 해.
둘째로, 전동 킥보드는 작고 가벼워서 조작이 어려울 수 있어. 처음에는 킥보드를 잘 조작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킥보드를 타기 전에 반드시 안전한 사용법과 조작 방법을 배워야 해. 그리고 항상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도 중요해!
셋째로,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 주변 환경을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 킥보드를 탈 때는 보행자 도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 자동차 도로에서 탄다면 더욱 조심해야 해.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규칙을 지키면서 사용해야 해. 예를 들어, 보행자와 동일한 보행자 도로를 사용하고, 신호등을 지켜야 해. 규칙을 지키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재미있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우리는 항상 안전을 위해 조심해야 해.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안전한 공간 공유를 위해 주의하면 좋아!

☞교사용 자료

"파리선 공유 전동 킥보드 못 탄다"...'킥라니' 기승 국내는?
프랑스 파리서 세계 최초로 공유 전동 킥보드 9월 퇴출
"업계 나서서 안전 대책 내놓아야 생태계 유지"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프랑스 파리 한 거리에 전동킥보드 몇 대가 쓰러져 있다. 2019.12.20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프랑스 파리에서 주민투표 끝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전 세계 도시 최초로 퇴출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사고 위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국내에서도 업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 금지 찬반투표 결과 89.03%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대여 금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파리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라임, 도트, 티어모빌리티 등 업체는 올해 9월까지 사업을 접어야 한다.

전동 킥보드는 당초 전기로 충전하는 비교적 친환경 교통수단인데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각광 받았다. 하지만 파리에서 불법 주차, 도로교통법 위반, 보행자 안전 위협과 인명 사고 등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반대 의견이 확산했다.

국내에서도 공유 전동 킥보드를 둘러싼 긍정·부정 시선이 혼재한다.
편리함에 꾸준한 이용량을 자랑하지만 '도로 위 무법자'라는 부정적 여론도 상당하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단거리 이동도 가능하며 작은 몸집으로 교통체증을 피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에 이용률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 업체 모바일인덱스 집계 결과 국내 1·2위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지쿠터는 지난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MAU·iOS+안드로이드)는 41만4600여명을 기록했다. 스윙에 따르면 스윙은 지난해 MAU 44만명, 2021년 24만명을 기록했다. 업계 3·4위 씽씽과 킥고잉을 포함한 전동 킥보드 업체의 지난해 MAU는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다만 이용률이 늘어나는 만큼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운행자를 이르는 말)'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과 무면허·음주·역주행 등 안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교통사고 유형 대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망자는 36.8%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유업으로 운영 중인 PM 대여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집중 단속과 계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고위험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동 킥보드 사업 생태계 지속을 위해서는 정부 방침에만 기댈 게 아니라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업체들은 법 사각지대인 면허 인증을 포기하고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 행위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안전 책임을 가벼이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업계 1·2를 다투고 있는 스윙은 면허 인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다.

스윙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면허 인증을 강제하고 성인은 면허 인증 요청과 함께 무면허 탑승시 벌금·제재 내용을 안내해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동기 면허(만 16세 이상), 자동차운전면허(만 18세 이상)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면허를 따로 만들거나 면허 인증 등 안전 조치를 더 강력하게 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고가 늘어나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반감이 더 늘어가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005993

✎ 학습활동3



그림 31

✓ 지하철역의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는지 적어보자.

구호용품 보관함은 비상시에 도움이 되는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야.
첫째로,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용품들이 들어 있어. 예를 들어, 붕대, 밴드, 소독약 등이 준비되어 있어서 조금 다쳤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
둘째로, 소화기도 구호용품 보관함에 준비되어 있어.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되는 장비야. 불이 나면 소화기를 사용하여 빠르게 불을 진압할 수 있어.
셋째로, 실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비상탈출구를 위한 조명 등의 비상용품들도 보관되어 있어. 비상탈출구는 화재 시에 사람들이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
넷째로,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일반적인 음식이나 음료수는 보관되지 않아. 이는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야. 따라서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주로 의료용품과 비상시에 필요한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
구호용품 보관함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공간이야. 비상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호용품들을 잘 알아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구호용품 보관함을 알맞게 사용하는 거야!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에 따르면 2021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비용, 사회기관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99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이자, 연간 GDP의 1.3%, 국가예산의 4.8%에 해당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중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인적 피해비용이 14조955억 원(52.2%)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차량손상 등 물적 피해비용이 11조1593억 원(41.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은 1조7439억 원(6.5%)이다.

2021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205만7919명으로 매 15초마다 1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해 654만원의 인명피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사고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 비용을 보면, 사망은 5억 6360억 원, 중상 7404만원, 경상 529만원, 부상신고 266만원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공단 유태선 정책연구처장은 "우리나라 도로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선진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서는 도로교통사고가 국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파악해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3150174

✓ 사회적 비용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사회적비용 : 소비 또는 생산 당사자가 직접 사용하는 비용은 아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인적 피해비용 : 14조955억 원(52.2%)

차량손상 등 물적 피해비용 : 11조1593억 원(41.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 · 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 : 1조7439억 원(6.5%)

✎ 토론활동2

✓ 대학교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지 (반드시 필요한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적절하다.
모둠2 지나치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대학교 교정은 많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다니는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해. 전동 킥보드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조작이 어려울 수 있어, 킥보드를 타는 동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특히 교정 안은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와의 충돌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따라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금지함으로써 교정 안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보행자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어.

모둠2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전하게 운전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많아. 전동 킥보드는 환경에 친화적인 이동 수단이기도 하고, 교정 내에서 이동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대신, 전동 킥보드 사용자들에게는 안전한 운전 및 교정 내 규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과 강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어. 학교는 학생들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적절한 대안을 찾아 전동 킥보드의 운행 규제나 안전 교육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 토론활동3

✓ 학교안전정보센터에 들어가 안전채널e 콘텐츠를 골라 감상하고 토론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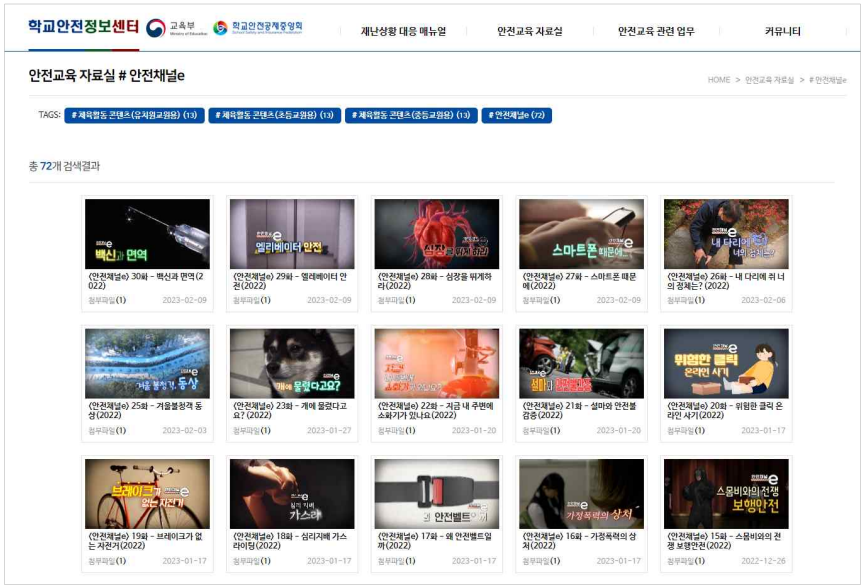


그림 32

내가 본 안전채널e	
제 목	
내 용	
느낀점	동영상을 보면서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도, 신호가 바뀌기 전에도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사고가 발생하는 걸 보니까 정말 무서웠어. 교통사고는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알아야 해.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어. 예를 들면, 신호를 잘 지켜야 하고, 신호가 바뀌기 전에는 횡단보도에 서 있어야 해. 그리고 차들이 멈추고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을 때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 또한, 휴대폰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항상 주변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해. 동영상을 보면서, 교통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어. 우리가 보행자로서 안전을 지키고, 운전자로서도 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해.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다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거야.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안전하게 건너고, 차와 보행자가 서로를 존중하며 교통을 이용해야 해. 우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을 거야.
같이 본 사람	
의견	

☞교사용 자료

안전채널e EBS1
2021.07.08. ~ 2022.12.09. 72부작
공식홈페이지 https://home.ebs.co.kr/safetye/main
지나칠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안전" 이야기를 시작으로 위급한 상황과 대처 방법, 꼭 알아야 할 안전 수칙, 실생활 예방책 등 우리 생활 속의 안전 문화를 5분의 영상 속에 담아내는 프로그램

출처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EC%95%88%EC%A0%84%EC%B1%84%EB%84%90+e

학교안전정보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안전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양질의 안전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내실화 제고를 위해 개발된 종합 학교안전정보 시스템입니다.
학교현장에서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춰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기구등에서 개발•제작한 안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및 콘텐츠를 교육부 안전교육 7대 표준안(재난/생활/교통/폭력•신변/약물•사이버중독/직업/응급처치)과 교육과정 연계 분류에 맞추어 탑재하였습니다.
학교안전정보센터의 안전교육 자료가 학교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 http://www.schoolsafe.kr/community/information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HjCxfe6i168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미세먼지 의벤져스/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 https://www.youtube.com/watch?v=B0J1SbqSI64
일상 속 응급처치의 모든 것 / 을지TV 을지대학교병원 을지대학교

☞ https://www.youtube.com/watch?v=D1Ahk_TQH1M
[#갓구운클립] 유튜브 보고 홈트했는데 알고보니 잘못된 자세? 척추의 신 정선근이 알려주는 잘못된 운동과 좋은 운동 | #유퀴즈온더블럭 / tvN D ENT

☞ https://www.youtube.com/watch?v=Ms3keaZEW7w
안전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안전 의식 문제 참여 강연 | 세바시 953회 /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 https://www.youtube.com/watch?v=EaC6qYz-CG4
세바시 586회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 강성규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직업환경의학전문의 /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 https://www.youtube.com/watch?v=NggIcBUL5cY
값싼 안전은 없습니다 | 정은애 익산소방서 인화 119 안전 센터장 | 안전 죽음 소방관 인생 조언 | 세바시 1076회 / 세바시 강연 Sebasi Talk

✎ 실천활동2

✓ 학교에서 안전 위험 요소를 찾아보자.

학교에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만, 때로는 안전에 주의해야 할 때도 있어. 학교 안에서도 몇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해.
첫째, 우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실이 있다고 생각해봐. 교실 안에서는 책상과 의자가 있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가로등이나 창문 근처에 앉으면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교실에서는 항상 조용히 움직이고, 책상 주위를 정리하고, 안전한 자세로 앉아야 해.
둘째, 우리는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운동장에서 놀기도 하지. 그때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운동 시설물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해. 또한, 체육 시간에는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운동해야 해.
셋째,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도 하지. 식당이나 급식실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 핫플레이트나 난로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고,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조심해야 해. 또한,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때에는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야 해.
넷째,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지. 놀이터나 교외활동에서도 안전에 주의해야 해. 따라서, 놀이기구를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타야 하고, 놀이터에서는 친구들과 서로를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야 해.
이렇게 학교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해.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르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조심하며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야 해. 우리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학교에서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먼저, 우리는 안전을 우선시해야 해. 만약 학교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것이야. 그들은 학교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어떤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다면, 주변을 살펴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선생님들이나 다른 성인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도움을 청하는 건 중요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라고 말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해주면 돼.
또한,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어. 같이 놀던 친구에게 위험한 상황을 알리고 함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 함께 힘을 합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발견했을 때 도움을 청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방법으로 해야 해. 우리 자신의 안전도 생각해야 하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빠르게 선생님이나 다른 성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그리고,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 학교에서 주는 안전 교육을 열심히 듣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전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는 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에게 알리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하면 돼.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을 지켜 나가면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 우리 동네를 산책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곳을 찾아 사진을 찍고, 안전신문고에 제보해보자.

안전신문고 : www.safetyreport.go.kr

MEMO

✎ 실천활동3

✓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점이 무엇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예시 : 무더운 여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해서 답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
첫째, 학교에서의 수업 방식이 달라졌어. 이제는 온라인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집에서 컴퓨터나 태블릿을 사용해서 수업을 받았어. 직접 학교에 가지 않고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둘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해졌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입과 코를 가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어.
셋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되었어. 예전처럼 친구들과 가까이 만나지 못하고, 학교나 공원에서도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두게 되었어.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고, 모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
넷째,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해졌어. 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을 만지고 다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중요한 부위야. 그래서 우리는 자주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
마지막으로, 취미나 액티비티가 변화했어.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우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 집에서 놀이나 공부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변화들에 적응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었어.

MEMO

7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존중

7.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존중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사회적 가치로서 인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가치로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인권
■ 사회적약자
■ 키오스크
■ 디지털약자
■ 차별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키오스크는 편리함의 증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왔지만 디지털 약자에게는 오히려 인권에 어긋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인권이 동일하게 실현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 주요개념

■ 인권
: 인간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적약자
: 사회에서 일반적인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 신체적인 원인뿐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소외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 키오스크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되는 정보전달 시스템. 어원은 대형 천막 또는 현관을 뜻하는 튀르키예어에서 유래했다.

■ 디지털약자
: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 차별
: 부당하게 구별하여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행위.

■ 조례
: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33

✓ 키오스크의 뜻을 알아보자.

키오스크
: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작동되는 정보전달 시스템. 어원은 대형 천막 또는 현관을 뜻하는 튀르키예어에서 유래했다.

✓ 나의 키오스크 사용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나는 어느 날 가게에 갔을 때 키오스크라는 기계를 사용해보게 되었어! 처음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거라서 정말 궁금하고 설레기도 했어.
가게에 도착해서는 큰 화면이 있는 그 기계를 발견했어. 그리고 거기에는 메뉴가 나열되어 있었어. 나는 주문을 하려고 터치 스크린을 사용했어.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다음으로는 원하는 사이즈나 토핑 등을 선택할 수 있었어. 그리고 가격을 확인하고 결제를 할 수도 있었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다는 거야. 말로 주문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서 더 편했어. 그리고 주문을 할 때 잘못 말하거나 틀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
또한,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어. 가게가 붐비는 시간이었다면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주문을 할 때 줄에 서지 않아도 됐어. 빠르게 주문을 완료하고 음식을 받을 수 있었어.
하지만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기억도 있어. 터치 스크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 그래서 가게 직원분께 도움을 청했어. 그런데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금방 익숙해질 수 있었어.
전체적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경험은 재미있었고,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어. 더불어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가게 직원들도 주문을 처리하는데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좋았어. 앞으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

✓ 주변에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찾아보자.

어느 날, 나와 가족들은 식당에 갔어. 그리고 거기에는 키오스크가 있었어. 나는 처음에 키오스크를 보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바로 사용해보려고 했어.
하지만 문제는 터치 스크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던 거야. 처음에는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헷갈렸어.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려고 여러 번 터치해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어.
그때 가게 직원 분이 내 곁으로 와주셨어. 그분께서 친절하게 어떻게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 터치 스크린을 부드럽게 눌러야 한다고 알려주셨어. 그래서 다시 시도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어.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
나는 사이즈나 토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힘들었어. 화면에는 많은 옵션이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어려웠어. 어떤 사이즈가 어떤 음식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거든. 그래서 다시 한 번 직원 분께 도움을 청했어. 그분께서 친절하게 내가 원하는 음식에 어떤 사이즈와 토핑이 어울리는지 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문을 완료할 수 있었어.
전체적으로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지만, 가게 직원 분들의 도움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앞으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는 좀 더 익숙해지고,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야!

☞교사용 자료

키오스크 매장 확대에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소외감'... 정답일까
김은지 기자

매장 직원의 손을 거치지 않고 주문과 결제가 이뤄지는 무인단말기(이하 키오스크) 매장의 수가 급격하게 늘면서 시각 장애인이나 노인 등 정보 약자들이 주문에서부터 소외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영양섭취나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들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반 식당의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최대한 가격이 저렴한 패스트푸드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차도 키오스크 사용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이고 있다.

▶편리함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
패스트푸드점 뿐만 아니라 은행, 지하철, 철도, 공항, 영화관 등 우리 삶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키오스크는 시간을 단축하고 신속하게 주문하고 싶은 사람이나 점원과 대면하여 주문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는 키오스크의 경우 일반적인 성인의 신장을 고려하여 설치한 것일 뿐 아이들의 신장,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배려한 높이는 아니다. 또한 파킨슨병이나 다른 병의 후유증으로 손이 떨려 터치가 어려운 이들,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노년층이 많은 서울시 한 지역의 패스트푸드점만 봐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큰 화면이 노안 등을 앓는 노년층은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문제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주문하는 것을 지켜보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문하는 키오스크는 노년층이나 정보 약자들에게는 사용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터치 되는 포인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주문하고 싶지 않았던 메뉴나 수량 등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삭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시간이 허비되거나 수량 등을 파악할 줄 몰라 그대로 계산해 환불도 못하는 난처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오스크는 인건비 절감과 편리함, 시간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과 같은 정보 약자 외에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 어린이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기에는 곤란해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실제로 20대 대학생 A 씨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솔직히(장애인이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전했고, 30대 자영업자 B씨는 "세상 변화에 맞춰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걸 일 하면서 깨닫는다"라고 말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노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노인복지에 힘을 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어르신 전용 키오스크 교육시스템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정된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키오스크는 빠른 도입이 이뤄졌으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은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주문하는 것을 지켜보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문하는 키오스크는 노년층이나 정보 약자들에게는 사용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터치 되는 포인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주문하고 싶지 않았던 메뉴나 수량 등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삭제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 시간이 허비되거나 수량 등을 파악할 줄 몰라 그대로 계산해 환불도 못하는 난처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키오스크는 인건비 절감과 편리함, 시간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과 같은 정보 약자 외에 시각장애나 지체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 어린이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사용하기에는 곤란해 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실제로 20대 대학생 A 씨는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솔직히(장애인이 불편할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라고 전했고, 30대 자영업자 B씨는 "세상 변화에 맞춰 키오스크를 설치했는데 장애인이나 노인을 배려하지 못했다는 걸 일 하면서 깨닫는다"라고 말했다.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 협회와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노인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노인복지에 힘을 쓰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어르신 전용 키오스크 교육시스템을 진행하려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정된 이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으로 키오스크는 빠른 도입이 이뤄졌으나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은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들로 키오스크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기기가 아닌 장애인 겸용 키오스크도 설계되고 있다. 지하철의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역무원을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보급되지 않은 곳이 많아 일부 계층에는 불편함을 넘어 '소외감'을 불러 일으키고있다.

무인단말기 '장애인 배려'에 대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일각에서는 "소수 때문에 다수가 불편해지는 건 역차별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역차별'이란 입장을 가진 일부 시선에 고등학교 C 군은 "표현은 역차별이지만 '장애인은 당연히 불편을 감수해라'라는 뉘앙스로 들릴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50대 직장인 D 씨는 "누구나 후천적 장애를 겪을 수 있을 텐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키오스크가 빠르게 발전되고 확산되면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비 장애인까지 모두 활용하기 쉬운 대안을 찾는 것을 중요하다. 기술의 변화가 빠른 만큼 '인프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현재 정권이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펼쳐야 할 때가 지금이다.

출처 :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

✎ 학습활동2



그림 34

✓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보자.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학교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야. 이 버스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주로 학생들이 포함돼.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중이거나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하면 학생들이 편하게 학교로 가고 돌아올 수 있어.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공공시설이나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 이렇게하면 어른들이 편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교통비를 아낄 수도 있어.
그런데,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을 제시하거나 사전에 신청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해.
무료셔틀버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서비스야. 그래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 학습활동3



그림 35

✓ 이동 약자는 누구인지 알아보자.

이동 약자란, 신체적인 이유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 예를 들어, 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이동 약자는 보통 보행에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중에도 이동 약자들이 있어. 이들은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여 목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무료셔틀버스는 이동 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수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를 통해 쉽게 탑승할 수 있어. 이렇게하면 이동 약자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동네나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
하지만, 이동 약자들이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해.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이동 약자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하거나 사전에 예약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동 약자들은 이와 같은 조건을 확인하고 따라야해.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약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동네를 쉽게 이동하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이동 약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 다음 중 이동 약자를 모두 찾아 ○표 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장애인	○	외국인	○ 신체적 약자는 아니지만 언어의 문제로 이동 약자로 분류 가능
경찰관		임산부	○
아기	○	소방관	

☞교사용 자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 2023. 1. 19.] [법률 제18784호, 2022. 1. 1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3805

제1장 총칙 <개정 2012. 6. 1.>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해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마.「공항시설법」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만법」,「해운법」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2022. 1. 18.>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궤도운송법」,「항공사업법」,「공항시설법」,「항만법」,「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

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2. 6. 1.]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90%ED%86%B5%EC%95%BD%EC%9E%90#undefined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내가 사는 동네에도 학생인권조례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내용을 이야기해보자.

사는 곳 :

✓ 학생인권조례 존재 여부 : (있다 , 없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야. 이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학생인권조례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에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도 있어.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력과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해. 또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해. 이러한 규정들은 학생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에서의 규율과 학생들의 권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학교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해. 그래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줘.
하지만 때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학생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보장되어 학교의 질서와 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 그래서 이러한 논쟁은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고 균형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결국,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야.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해.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며, 동시에 규칙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해.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거야!

☞**교사용 자료**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에 도입된 지 10여 년 만에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생 권리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제한받는다는 비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6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6곳 중 4곳에서 폐지 또는 개정 움직임이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지난 15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회부했다. 작년 8월 종교계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이뤄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종교의 자유와 부모 교육권을 침해한다"면서 조례 폐지 서명을 받아 제출했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폐지안이 시의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 제정 11년 만에 폐지된다.

충남도의회 역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조례안을 제출해 검토하고 있다. 경기·전북교육청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과 충남은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기 임태희 교육감과 전북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인권뿐 아니라 교직원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서울과 광주, 2013년 전북, 2020년 충남·제주 등 6곳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마다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경기·광주·서울·충남 조례에는 성별, 종교, 성(性)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도 명시돼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힘들어졌고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작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2188명(54.7%)이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937명)'가 가장 많이 꼽혔다.

반면 전교조 등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반헌법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외교부를 통해 유엔(UN)에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관련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3/17/RNCMOPK2J5FQZLH556IKKVCTVI/

✎ 토론활동2

☞교사용 자료

관객수 500만 명을 돌파한 〈청년경찰〉이 문제가 되었지만 실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만이 〈청년경찰〉을 계기로 폭발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중국 동포들이 분노하고 항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차별받아온 역사를 가진 소수자로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영화를 보고도 그냥 참고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는 영화로만 봐달라"는 요청이 통할 리 없다.
말이 칼이 될 때 -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어크로스, · 2018.

출처 : 교보문고

✓ 홍성수 교수의 글에 대해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찬성 : 영화는 영화일뿐이므로 창작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모둠2 반대 : 영화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면 곤란하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영화는 영화일뿐이므로 창작의 자유를 존중해야 해. 영화는 예술의 한 형태로 봐야 되고, 영화 창작자들에게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 영화는 현실과는 별개의 세계이며,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 해도 그것이 영화의 자유에 손상을 주지 않아.

<모둠2>
영화가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면 곤란해. 영화는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해. 따라서 영화에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한다면 그것이 소수자에 대한 상처를 주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두 모둠 모두 자신의 주장에 논리적인 논거를 제시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야. 어떤 사람은 영화를 단순한 예술로 감상하고, 어떤 사람은 영화가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믿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야. 논란이 있을 때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다른 시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해.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을 거야.

☞**교사용 자료**

잇따르는 강력범죄에...또 가열되는 '중국 동포 혐오'

최근 중국 동포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중국 동포 혐오 현상이 재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명칭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중국 동포를 비롯한 외국인 인구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혐오 확산에 불을 지핀 것은 중국 동포들의 강력 범죄 사건이다. 지난달 19일 중국 동포 두 명이 마약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하고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에는 서울 대림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중국 동포 두 명이 흉기를 휘둘러 연인 관계인 남녀 두 명을 살해하는 일도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자 가해자가 중국 동포라는 거짓 소문까지 퍼졌다.

중국 동포와 관련된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을 향한 혐오 정서가 강해지는 현상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살인 범죄가 발생할 때 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은 지난 2017년 기준 내국인은 1.5명인 데 반해 외국인은 4명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 중 55.9%(2017년 기준)가 중국 국적이다 보니 '중국 동포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생겼다.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중국 동포가 범죄자로 등장하는 영화가 인기를 끈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에 달해 범죄자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모든 범죄 기준 10만 명당 검거인원은 오히려 내국인이 중국인의 2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 동포가 내국인이나 다른 국적 외국인에 비해 특별히 위험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지난해 11월 기준 67만 명이 넘는 중국 동포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중국 동포의 이미지는 지나치게 표피적이고 단면적"이라고 지적했다.

350여 명의 중국동포들이 지난 2011년 8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재외동포법을 모든 재외동포에게 차등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 비자(F-4)를 단순노무업종 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 등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연합뉴스

오 전 시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명칭 논란'도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광진구 양꼬치 거리에 조선족 귀화한 분들이 많이 산다"고 발언해 여권으로부터 '동포 혐오'라는 비판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반발했지만 이 공방을 계기로 온라인에서 "중국인 조선족을 왜 동포라고 해야 하냐" "외국인에게 동포 혜택을 지나치게 많이 주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하지만 2004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나간 이들도 동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만주·연해주로 간 조선족도 공식적으로 우리의 동포가 됐지만 이들을 동포라 칭하는 것조차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중국 동포에게 국내 체류의 자유가 쉽게 주어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는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 졸업자, 법인 기업 대표, 전문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최대 415시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중국동포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재외동포가 아닌 방문취업 자격(H-2)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방문취업 자격을 지닌 중국동포는 전체 중국동포의 42%, 재외동포 자격자는 39%, 영주 자격자는 11%였다.

한국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중국 동포를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특정 집단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도 "논의가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에서 그치면 차별과 배제의 결과로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조 실장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 배경 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이 비율이 2019년 기준 4.3%에 달한다"며 "외국인을 포용하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이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DYWS5P3

✎ 토론활동3

✓ 내가 사회적 약자인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자.

어린이가 사회적 약자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
첫째, 어린이는 성장과 발달 단계에 있어서 미숙하고 취약해. 그들은 아직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와 도움이 필요해.
둘째, 어린이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어. 그들은 돈을 벌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적 의존성이 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
셋째, 어린이는 사회적 권한과 결정권을 가지지 못해. 성인들은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사회적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이로 인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사회로부터 다양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안전한 환경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호와 관리야. 또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 주어야 해. 그리고 어린이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춰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성장과 발달을 도와줘야 해.
어린이는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야.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 내가 사회적 강자인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먼저, 어린이는 친절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할 수 있어. 어린이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존중하는 것을 잘 할 수 있어.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와 친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어.
둘째, 어린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작은 일들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어린이는 외국어를 잘하는 경우, 번역 도움을 제공하거나 음식이나 의류와 같은 필요한 물품을 공유할 수 있어. 또한, 어린이는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고 문화 교류 활동을 기획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어.
셋째, 어린이는 인종차별과 편견에 대한 인식을 가지지 않고 노동자들과 함께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천할 수 있어. 어린이들은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중요성을 배우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돕는다면, 상호 존중과 다양성을 지키며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돕고 사회적인 연대를 형성할 수 있어.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0UjC7038XZk
인권이 뭐죠? - 인권 애니메이션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youtube.com/watch?v=E6AyqPlC65Y
지식채널e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 편 /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youtube.com/watch?v=cJWhyWj06JE
[국가인권위원회 별별서포터즈 전인권팀] 인권감수성 / 국가인권위원회

☞ https://www.youtube.com/watch?v=gyMKmacx6Fk
[장애공감자료] 별별이야기-동물농장 / 졸업후TV

☞ https://www.youtube.com/watch?v=A7N4r1Ry2P8
'영화 속 여성은 수동적이다?' 이제 AI가 증명해주는 영화 속 성 고정관념 / 스브스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Y_liP31P0m0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8-또다른 장애들(서울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영상) / EBSCulture (EBS 교양)

☞ https://www.youtube.com/watch?v=wsr3l68spxs
까칠 남녀 - 모르는 형님- 성소수자 특집 1부_#003 / EBSCulture (EBS 교양)

✎ 실천활동2

✓ 노가바는 노래가사바꾸기의 줄임말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많이 활용됐다.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고르고 인권의 내용을 담은 가사로 바꿔 보자.

✓ 내가 선택한 노래

사랑해

✓ 원래 가사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오

✓ 인권 내용을 담은 가사

중요해 인권은 정말로 중요해
당신이 나와는 다르다 해도
우리는 모두다
평-등한 사람이죠

✎ 실천활동3

✓ 사회적 약자가 주인공이 된 영화를 찾아 감상해보자.

영화제목	
사회적 약자 분야	
주인공이 처한 어려움	노틀담의 꼽추는 사회적 약자인 콰지모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야! 이 영화는 중세 유럽의 파리를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주인공인 콰지모도는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차별받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나 그는 귀여운 성격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보다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 그리고 한 가게 주인도 그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고 그를 가족처럼 대해주는데, 이를 통해 콰지모도는 사랑과 이해를 느낄 수 있어.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용기와 성찰적인 내면을 통해 사회적 약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또한, 주인공이 겪는 어려움과 편견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이해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감상은,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 주인공은 자신의 외모와 상황에 상관없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 그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걸 보면서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노틀담의 꼽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도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영화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치를 배울 수 있어.
극복 방법	
느낀점	

8

노동권과 괜찮은 일자리

8. 노동권과 괜찮은 일자리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사회적 가치로서 노동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가치로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노동권
■ 일자리
■ 고용노동부
■ 관리원
■ 장려금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노동권은 근로권이라고도 하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 일자리의 보장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이다.

■ 노동권과 일자리와 관련된 일을 다루는 행정기관은 고용노동부이다.

✓ 주요개념

■ 노동권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 기회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로권이라고도 한다.

■ 일자리

: 직업과 같은 말. 2017년 5월 16일 대통령령으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정책적, 법적 개념이 되었다.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중 고용과 노동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곳.

■ 관리원

: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대체 개념.

■ 장려금

: 특정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주는 돈.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36

✓ 포스터의 내용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고용노동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니까 고용노동부 임무는 다섯가지로 되어 있어,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차별없는 일터 조성으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성별 ·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고 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뜻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고용노동부라는 정부부처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장려금을 준다는 내용이야,

☞교사용 자료

"특정 기업 아닌 지역에 적용할 제2 광주형 일자리 만들 것"
정성환·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 설계자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광주형 일자리 핵심은 사회적 대화라는 사실 잊으면 안 돼"
박병규(59)라는 이름 석자는 호남 지역에선 꽤 유명 인사다. '광주형 일자리'를 세상에 처음 내놓은 인물이다. 이런 이름값을 바탕으로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주 광산구청장에 당선됐다. 박 구청장은 노동운동가·사회혁신가·행정가 출신으로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설계자이자 산파역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 출신인 그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6기 광주시장에 출마한 윤장현 후보에게 광주형 일자리를 제안하며 윤 후보 당선을 도왔다.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일자리정책특보·경제부시장을 차례로 맡아 광주형 일자리를 챙겼다. 2018년 지방선거 후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이듬해 1월 이용섭 광주시장 요청으로 사회연대일자리특보로 돌아와 광주노사민정협의회 최종 협약안 의결과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체결을 적극 지원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이력이다. 그런 그가 돌연 지방정치에 뛰어들더니 기초단체장 자리를 꿰찼다. "특정 기업 아닌 지역에 적용할 제2 광주형 일자리(시즌2)를 만들겠다"는 게 당시 출마의 변이었다. 제2 광주형 일자리는 온전한 '박병규표 광주형 일자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최근 광산구청장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정책 참모에서 기초단체장으로 변신해 진두지휘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는 어떤 모습일지 들어봤다. 인터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사회임금'과 '참여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 등이었다. 특히 박 구청장은 "광주형 일자리 핵심은 사회적 대화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결하려면 사회임금 도입해야"

박 구청장은 자신이 기획한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경제 견인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자부한다. 최근 100만 평 규모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곧 광주형 일자리라는 '꿀단지' 덕분이란다. 어쩌면 돌다리 중간에 돌기둥 하나가 빠지듯이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이 안 됐으면 미래차산단 조성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논리다. 광주시가 3월 중순 새로 국가산단 유치에 성공한 것은 2009년 9월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이다.

박 구청장은 일각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일자리 창출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손을 내저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는 1개 기업을 만들자고 시작한 게 아니고 우리 사회 일자리의 공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시작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시장임금이 판치는 노동현장에서 일자리 질 개선과 사회임금을 결합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걷어내는 '일터 혁신 일자리 창출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광주형 일자리 시즌2는 시즌1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동일한 가치지만 광주형 일자리 시즌1이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하나의 기업을 출범시켰다면 시즌2는 지역의 많은 기업에 확산해 보자는 것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임금 도입은 그의 지론이다. 결국 일자리 양극화나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임금으로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며, 어떤 기준을 정해 부합하면 사회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면 퇴직 때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많은 복지를 누리다 퇴직한다. 이런 데서부터 사회적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다. 또 하나는 시장임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다 보니 자기 노후를 자신이 책임져야 해 극한적인 노사갈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난 30여 년 동안 현대차나 기아차 노조가 '1'도 변하지 않은 것도 이로부터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모순을 사회임금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사회임금이 일터 혁신과 함께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터 혁신을 사회임금과 결합해 일자리 질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일자리의 질 개선도 중요하다. 구글의 경우 작업지시가 없다. 아무런 시도를 안 해도 실패해도 쫓겨나지 않는다. 5%도 안 되는 성공률로 먹고산다. 인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게 세계적인 기업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터 혁신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 사례다."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시즌2의 전망에 대한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기초단체인 자치구 수준에서 추진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구청장은 "변방 자치구에서 한국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는데, 주변이 핵심(중심)을 흔든 전례는 많다.

코닥필름이나 노키아 핸드폰 몰락이 대표적이다"며 비관적인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지는 그의 반론이다.

"물론 자치구에서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가능하겠느냐 여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어디선가 작은 돌파구를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일자리 정책에 무슨 자치구가 있고 중앙정부가 따로 있겠는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할 때도 중앙정부에서나 가능하지, 지방정부에선 불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정책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딱 자리 잡았다. 문재인 정부의 상생 일자리 정책이 그것이다." 그는 아직 뚜렷한 일자리 정책이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도 우여곡절을 겪다가 또다시 이를 추켜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 없다면서 기업만 밀어주는 식으로 해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그게 뭐냐' '빨리 달라'고 재촉했다. 그런데 어떻게 주나.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역사회 혁신운동이라고 했다. 같이 운동하자는 것이다. 그 모습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낸 첫 작품일 뿐이다. 완성품으로 보면 안 된다. 계속 진화하는 것이다." 박 구청장의 마무리 말이다.

"한국 사회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으니까 선거 때만 되면 계속 하나 마나 한 얘기만 늘어놓게 된다. 사회적 합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난하다.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어쩌면 제 임기 안에 다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 주변에선 재선을 걱정하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아닐 것 같으면 (구청장) 안 하면 되는 것이다. 구청장을 재선, 3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는가. 사회적 대화가 되는 사회, 이를테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게 제 임기 내 주어진 과제라고 여긴다."

출처 :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968

✎ 학습활동2



그림 37

✓ 경비원의 호칭을 왜 바꾸자고 하는지 생각해보자.

첫째로, "경비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오로지 안전을 지키고, 건물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는 관리와 안전에 전념하는 전문가니까, 이에 맞게 "관리원"으로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
둘째로, "관리원"은 우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더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말이야. 경비원이라고 하면 주로 경비 순찰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건물 출입 관리, CCTV 모니터링, 화재 대응 등 다양한 관리 업무를 맡고 있어. 그래서 "관리원"이라는 호칭이 더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업무를 나타낼 수 있어.
마지막으로, "관리원"이라는 호칭은 우리의 업무를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 경비원으로 불리면 사람들은 우리를 단순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원으로 불리면 우리의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좀 더 인정해 줄 거야.
그래서 말야, 우리의 일을 더 잘 표현하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 "관리원"으로 호칭을 바꾸자고 하는 거야.

✓ 관리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 요구의 사례를 찾아보자.

때로는 누군가가 관리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나를 위해 위험한 물건을 운반해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요구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부당한 요구 사례들은 관리원의 진정한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관리원은 건물과 시설의 보안, 안전, 관리에 집중해야 해.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당당하게 거절하고, 적절한 업무에만 전념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관리원으로서 일에만 집중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중요해!

☞교사용 자료

'관리원'이 된 경비원...갑질방지법 1년, 변화는 더뎠다

김 모 씨(가명)는 2년 전까지 보석 부속품을 납품하는 공장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업황이 나빠져 공장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 중랑구의 K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낯선 새 직장이었지만 특유의 근면 성실함으로 두 달 만에 '반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동료들, 관리소장은 물론 다른 입주민들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 "나이 처먹고, 뭘 한 게 있어?"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이 일을 그만뒀습니다. 두 달 전 겪은 '충격' 때문입니다.
지난 8월, 술에 취해 귀가하는 입주민을 도와주다 30분 넘게 폭언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들려준 녹음 파일엔 아래와 같은 폭언이 생생히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뭐하는 거야 누구 월급 받아, 내 월급 받아 안 받아, 내가 ×× 갑질하는 거야? ×××가 이거 진짜 나이 X먹고...니가 경비로서 그러면 뭘 한 게 있어?"
- 김 씨가 입주민에게 들은 폭언

목덜미 부위를 짓눌리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살아온 인생을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관리소장까지 괴롭혔습니다. 자신이 쏟아낸 폭언이 문제가 될까 봐 문제를 무마하라고 관리사무소 측을 압박한 겁니다.
"(가해 입주민이) 빨리 합의를 하라는 등, 동대표 회장 한테도 문자 보내고 소장한테도 문자 보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 피해 경비원 김 씨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는 경비원이 '제3자의 폭언'에 시달릴 경우 사업주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주', 즉 용역업체나 관리사무소도 입주민 입김 앞에 힘없는 '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분들이 직접 고용주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도 동대표나 입김이 있는 입주민들이 불만을 얘기하면 교체도 될 수 있고..."
- K 아파트 관리소장

"어느 회사라면 사장을 통해 얘기하는데 이건 주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쉽게 어떤 행동하기 참 힘든 부분이야... 관리소장도 을이야, 우리보다 더 을."
- 관리원 박 모 씨(가명)

김 씨는 결국 K 아파트를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 주차 시키지 말랬더니, 정작 바뀐 건...
폭언과 함께 경비원들을 고질적으로 괴롭혀 온 건 '잡일'입니다. 경비 업무와 무관한 가욋일을 시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대리주차입니다.
대리주차 문제가 가장 도드라진 곳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급 아파트이자 주차난으로 악명높은 곳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띈 변화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비원' 이 아니라 '관리원'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이 된 이후 뭐가 달라졌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그대로다' 였습니다.

"경비원에서 관리자라는 이름 석 자로 바뀌었을 뿐이지 어떤 그 처우나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리원 박 모 씨

"우리가 관리원이라고 소개해도 입주민분들은 아직 경비라고..."
-관리원 최 모 씨

그렇다면, 굳이 호칭을 바꾼 이유는 뭘까. '대리주차'를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경비원의 대리주차를 금지했더니 아파트 측은 이들의 신분을 '관리원'으로 바꿔 주차 업무를 지속한 겁니다.
더 이상 경비원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인 셈이니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대리 주차는 물론 택배 상자 배달, 집안 허드렛일까지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관리원이 되면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이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제한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돼 있다고 합니다. '무늬만' 관리원인 셈입니다.

"출퇴근 시간 제일 바쁜데, 여기 같이 있으면서 휴게시간이라고 못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 관리원 정 모 씨

"23시 30분부터 6시까지 휴식시간이고 자는 건데, 차 빼달라면 빼줘야지..."
- 관리원 박 모 씨

■ 경비원 갑질방지법 1년 지났지만...
2년 전, 경비원 故 최희석 씨는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 숨졌습니다.

그의 절절한 음성 유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뒤 대책 논의가 시작됐고, 이른바 '경비원 갑질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일은 지난해 10월 21일,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본래 업무 말고 대리 주차나 택배 배달 같은 잡무를 시키면 안 되고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2021.10.21.시행)

고용노동부 "경비원도 폭언으로부터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2021.10.14. 시행)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현실의 변화는 매우 더딥니다. 법을 피해 가는 각종 꼼수에 경비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접수된 '경비원' 갑질 상담 건수는 지난해 293건에서 올해 553건으로(1~9월 동기간 비교) 증가했는데, 이 중 폭언·폭행 괴롭힘 상담은 10건에서 2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갑질 피해 상담은 늘어난 반면, '방지법'들을 근거로 이뤄진 처벌 사례는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현장 경비 노동자와 노조 관계자는 피해 신고는 물론 노조 가입조차 어려운 3개월 초단기 계약 구조를 지적합니다.

"(갑질 당해도) 신고를 못 하죠. 바로 쫓겨나는데요. 단기계약을 해 가지고 석 달이면 계약 안 하려고 하는데..."
- 경비원 나 모 씨

"입주자 대표들이 만약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너희를 다음 계약 만료 때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조직차장 정의석(경비노조)

■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지"
경비원의 열악한 고용환경의 근본에는 노인 빈곤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경비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거지"라고....
감사하게도 그 나이에 일할 수 있게 해 줬으니 경비원은 폭언과 갑질은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경비원 갑질방지법 1년, 변화는 매우 더딥니다.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6196&ref=A

✎ 학습활동3

📖 기사를 완성해 보자.

괜히 [A]이 아니네…현대차 생산직 모집에 '18만 지원설'

10년 만에 신규 채용을 진행한 현대자동차 기술직(생산직) 모집에 약 18만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모집인원이 400명이라 서류전형 [B]은 최소 450대 1에 달할 전망이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2일 기술직 채용을 위한 서류접수를 마감했다. 지원자 수가 당초 현대차가 예상했던 10만명 내외를 훌쩍 뛰어넘으면서, 채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서류심사에 아무리 많은 인원을 투입하더라도 현대차가 애초 계획한 3월 말까지 서류 합격자를 추려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달말 서류 합격자 발표 후 1·2차로 나눠 선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차수는 7월 초, 2차수는 7월 말로 잡혀있다. 현대차는 하반기에도 기술직 300명을 추가로 뽑는다.

현대차 기술직 채용이 취업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유는 학력·경력·나이·성별 등을 배제한 '[C] 채용'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만 하면 대기업 생산직군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현대차 기술직의 고졸 이하 1년 차 신입 평균 연봉은 성과급을 포함해 6000만~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급이 월 200만원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하면 성과급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기준 평균 연봉은 약 9600만원에 달했다.

근무지는 울산·전주·아산공장이며 일부 인력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연구소로 갈 수 있다. 근무 형태는 주간·야간 2교대로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오후 3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근무한다.

출처 :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78363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킹산직
B	경쟁률
C	무스펙

☞교사용 자료

<현장> 現代自 해고 근로자들의 절규

31일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현대자동차 정리해고자 1천5백69명과 그 가족들은 하나같이 "생계가 막막하다"며 회사안에서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투쟁을 벌일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입사한지 10년만에 해고됐다는 李재호씨(37.소형엔진부).

"노모(76)를 모셔야 하는데다 국민학교와 유치원에 다니는 2명의 자식들을 생각하면 눈앞에 캄캄하다"는 李씨는 "정리해고 사실을 노모에게 숨겨왔으나 회사에서 희망퇴직하라고 전화하는 바람에 알게돼 몸져 누웠다"고 말했다.

10여일째 구정문 앞에서 텐트농성에 가담하고 있는 그는 "10년을 일하는 동안 특별히 지적받을 만한 것도 없었다"며 해고자 선정기준에 불만을 나타내고 "당장 아파트라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한숨지었다.

노조 문선대로 활동하다 입사 5년만에 해고된 姜성진씨(31.의장1부)는 지난해 5월 결혼, 아내가 임신 6개월째인 예비 아빠.

姜씨는 "15평짜리 좁은 아파트에서 시작한 신혼살림이지만 장래를 생각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해고통보를 받았다"며 회사를 떠나 살 길이 없어 하는수 없이 사내농성에 가담하고 있다 한다.

그는 "회사가 진정 인간중심의 경영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처럼 어려울때 근로자들을 품어 안아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사내버스 운전을 하다 해고된 李영경씨(36.총무부 차량계)는 "대학 졸업자도 취직 못하는 세상인데 어디가서 일자리를 찾겠느냐"고 하소연.

노조사무실 앞에서 텐트농성 중인 李씨는 "회사측이 경쟁력 없는 부서를 용역화하기 위해 해고했다"면서 "아직 젊으니 사내 어느 부서에라도 보내주면 힘든 일이라도 마다 않겠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해고자의 절규는 남자뿐 아니다.
15년째 식당에서 일하다 해고된 張계순씨(53.여.후생팀)의 첫마디는 "여자도 가장이다"는 것.

"10년 전 남편을 잃은 뒤 노모를 모시고 4명의 자식을 키워왔다"는 張씨는 "자식 공부시키느라 집한채 마련하지 못하고 전세방에서 살고 있는데 아이들 퇴학이라도 시켜야 하느냐"며 "임금을 줄여도 좋으니 회사에 남아 일할 수만 있도록 해달라"고 애원한다.

'현대자 가족대책위'를 구성, 어린이들과 함께 매일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해고자 가족 2백여명은 목이 쉴대로 쉬고 지쳐 탈진하기 직전.

해고자 金모씨(34.공작사업부)의 부인 李영자씨(36)는 "4년전 결혼할 때 전세금쪼로 얻은 은행빚 1천만원도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들어서는 월급마저 줄어 아이들 학원을 끊고 교육보험을 해약해 살아가고 있는데 해고가 웬말이냐"며 할말을 잃는다.

회사 안팎의 농성장에서 비애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그들은 대책없이 정리해고제를 도입, 강행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원성을 노사정위원회가 알아차리기라도 한듯 중재에 나서자 일자리만은 보전될 수 있을까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281026?sid=102

☞**교사용 자료**

[김기찬의 인프라] 6·25 포화 속에 탄생한 노동위…약자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노동위원회는 이처럼 근로자 개인의 억울한 사연이나 회사의 불합리한 처분을 구제하는 기관이다. 소송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덜고, 외부에 소문이 나는 것도 꺼려지는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준다. 노사 간 집단분쟁도 조정해 파국을 막는다. 무려 70년 동안 근로자와 회사 간의 분쟁 해결 가교 역할을 해왔다.

노동위원회의 설립 근거인 '노동위원회법'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어느 법보다 먼저 제정됐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3월 8일이다.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과 함께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5월 10일 탄생하며 노동법의 틀을 구축했다.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만들었다. 휴전(7월 27일) 이후 형법이 53년 9월 18일, 민법이 58년 2월 22일, 상법은 62년 1월 20일 탄생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6166

☞**교사용 자료**

지난 달 방학과 함께 대구시내 한 주유소 아르바이트에 나선 김모(25) 씨는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5만 원이 빈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으로부터 "수당에서 까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부당하다고 따지던 김 씨는 결국 쫓겨났다.

쥐꼬리만한 월급이지만 떼이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돈을 떼인 김모(23) 씨는 "사정이 생겨 그만둔다고 했더니 '30일을 못 채웠으니 돈을 못준다.'고 업주가 얘기했다."며 "결국 보름치 수당을 떼였다."고 하소연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임금 체불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대로 몰라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대학생 김태우(28) 씨는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 이구백(20대 90%가 백수)으로 바뀔만큼 청년실업이 극심, 졸업생들도 아르바이트 하다보니 재학생·졸업생이 뒤섞여 아르바이트 자리가 정말 귀하다."며 "일부 친구들은 다단계 회사에 발을 들여놓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동곤 공인노무사는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다."며 "근로계약서를 쓰면 분쟁 발생때 구제받기 쉽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노동청은 올들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대구경북지역 사업장은 지난달말 현재 모두 53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림 38

☞교사용 자료

2011년 말, 광주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고3 실습생이 주 58시간, 한 달 100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6년이 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6년 5월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19세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 군'이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1월에는 전주 지역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던 여고생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의 한 생수 제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이민호 군이 압착기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한 뒤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소년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는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행하지 않아서 학생에서 노동자로 신분이 바뀐 뒤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노동자의 권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최저임금제도 등에 대한 예비지식이 전혀 없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설령 인식한다고 해도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11년 4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서는 필수적인 만큼 올해부터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적극 제시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여론이 뜨거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과 결부된 권리 측면만 강조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고, 경영계 역시 "노동인권 교육이 근로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아 학생들에게 반(反)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상급식과 교사 체벌금지에 이어 교육현장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이념적 교육정책'이라며 비난했고, 한나라당 대변인은 "현실을 외면한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오만한 교육 독재가 공교육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림 39

☞교사용 자료



이종감 교수

우리 역사 속의 '노동'

신라 역사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김춘추·김유신·선덕여왕 같은 위인의 이름을 먼저 떠올린다.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학자들은 조금 다르다. 러시아에서 한국 역사를 연구한 뒤 한국에 귀화한 박노자(Vladimir Tikhonov, 현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학 한국학과 교수) 같은 학자는 신라 역사를 생각하면 '대박사 박중일'이 우선 머리에 떠오른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을 만든 8세기 후반 신라의 뛰어난 주종 기술자 대박사 박중일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신라는 당시 첨단산업인 청동주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였다. 국가가 인정한 뛰어난 장인을 '박사'라 칭했고 최고의 경지에 이른 기술자에게는 '대박사'라는 호칭을 부여했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제도가 우수한 기술을 가능하게 했다."

다른 나라의 학교에서는 역사를 이렇게 가르친다. 지배 세력 중심의 정치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생활사와 노동의 역사 등에 관한 머시사를 매우 중요한 비중으로 가르친다. 역사 속에서 평범하게 살았던 '다수'의 삶이 사회를 지배했던 '소수'의 삶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백제 역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계백장군이나 의자왕 등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백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석마제미·왕귀문 같은 건축 기술자들이다. 6세기 후반 일본에 건너가 고대 건축 기술의 기반을 마련해 '일본 고대 건축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사람들이다. 백제는 매우 우수한 건축 기술을 보유한 나라였다.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업은 일본의 1500년 된 전통가옥 보수 기업인데 그 회사 설립자가 백제 사람이었다.

한국 경제성장의 바탕을 이룬 것은 1960년대의 직물 기술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지휘하는 '한강의 기적' 역시 직물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100여 년 전 최초로 일본에서 근대적 염직 기술을 배워 온 기술자들은 안형중·박정선 같은 사람들이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대원군·김옥균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에서 '노동의 역사'를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림 40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우리 주변의 노동자를 찾아보자.
✓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이 있어요.
건설 노동자: 건물과 다른 시설을 건설하고 리모델링하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들은 건축 자재를 운반하고 설치하며,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기계를 다루기도 해요.
음식 배달원: 주문한 음식을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노동자들이에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청소 노동자: 공공 장소, 사무실, 주택 등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이에요. 바닥 쓸기, 창문 닦기,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판매원: 상점이나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이에요. 고객과 대화하며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며, 주문을 처리하고 재고를 관리하기도 해요.
의료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노동자들이에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다양한 직군의 의료진이 있으며, 우리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써줘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노고와 노력은 우리 생활의 편리함과 안전을 지켜줘요. 우리는 그들의 일에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하면서 돈을 벌 때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 첫째로, 우리는 적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해. 보수는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야. 그래서 우리는 공정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어!
둘째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 일하는 동안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해. 예를 들면, 작업장에는 안전 장비가 있어야 하고, 유해한 물질과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있어. 이렇게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셋째로, 우리는 일정한 근로시간과 적절한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해. 그래야 더욱 일을 잘 할 수 있어.

✎ 토론활동2

✓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바꿔서 부르면 경비원/관리원 아저씨/할아버지들의 노동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는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모둠2 명칭을 바꾸면 인식도 바뀌고 달라지게 될 것이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것이 노동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관리원이라는 호칭이 업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지. 이름이 바뀐다고 해도 실제로 하는 일이나 대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야. 호칭이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일하는 조건과 대우가 개선되어야 해.

모둠2: 명칭을 바꾸면 인식도 바뀌고 달라지게 될 것이다.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바꾸는 것이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호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리원"으로 불리면 경비원의 일이 관리와 안전에 더 집중된다고 생각해. 이로써 경비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인식상으로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더 커질 거야.

✎ 토론활동3

✓ 주변 사람들은 노동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노동권은 일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야.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족을 지원하려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권리와 보호가 필요해.
첫째로, 노동자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어.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해. 그리고 근로 조건과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해.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투명하게 이해하고, 노동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
둘째로,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 장비를 제공받고, 작업 환경이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해. 노동자들은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권리도 있어.
셋째로, 노동자들은 적정한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일하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야.
이렇게 노동권은 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권리야.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노동권을 존중받아야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해!

MEMO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iWKIQ99FAeI
쥐픽과 함께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상식1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https://www.youtube.com/watch?v=A3pwasKJToE
[노동N이슈] 초단시간 노동 150만 명 - "우리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2022.05.15/뉴스데스크/MBC)

☞ https://www.youtube.com/watch?v=qTAcNsQB0iI
'알바경험' 서울 중고교생 45% '노동인권 침해' 겪어 / 한국직업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vUJLdxsII0Q
이번 주 뭘 볼까? 영화 카트 / B tv I SK브로드밴드

☞ https://www.youtube.com/watch?v=NCJyz1yos-4
(Kor)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이유 I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I 꿈 희망 도전 I 세바시 1461회

☞ https://www.youtube.com/watch?v=SWPg_zryuw4
[특별기획] 청년 3명 중 1명은 직장 못 구해..채용형 인턴이 자소서 쓰는 이유/ SBS 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c9AkUwV2kAQ
2030은 왜 퇴사하나...MZ, 회사를 떠나다 [풀영상] | 시사기획 창 381회 (22.07.26) / KBS시사

☞ https://www.youtube.com/watch?v=9Rajg0__O4Y
인류의 99%는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후 프레카리아트가 된다 | JTBC 211009 방송 / 차이나는 클라스

✎ 실천활동2

✓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자.

근로계약서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 원
- 상여금 : 있음 ( ) _____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_____ 원, 없음 ( )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표준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함.

출처 : https://www.moel.go.kr/mainpop2.do

☞교사용 자료

배달 알바생 10명 중 7명 '갑질 경험'... 갑질 당해도 '그저 참는다'
강동완 기자

최근 배달 직종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최강 배달꾼'이 인기리에 방영 중이다. 특히 해당 드라마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아 20층 계단을 걸어서 배달하는 모습, 아무렇지 않게 배달부를 무시하는 모습 등 배달 종사자들이 당하는 갑질을 실감나게 그려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에 알바몬은 드라마 최강 배달꾼에서 화제가 된 '배달 알바생 갑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 실제 배달 알바생들이 겪는 갑질 실태를 조사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663명을 대상으로 '갑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몬 조사 결과 배달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87.6%가 근무 중 서러운 순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근무를 하며 가장 서러웠던 순간으로 ▲내 안전보다 배달의 신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69.9%)를 꼽았다(*복수응답). ▲폭우, 폭설 등 악천후에도 배달을 가야 할 때(44.8%)라는 답변 역시 응답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어 ▲지인 등 아는 사람 집에 배달 가야 할 때(21.0%),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무시 당할 때(19.3%) 등이 서러운 순간에 꼽혔다.

알바몬에 따르면 배달 알바생 중 72.4%가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선정한 '최악의 갑질' 1위는 '배달이 늦었다고 따지고 욕하는 행동(50.2%)'이었다(*복수응답). 다음으로 '음식이 도착했음에도 주문을 번복하거나 취소하는 행동(29.2%)',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행동(27.9%)'이 뒤를 이었다.

최근 화제가 된 '담배 등 배달과 관련 없는 심부름을 시키는 행동(24.4%)'과 '빈 그릇에 쓰레기를 넣는 등 필요 이상의 쓰레기 처리를 요구하는 행동(10.0%)' 역시 최악의 갑질 유형에 순위를 올렸다.

배달 알바생들은 주로 '손님(87.3%)'에게 갑질을 당한다고 답했다. '사장님(9.2%)', '동료 알바생 및 직원(3.1%)'에게 갑질을 당한다는 답변은 소수에 그쳤다.

이처럼 다수의 알바생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었지만, 정작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알바생은 소수에 그쳤다. 알바몬이 갑질을 당할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저 참는다'는 답변이 72.5%로 1위에 오른 것. '사장님께 알려 도움, 조언을 구한다(6.9%)', '해당 상대방에 항의, 시정을 요구한다(6.9%)'는 답변이 이어졌다. '법적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이 '전자 근로계약서', '전문노무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알바생 권익 향상에 앞장선다"면서 "특히 갑질 등 부당대우, 임금체불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알바생이라면, 알바몬 '전문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전문 노무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

✎ 실천활동3

✓ 주변의 어른 중에 노동권 침해를 당한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아보자.

한 노동자 아주머니가 회사에서 노동권 침해를 당했어. 그 분은 일정을 늘려 강제로 일해야 했고, 적절한 임금도 다 받지 못했고, 안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럴 때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어. 첫째로, 문제를 상사나 상급자에게 이야기해야 해. 그들에게 침해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해. 문제를 공유하면서 협상이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둘째로, 만약 상사나 상급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상황이 악화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권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이러한 조직은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셋째로, 침해 사례를 문서로 남기고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 해. 이렇게 하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 모두가 함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치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노동권 침해를 당했을 때는 문제를 공유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 노동자들은 서로를 지원하고 협력하여 더 나은 근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 함께 노력하면 노동자들의 권리와 존엄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9

기업 간의 상생과 사회적책임

9. 기업 간의 상생과 사회적책임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사회적 가치로서 상생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가치로서 기업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상생
■ 기업책임
■ 소외계층
■ 사회공헌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들여다보기

■ 기업의 상생 경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이행하는 활동이다.

■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요즘에는 대학 등 다른 조직단위에도 확산되고 있다.

✓ 주요개념

■ 상생

: 함께 살아감.

■ 기업책임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소외계층

: 각종 정책이나 시설의 향유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

■ 사회공헌

: 특정 조직과 집단이 본래의 목적 추구 이외에 사회에 이로움을 주기 위해 벌이는 활동. 기업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 배리어프리

: barrier free. 장벽이 없는 상태.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도 동일하게 각종 정책이나 시설의 향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 납품

: 계약한 대로 물품을 갖다주는 행위.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 학습활동1

📖 기사를 완성해 보자.

"소외계층에 온정 베푼다"…LG유플러스, CSR 활동 전개

'U+희망나눔 빵 만들기' 전개…대한적십자와 협업

이장현 기자 chlee3166@youthdaily.co.kr | 등록 2023.03.16 09:34:38 | 수정 2023.03.16 09:34:52



▲ LG유플러스가 소외계층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빵을 만들고 전달하는 'U+희망나눔 빵 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한다. [사진=LG유플러스]

그림 41

"소외계층에 온정 베푼다"…LG유플러스, CSR 활동 전개

'U+희망나눔 빵 만들기' 전개…대한적십자와 협업

【청년일보】LG유플러스가 소외계층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접 빵을 만들고 전달하는 'U+희망나눔 빵 만들기' [A]을 전개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빵 만들기 나눔 활동을 위해 LG유플러스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은 전국에 있는 빵나눔터를 통해 빵 만들기에 참여하고, 완성된 빵은 포장 등 과정을 거쳐 대한적십자사와 연계된 지역 시설 혹은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된다.

U+희망나눔 빵 만들기 나눔 활동은 연중 상시 진행된다. LG유플러스 임직원은 전국 40여개 적십자 빵 나눔터를 통해 팀 단위로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5일 진행한 'U+희망나눔 빵 만들기'에 참여한 신한국 책임은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빵을 만들고 소외된 [B] 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특히 팀원들과 함께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국에 있는 대리점 직원 및 지역 소상공인도 빵 만들기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U+희망나눔 빵 만들기를 시작으로 올해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A]을 지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은 "희망이 필요한 곳에 LG유플러스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A]을 발굴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고, [C]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23793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사회공헌 활동
B	이웃
C	지역사회

📖 어려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 소외계층

소외계층
: 각종 정책이나 시설의 향유 혜택을 동일하게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

✓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만든 빵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혼자 사는 노인 어르신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전달될 거야

MEMO

✎ 학습활동2

📖 기사를 완성해 보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상생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간 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발맞춰 여건이 충분치 않은 중소기업들의 ESG 역량을 강화해주는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장이 있는 울산을 직접 방문, 소방관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는 등 지역 사회 챙기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최근 중소 협력사들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효성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 같다는 동반 성장 철학 아래 효성그룹의 섬유 사업 계열사인 효성티앤씨에서 ESG 교육·컨설팅 지원과 친환경 인증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력사의 글로벌 [A] 제고를 위해선 ESG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효성티앤씨는 ESG 전문 컨설팅 업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4회에 걸쳐 11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ESG 교육, ESG 진단·가이드,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또한,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이 ESG 규제 대응 등 협력사들의 ESG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국내 섬유 업계 최초로 중소 협력사들의 친환경 인증 발급도 지원한다.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조현준 회장은 "ESG는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기업의 가치 기준이 되고 있다"며 "효성을 비롯한 협력사들의 ESG 경영 강화를 통해 글로벌 친환경 섬유 트렌드를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효성그룹은 지난달 대·중소기업, 농어촌 [B] 협력 기금 총 100억 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조현준 회장의 상생 경영 확대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5개 회사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금과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에 각각 55억 원, 45억 원을 출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금은 협력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라벨링과 같은 친환경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ESG 경영 강화에 사용된다. 또 바디캠, 에어백 조끼 등의 안전용품과 원격검사 설비를 구축해 협력사들이 안전·품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픈 [C]등으로 발굴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플래그십 스토어 마련, 페트병·폐그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 등도 지원한다.

출처 : http://news.tf.co.kr/read/economy/2005417.htm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경쟁력
B	상생
C	이노베이션

✎ 학습활동3

서울대 사회공헌단, 발달장애 동화책 제작 관내 도서관에 기증

정혜정 기자 | 입력 2023.03.16 10:14 | 댓글 0



[한국대학신문 정혜정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여명석)은 학생사회공헌단 '해필리 에프터(Happily ever after)'팀이 관악구종합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과 함께 제작한 동화책 5권을 올해 1월 관악구 관내 9곳의 구립도서관에 각각 기증했다. 또한 관악중앙도서관 배리어프리(Barrier-Free) 동화책 북큐레이션 코너에 전시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림 42

✓ 어려운 말의 뜻을 찾아보자.

배리어프리	장벽이 없는 상태,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도 동일하게 각종 정책이나 시설의 향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북큐레이션	북(Book)과 큐레이션(Curation)의 합성어 주제에 따른 책을 골라 제안하는 행위
글로벌	지구적인, 세계적인
구립	구청이 설립

☞교사용 자료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은 초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시니어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 혁신가와 기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인구 4명 중 1명이, 2039년에는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고령화는 정부나 공공기관, 특정 기업 등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란 점에서 관심과 역량이 있는 사회적 혁신가, 소셜벤처 창업가 등과의 연대와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시니어 비즈니스 분야에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 창업가·사회혁신가에게는 매달 250만 원의 시드머니를 1년간, 총 3000만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 위생·건강케어 플랫폼 '오늘플러스', 함께일하는재단 창업지원사업 등과의 연계, 시니어 분야 선배창업자를 비롯한 전문가 멘토링, 프로젝트 공간, 네트워크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유한킴벌리는 고령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되도록 하자는 목표로 디펜드 매출 일부를 시니어 일자리 기금으로 기탁하여 함께일하는재단 등과 협력해 시니어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등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에 기여해 왔다. 시니어의 보다 자유로운 경제·사회 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고품질의 요실금 전용제품 투자와 공급도 확대해 오고 있다.

유한킴벌리 CSR담당자는 "지난 10여 년간 고령사회 해법을 모색하면서 축적했던 귀중한 경험들이 신규 사회공헌 활동의 디딤돌이 됐다"며 "시니어사업부문과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적 혁신과, 기업가 등과의 협업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9126635543648&mediaCodeNo=257&OutLnkChk=Y

☞교사용 자료

신세계 센텀시티점이 부산시와 손잡고 지역 중소기업 상품 전문 매장인 '동백상회'의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백화점 입점은 유통업계 최초다.

개소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세계 손영식 사장, 입점 중소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동백상회는 실력 있는 지역 중소기업 28개사의 가공식품, 주류, 생활용품 등 160여 종의 우수상품들을 선보인다. 지역민은 물론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산을 대표하는 광안대교, 동백섬, 오륙도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액세서리부터 지역 특산물인 해산물 가공품, 주류에 이르기까지 MZ세대와 중장년층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 대표 관광 특화 매장이 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자체 브랜드가 업계 최초로 정식 입점하는 상생모델인 만큼 상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확실한 디딤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976612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소외계층에 온정 베푼다" 사진과 기사를 보고 함께 토론해 보자.

✓ 기업이 본업 이외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기업은 돈을 버는 것 외에도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첫째로, 기업들은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일이야. 기업들은 사회에 필요한 분야에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해.
둘째로, 기업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고객들도 그 기업을 더 선호하고 지지해줄 거야.
셋째로,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환경 문제나 사회적 문제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야.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 사회적 평등,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천할 수 있어.
그래서 기업들은 본업 이외에도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이야. 사회에 기여하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야!

✎ 토론활동2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될까?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된다.
모둠2 이윤 추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첫째로,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어.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신뢰를 쌓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고객들이 그 기업을 선호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이라 생각해.
둘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더 긍정적인 대중적인 반응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 문제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들을 모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도 있을 거야.
셋째로, 지속 가능한 경영은 미래에 이윤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예를 들어, 환경에 더 친화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 규제를 준수하여 벌어지는 벌금을 피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이윤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거야.

<모둠2>
첫째로,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자원과 시간을 소모할 수 있어.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해. 그런데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면 이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이윤을 낮출 수 있어.
둘째로,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참여는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직접적인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출과 이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
셋째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더라도, 대중이 그 활동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지는 보장되지 않아. 때로는 사회공헌활동이 반대 의견이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기업의 이미지가 오히려 손상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런 이유들로 인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항상 이윤 추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몇몇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선택해. 그들은 이를 통해 더 넓은 의미에서 성공을 추구하고자 해.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공헌활동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일이야

✎ 토론활동3

✓ 주변에 기업의 사회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자.

✓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필요한 도움

✓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

주변에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이나 문화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 사회활동을 통해 이런 아이들을 돕는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도서관을 개설하여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꿈을 키우고 미래에 더 밝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사회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 하나야. 기업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은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또 다른 예로는 노인들이 있어. 많은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업이 노인들을 위한 사회활동을 추진한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 기업이 노인 복지센터를 지원하거나,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촉진할 수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고, 기업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기업의 사회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이는 사회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기업은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 있는 시민이 되는 것이지!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XB_EvJ9Z5Nc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 7탄-2편] CSR과 CSV 차이가 뭘까? / SDGs 플랫폼

☞ https://www.youtube.com/watch?v=Q1bzOwF_I_w
[KUBS Business Insights]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 https://www.youtube.com/watch?v=vru8uHzlGUc
기업시민 포스코를 위한 우리의 다짐 02_왜 포스코가 기업시민활동을 해야하는가? / 포스코인재창조원

☞ https://www.youtube.com/watch?v=NuvlHgcaHbM
중소기업이 3년 이상 살아남는 방법 / 대,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 / KTV 프로그램

☞ https://www.youtube.com/watch?v=VnjdeiFBWMg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는 어떻게 상생할 수 있나? f.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삼프로TV_경제의신과함께

✎ 실천활동2

✓ 2명씩 짝을 지어 납품 계약을 맺는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즉석 연극을 해보자.

이름	역할

✓ 각자 역할을 바꾸어서 다시 해보자.

이름	역할

대기업 직원과 중소기업 직원이 회의를 위해 회의실에 들어간다.

대기업 직원: (기분 좋게)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A사의 매니저라고 해요. 저희는 납품 계약을 맺을 기업이에요. 계약 조건에 대해 상의해봅시다!
중소기업 직원: (신중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B사의 담당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약 조건을 함께 논의해보는 건 좋은 생각이에요.

두 직원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계약 조건을 논의한다.

대기업 직원: (자신감 있게) 저희가 요구하는 납품 일정은 꽤 타이트한 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직원: (고민하며) 일정이 타이트하다면 우리도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해 납품하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너무 짧다면 품질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대기업 직원: (고심하는 척) 그렇군요. 혹시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더 빠른 납품이 가능할까요?
중소기업 직원: (고민하며)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 중이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빠른 납품을 시도할게요.

두 직원은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아간다.

대기업 직원: (웃으며) 그렇다면 추가 비용은 일단 제외하고, 빠른 납품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소기업 직원 : 감사합니다.

✎ 실천활동3

✓ 내가 좋아하는 기업에서는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기업이 어떤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려줄게.
우선, 이 아이스크림 기업은 환경 보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업이 사용하는 원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농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맛있고 안전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고 있어.
또한, 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고 있어.
더 나아가, 이 아이스크림 기업은 자선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기부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등 다양한 자선 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기업은 환경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 자선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어. 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그들의 사회적인 노력에 함께 기뻐할 수 있지!

✓ CSR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포스터를 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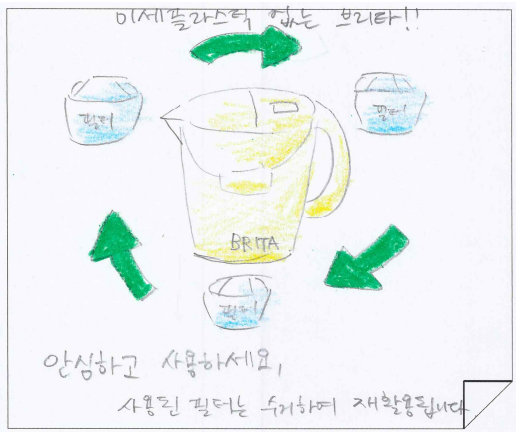


그림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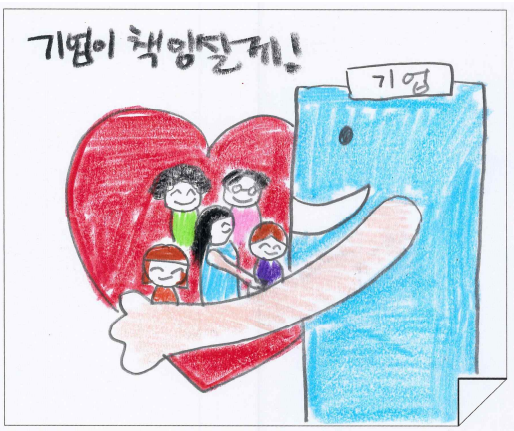


그림 44

☞교사용 자료

최태원 '신기업가정신' 프로젝트 속도낸다
황정수 기자

사회공헌에 23억 규모 지원
신한銀·이디야커피 청소년 후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 두 번째) 등이 19일 경기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열린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주도하는 '신기업가정신' 기반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신기업가정신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 아이디어 등을 통해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업의 역할을 사회적 가치 증진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대한상의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는 19일 경기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위기 청소년 지원'을 주제로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었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기업이 사회공헌 분야·지역·실천과제 등을 선정하면 관련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부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날 행사엔 이석장 이디야커피 대표, 최 회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형희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위기 청소년은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탈 예방을 위해 관심이 필요한 학생을 뜻한다. SK가 위기 청소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신한은행과 이디야커피가 호응해 행사가 성사됐다. SK는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5대를 기증한다. 신한은행은 적금 상품 지원과 경제·금융 교육에 7억원을 후원한다. 이디야커피는 바리스타를 꿈꾸는 청소년을 교육하고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 지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억원에 달한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1995001

10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순환

10.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의 순환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사회적 가치로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사회적 가치로서 지역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지역공동체
■ 지역경제
■ 통장
■ 주민자치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동일한 지역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역공동체라 하며 기업의 주요한 이해관계자의 하나이다.
■ 국가 전체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인 지역경제도 고려해야 한다.

✓ 주요개념

■ 지역공동체
: 동일한 지역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단.
■ 지역경제
: 지역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을 일컫는 말. 통상 국가경제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된다.
■ 통장
: 행정구역단위 통의 업무를 맡아보는 사람.
■ 주민자치
: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체가 되는 것.
■ 스마트시티
: 첨단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의 질을 증진하려고 하는 도시.
■ 주민총회
: 주민들이 직접 참석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행사.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7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갤럭시 시리즈의 산실인 '스마트시티'를 방문해 갤럭시 S23 제조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취임한 직후 광주 삼성전자 '그린시티'를 방문했고 최근까지 삼성 지방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했습니다.

삼성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의 '미래동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5개 지역(서울·구미·대전·광주·부산)에 SSAFT(삼성청년SW아카데미)를 지어 지역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기업에 SW 인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C랩 아웃사이드'를 운영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대구 캠퍼스를 개소했고 이번달 중에는 광주에도 캠퍼스를 열 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에 이어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방문한 이재용 회장은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현장 혁신을 책임질 기술인재들을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 45

✓ 삼성전자가 도움을 주는 지역은 어디인가?

경북 구미시

✓ 삼성전자는 해당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지역 청년의 취업경쟁력 높이기 지역기업에 SW 공급

✎ 학습활동2



그림 46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 내가 주로 물건을 사는 곳은 어디인지 말해보자.

학교 근처에서는 학용품을 사기 위해 문구점을 주로 찾아가! 문구점에는 필기도구, 공책, 노트, 연필 등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 그리고 학교 근처에는 가끔씩 분식집도 가서 맛있는 떡볶이나 튀김을 사먹어!

그리고 집 근처에는 슈퍼마켓이 있어! 슈퍼마켓에는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사기 좋아. 거기에는 과일, 야채, 우유, 빵 등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매일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살 수 있어. 가끔씩 과자나 아이스크림도 사러 가기도 해!

또한, 동네 책방도 매력적인 곳이야! 책방에서는 다양한 책들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어. 나는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사러 책방에 가기도 해. 거기에는 아늑한 분위기와 책의 향기가 가득하단 말이야.

이렇게 학교와 집 근처에는 문구점, 슈퍼마켓, 책방 등 다양한 곳들이 있어서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내가 자주 가는 이곳들은 항상 편리하고 즐겁게 물건을 사고 놀 수 있는 곳이야!

☞교사용 자료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성과...'시즌2' 돌입

서울 성동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 시즌2'를 시작한다. 서울숲과 뚝섬역 주변을 중심으로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오르고, 외부인이 유입되면서 원주민과 중소상인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성동구는 2015년 성수동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구역 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어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성수역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실시해 현 상황을 파악했다. 그 결과 유동인구 및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임대료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성동구는 '2023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서울숲 주변의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중심으로 펼친 정책을 성수역 주변과 연무장길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장한다.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고,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은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2126331

☞교사용 자료

저출산(아이를 적게 낳음) 여파로 산부인과가 줄줄이 폐업(영업을 그만둠)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분만 인프라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해 전국 분만실(병원에서 아기를 낳을 때 쓰는 방)은 1176개로 2년 간 152개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분만 취약(부르고 약함) 지역도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42%인 105곳으로 빠르게 늘었지요. 분만 취약지란 차로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없어 응급 대응이 어려운 곳을 말해요.

분만 취약 지역 임신부들은 다른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먼 곳으로 떠남)검진'을 다니고, 출산일이 다가오면 친정집 근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아기를 낳은 후 허약해진 기력을 회복하도록 보살핌)가 가능한 타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출산' 길에 오른다고 해요. 강원도는 화천 인제 양구 등 5개 취약지역 임신부들의 원정출산을 돕기 위해 강원대병원 옆에 출산 3주 전부터 머물 수 있는 아파트를 마련했지요. 충북도는 보은 옥천 괴산 등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지역에서 임신부 전용 구급차 6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 임신부들은 구급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리는 타 지역 산부인과로 원정검진을 다닙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안에는 분만키트도 준비해 놓은 상황.

원정검진과 원정출산을 경험한 [redacted] 들은 "이런 상황에서 둘째를 낳는 건 상상도 못 하겠다"고 말해요. 분만 수요가 몰면 산부인과가 폐업하고,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커요. 분만 취약지역 유산율(태아가 숨지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지난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의 출산 정책 예산이 1조80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7% 늘었는데 이 중 70%가 출산지원금 같은, 개인에게 직접 주는 예산이었어요.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분만과 육아 인프라에 투자해야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부인과 폐업의 원인 중에는 의료 인력 부족도 있어요. 분만의 특성상 의료진이 24시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일이 잦은 데다 의료소송 위험이 커 산부인과를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해 분만 시기를 정할 수 있는 제왕절개(산모의 배를 가르고 태아를 꺼내는 수술) 분만만 하는 곳도 늘고 있지요.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지원을 늘리는 한편 잘못이 없는데도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림 47

☞교사용 자료

서울시 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주택 임차인들은 단지 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려 사전 협의만 할 수 있었다.

시는 준칙 개정으로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 법적으로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가 직접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중계 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선정 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 후 다득표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준칙은 서울시 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각 단지는 준칙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한 뒤 30일 내로 자치구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564

✎ 학습활동3

춘천

[포토뉴스]강남동 통장협의회 자원순환 캠페인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 | 가

입력 : 2023-03-07 18:25:09 (10분)



춘천 강남동통장협의회(회장:이인구)는 7일 강남동 일원에서 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배출 방법 홍보를 통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림 48

✓내가 사는 동네의 통장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지역공동체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 필요한지 토론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지역공동체란 우리 동네나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말해.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 상점 주인, 학교 선생님, 경찰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그들이 모여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역을 힘차게 만들어가는 게 지역공동체야.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이 필요해. 먼저,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 서로를 돕고 지원하며 친절한 태도로 대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지역이 화합력을 갖게 될거야.
또한, 지역에서의 소통이 중요해. 이웃과 대화하고 소식을 나누며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야 해.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
더 나아가,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 예를 들면 지역 청소나 환경 정리, 지역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이 활기차고 즐거워지면서 사람들 간의 유대감도 증진될 거야.
또한, 지역 상점이나 사업체를 지지하는 것도 지역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돼. 우리 동네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이 더 번영할 수 있을거야.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통하고, 참여하고 지지하는 일이 필요해. 그럼 우리 동네는 더욱 행복하고 번영한 곳이 될거야! 함께 지역공동체를 키워나가자!

✎ 토론활동2

✓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네에 있는 상점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하는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동네에 있는 상점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

모둠2 대형쇼핑몰이나 인터넷 같은 다른 상점을 이용하더라도 무방하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첫째, 동네 상점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동네가 번영해! 상점 주인 아저씨들이 우리 동네를 향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돈이 동네에 머무르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경제가 활발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네가 더 좋은 시설이나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어!
둘째, 동네 상점에서 사는 건 환경에도 좋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아도 돼. 그래서 대기 오염도 줄이고, 자연을 지켜줄 수 있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환경을 지키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야!
셋째, 동네 상점에서 사면 이웃과의 유대감이 증진돼! 상점 주인 아저씨들과 친해지면서 이웃 사이에 소통과 친밀감이 높아져. 어떤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갈 때마다 인사를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이웃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서로를 돕고 응원하며 함께하는 동네 분위기가 만들어져!
마지막으로, 동네 상점에서 사는 것은 편리하고 빠르단 말이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상점이 있으면 길을 건너고 여러 번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 또한, 필요한 물건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점 주인 아저씨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 그래서 동네 상점을 이용하면 편리하고 안전해!
이렇게 동네 상점을 더 많이 이용하면 지역 경제가 번영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이웃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모둠2>
첫째, 가격이 더 비싸다면 우리 동네 외에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 때로는 동네 상점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다른 곳에 비해 비싸기도 해. 가격을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곳을 찾는다면 더 많은 것을 구매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돈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둘째, 다양한 상품을 찾으려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좋아! 동네 상점에는 제품의 종류가 제한적일 수 있어. 때로는 더 다양한 상품을 찾으려면 조금 멀리 있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원하는 제품을 더 찾을 수 있어!
셋째, 온라인 쇼핑이 편리하다면 그것도 좋아! 요즘은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고 간편해. 가까운 곳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을 받을 수 있어. 집에서 편안하게 쇼핑을 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위해 다른 장소로 가는 것도 좋아! 동네 상점은 익숙한 곳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장소를 방문하는 것도 즐거워! 다른 동네나 시장을 경험해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넓은 세상을 더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동네 상점을 더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아! 상황에 따라 다른 곳을 찾거나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것도 좋아. 자유롭게 선택하고 다양한 경험을 즐겨봐!

✎ 토론활동3



그림 49

✓ 포스터를 보고 주민총회에 참가하는 대상은 누구인지 말해보자.

강북구 거주민, 생활주민 누구나

✓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홈페이지나 주민자치회 문의

✓ 우리 동네에서 주민총회를 본 적이 있는지, 경험을 이야기해보자.

나는 아직 주민총회를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주민총회에 참석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라고 설명해줬어. 주민들은 모두 모여서 동네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대! 친구는 주민총회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어. 동네 안전이나 환경 문제, 시설 개선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네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해!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소리를 직접 듣고 희망이나 걱정을 공유하며, 함께 동네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야. 친구는 주민총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어. 그래서 나도 한 번 주민총회에 참여해 보고 동네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 주민총회는 우리 동네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면 우리 동네는 더욱 발전할 수 있어!

✓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주민총회가 열린 적이 있는지 알아보자.

- 언제 :

- 어디서 :

- 참가자 :

- 안건 :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SP2bi3zy22k
[부동산연구소X정원오] ep03 E+ESG란? 성동형 지속가능도시는 무엇? / 김경민의 노트 [KIM'S NOTE]

☞ https://www.youtube.com/watch?v=b3oxzXLVjfQ
마을공동체 교육 영상 / 동대문구마을자치센터

☞ https://www.youtube.com/watch?v=egM7WQUkq_s
[SDGs 함께 생각하기 시리즈 10탄-1편] 마을공동체의 7가지 원칙! / SDGs 플랫폼

☞ https://www.youtube.com/watch?v=mnj4bso15dg
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지역 경제 회생 방안은? (2022.03.03./뉴스데스크/부산MBC) / MBC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RJUGhSfIAZI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경북연구원

☞ https://www.youtube.com/watch?v=ldcJDjInNLc
마을100℃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마을경제) /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실천활동2

✓ 더 살기 좋은 우리 동네를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보고, 구청/시청/군청에 건의하는 편지를 써보자.

✓ 내가 사는 곳의 구청/시청/군청 홈페이지를 찾아 편지 내용을 올리고, 결과를 기다려보자.

우리 동네에서는 공원이 많지만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고 뛰는 것이 즐거운데, 사람이 많이 모일 때는 공원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요. 주변에 주차장을 더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차를 주차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우리 동네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지만 조금 더 다양한 놀이기구와 시설이 필요해요. 저희 친구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추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도 함께 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시면 더욱더 행복한 동네가 될 거예요.
또한, 동네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와 보행도로의 개선이 필요해요.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이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량이 많아서 건널 때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와 속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거리를 건널 수 있을 거예요.

✎ 실천활동3

✓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마을기업을 구상해보자.

✓ 팔고 싶은 상품/서비스 :

✓ 판매 대상 :

✓ 수익금의 사용 방향 :

우리 동네에서는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하는 농부 아저씨들이 계셔, 그래서 마을기업으로는 "맛있는 과일과 채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있는 농부 아저씨들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재배해, 마을기업은 이런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서 주민들에게 배달해줄 거예요,
이런 과일과 채소는 농부 아저씨들이 손수 키운 것이니까 신선하고 맛있을 거예요. 주민들은 건강한 식재료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동네 상점들에게서 사지 않고 바로 농부 아저씨들에게서 구매할 수 있어요,
마을기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예요. 농부 아저씨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동네 상점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 동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도 우리 독특한 과일과 채소를 맛보러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의 상점들과 식당들도 함께 번창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기업은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농부 아저씨들의 노고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돕는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건강하고 맛있는 농산물을 제공해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과 채소 배달 서비스"를 통해 마을기업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잘 발전하는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 아저씨를 돕는 게 필요해요,

11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11.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기업 지배구조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기업
■ 계약서
■ 이해관계자
■ 노동이사제
■ 소비자위원회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을 방식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노동이사제, 어린이소비자위원회 등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기업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확보하는 주요한 방식이다.

✓ 주요개념

■ 기업
: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조직.

■ 계약서
: 당사자 간의 약속 내용을 명시한 문서.

■ 이해관계자
: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법적으로는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지만, 노동자, 소비자, 납품업자, 지역주민 등 폭넓게 이해관계자로 인정한다.

■ 노동이사제
: 기업의 일상적인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노동조합의 대표.

■ 소비자위원회
: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기업에 설치하는 기구.

■ 회사
: 기업의 법적 개념. 일상적 언어로는 법적인 회사가 아니어도 회사로 통용하는 경우도 많다.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 기사를 완성해 보자.

JYP가 실적개선에 성공한 것은 경쟁사와 비교해 개선된 지배구조가 한몫했다. JYP는 최근 SM이 제안한 'SM 3.0' 전략의 핵심인 멀티 레이블 체제를 2018년에 이미 구축했다. 당시 JYP는 'JYP 2.0 비전'을 발표했고, 멀티 레이블 체제의 포문을 열었던 걸그룹 트와이스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

과거 JYP는 마케팅, 홍보,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A&R·음반 기획 총괄) 등 각 부서가 모든 아티스트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2011년 소속 아티스트의 미국 진출을 추진했던 JYP의 도전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경영 방향을 재편할 필요성이 커졌다. 해외 사업에 앞장섰던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는 2018년 7월 "회사 규모가 커지다보니 아티스트나 회사의 성장 속도에 비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프로세스가 신속하지 못했다"면서 일원화된 앨범 제작 체계의 [A]를 인정했다.

현재 JYP는 아티스트별로 레이블을 만들고 그 안에 업무 담당자를 두고 있다. JYP가 작년 8월 엔터업계 최초로 발간한 ESG(환경·사회·[B]) 보고서에 따

르면 JYP는 5개의 독립적인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다.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등 소속 아티스트들은 각 본부로 분리되고 해당 본부에서 마케팅과 기획, 매니징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 박 PD에 대한 음악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JYP는 2020년 4월 박 PD의 개인회사였던 JYP퍼블리싱을 100% 인수하면서 완전 [C]로 편입했다. 2008년 설립된 JYP퍼블리싱은 작사가·작곡가·프로듀서 등을 키우는 회사다. 설립 당시 30여명의 뮤지션이 소속돼있었는데, 공식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50여명으로 늘어났다.

멀티 레이블 체계가 자리잡으면서 JYP 소속 아티스트들은 타사 대비 많은 활동량을 자랑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JYP는 공개된 계획에 맞춰 아티스트의 활동이 이뤄지는 편"이라면서 "1년 동안 컴백을 단 한번도 못하는 아티스트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 경쟁사와 달리, JYP 소속 아티스트들은 1년에 두 번 이상 컴백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3/18/6U52ENUUIJEKPFYJ3NT VWI3RX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한계
B	지배구조
C	자회사

✎ 학습활동2

회사의 주인

두 사람이 별다른 계약서나 증서 없이 오직 서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근면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번창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어요. 둘 사이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식들 대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두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해 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내내 이상하게도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했어요. "너는 공장의 책임자이고 나는 본사의 책임자이다." 이와 같은 사소한 일까지 규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가 상의하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생산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영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 앞에서도 "내가 상품을 잘 만들어서 회사가 발전했다." "내가 잘 팔았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했다."라며 서로 다투었어요. 또 서로 사장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웠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그동안은 싸움을 하지 않아 사업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아시오. 두 사람의 의견이 매번 충돌해서 회사가 망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오. 이 상태로는 아무래도 사업이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 같으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오. 당신들 회사의 경영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지금은 자기들 두 사람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랍비가 다시 말했어요.
"신은 세상 모든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신을 그 회사의 경영진에 참여시키면 어떻겠소? 서로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말고 모든 일을 맡고 계신 신을 그 경영진에 참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소."
랍비의 말을 듣고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랍비가 계속 말했어요.
"그 회사는 당신들의 것이지만 동시에 신의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회사가 당신들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들이 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하나의 큰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 사람 중 누가 사장 노릇을 하느냐 하는 일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을 담당한 사람은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영업을 담당한 사람은 상품을 파는 데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싸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신을 회사의 주인으로 삼자고 말했어요.
회사도 매우 원만하게 운영되어 갔어요. 회사는 이익금의 얼마는 언제나 사회를 위해 내놓았어요. 사장의 자리에 신을 모시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회사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사장을 따로 정하지 않고서도 회사는 더욱 발전해갔어요.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6231&cid=47314&categoryId=47314

✓두 사람이 싸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 사람은 생산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영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랍비 앞에서도 "내가 상품을 잘 만들어서 회사가 발전했다." "내가 잘 팔았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했다." 라며 서로 다투었어요. 또 서로 사장 자리에 오르겠다고 싸웠어요.

✓랍비의 말을 듣고 싸우던 두 사람은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가?

사장의 자리에 신을 모시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회사의 목표로 삼았어

☞교사용 자료



그림 50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첫째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로는 직원들이 있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직원들은 회사를 움직이게 해주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기여하죠. 그리고 직원들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마련하고 가족을 부양해요. 직원들은 회사의 성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둘째로, 회사의 고객들이 이해관계자야.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야. 우리 회사는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 만약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제품을 좋아하고 만족한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 제품을 사고 이용하게 될 거야.
셋째로, 회사의 주주들도 이해관계자야. 주주들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치가 오르고 이익을 얻게 돼.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잘 운영되고 성장하도록 돕는 거야.
넷째로, 회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들도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어. 회사는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돕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영향을 주는 거야. 그리고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수록 주민들은 회사를 더욱 지지하고 협력하게 될 거야.
이렇게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은 다양한 역할과 기대를 갖고 있어. 각각의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해. 회사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모두가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야!

✎ 토론활동2

✓ 노동이사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하는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반대한다.

모둠2 찬성한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야. 노동자들은 기업의 핵심 요소이며, 그들이 일하고 노력하여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야.
첫째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균형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돼.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기구인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면 그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들을 수 있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
둘째로, 노동자 대표의 참여는 공정한 대우와 노동권 보호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 이사회에서는 급여, 근로조건, 안전, 복지 등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들이 결정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면 그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불공정한 대우나 노동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어.
셋째로, 노동자 대표의 참여는 기업 내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촉진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기업 내부에서 노동자와 경영진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반을 만들 수 있어. 이는 기업의 생산성과 성과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서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노동권이 보호되며, 기업 내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증진되는 거야.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기업은 더욱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어.

<모둠2>
첫째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과 이익을 결정하는 곳인데, 이사회의 목표는 기업의 성장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야. 그런데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노동자들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어.
둘째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사회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어. 이사회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장소인데, 이사회 구성원들은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해야 해. 그런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면 개인적인 이익과 우려사항에 집중할 수 있어,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셋째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기업의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이야. 그런데 노동자 대표는 전문적인 경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기업의 전략과 경영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 충돌, 이사회의 효율성 저하, 그리고 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 때문이야.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 대표는 다른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대표 체제를 고려해야 해.

☞**교사용 자료**

이복현 금감원장, "노동이사제 도입 신중해야"
시기적으로 노동이사제 논의 아직 일러
'관치 논란'엔 "사람 아닌 시스템 문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금융사가 추진하는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시기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금융사 직원들의 성과급, 퇴직금 등이 더 오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현재 각 금융지주 회장이 그동안의 관행을 변경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나 사외이사를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큰 틀의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지금 당장 논의하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지배구조와 관련한 TF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그 전 단계로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해 다양한 연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일부 금융사들이 노동이사를 선임하거나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임경종 전 수은인니금융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이어 지난 21일 주택금융공사(HF)는 임채동 전 주금공 전 노동조합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윤석열 정부의 관치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이 사외이사와 연 1회 정기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제 금융기관은 이사회가 CEO를 감독하는 데 적절한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독기구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오히려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나기보다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사회에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사회가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그 기준에 따라 CEO를 컨트롤함으로써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제고할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며 "그렇게 관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발표한 금감원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관련해 금융사의 이사회 개편을 살펴볼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자신들의 측근을 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내부통제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의 주요 안건 찬성률은 96.7%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운영이나 리스크 통제 같은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로 선임된 사외이사를 대상으론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에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한 것이 결국 정부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표로 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금융권에서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정부 내 의사결정 라인에 있는 분들은 특정 누군가를 시키고 싶다거나 시킬 의도로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다"며 "실제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최근 회장이 된 어느 분들도 저와 개인적인 관련도 없고 다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예를 들어 회사의 자산이나 자금을 유용하는 데 개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상점을 지켜줄 종업원을 구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부정적인 사항에 있어서 최소한의 요건에 대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출처 :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53

☞교사용 자료

4일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
한전, 국민연금, 캠코 등 130개 공공기관 대상
임원추천위 구성 등 노동자대표 선임절차 추진
4일, 기획재정부는 "오늘부터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노동이사제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노동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이사 중 공석이 생길 경우 노동이사로 채워 넣거나 노동이사 선임을 위해 이사 자리를 늘릴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 기관은 총 130곳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4곳이다. 여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포함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후보자를 임추위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노동이사를 선임한다. 이 때 노조위원장이 본인을 직접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하고 이후 임추위 추천 절차를 거쳐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한다. 이렇게 선임된 노동이사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만, 노동이사가 되면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조원 자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재부도 노동이사의 노조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재부 지침을 두고 노동계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한국노총은 기재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 노동이사가 노조와 단절된다면 근로자 이해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며 "노동이사의 권한 제한 지침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시행령을 통해 노동이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요구 사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의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사회가 자칫 노사 갈등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정책 이슈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조직 축소, 경비·업무추진비 감축 등을 골자로 한 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노동이사의 권한과 자격 등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달 29일,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 감축과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출처 :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24

✎ 토론활동3

✓ 주변의 어른 중 한 사람을 골라 일하고 있는 회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자.

지배구조는 회사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이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회사는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구성돼 있어.
첫째로,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이야. 주주들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의 이익과 성장에 따라 주식 가치가 변동돼. 주주들은 주주총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 주주들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경영진을 감독하거나 조언할 수도 있어.
둘째로,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구성돼. 이사회는 기업 전략, 재무, 경영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아. 이사회는 주주들이 선출한 이사들로 구성돼 있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 이사회는 회사의 이익과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진과 협력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해.
셋째로, 경영진은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과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야. 경영진은 이사회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회사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경영진은 회사의 업무와 조직을 관리하며, 주주들과 이사회에 대한 보고를 진행해야 해.
아이스크림 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 이사회, 경영진으로 구성돼. 이 구조를 통해 회사의 소유자들은 의사결정과 이익 추구에 참여하고, 경영진은 회사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함께 노력하면 맛있고 훌륭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될 거야!

MEMO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29BcnPJQrK8
[ET] ESG 경영 본격화...지배구조는 걸음마 / KBS 2021.04.06. / KBS 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7n9s228wkE4
1 기업지배구조의 개요 / 연문교

☞ https://www.youtube.com/watch?v=5XhgZ-asECc
[이슈 완전정복] '한국형 재벌' 구조의 문제점은? (2021.02.17./뉴스외전/MBC) / MBC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yKlaMcXEZaM
기업지배구조를 이해하는 방법 [존리의 생각] / 존리라이프스타일 주식

☞ https://www.youtube.com/watch?v=NNBWIoNbt2U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은? / MBC 라디오 시사

☞ https://www.youtube.com/watch?v=NqKeHbEjYx4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오해와 진실 1편 / 경기도의회

☞ https://www.youtube.com/watch?v=6etWbSh9w-E
GH 노동이사와 함께 경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러 G우먼 출동~! / GH ESG / [굿홈TV] GH 경기주택도시공사

✎ 실천활동2

✓ 내가 쓰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내가 좋아하는 곳을 골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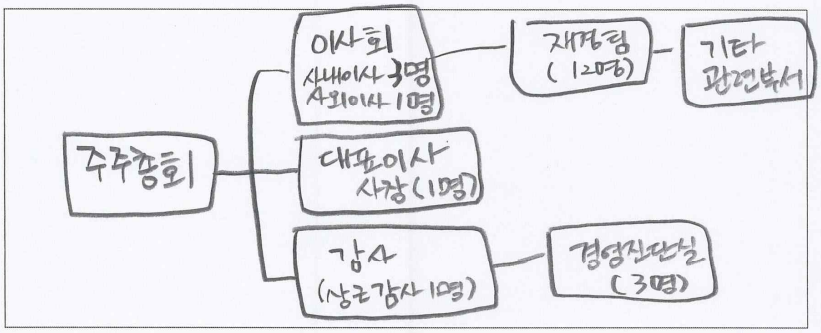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회사의 CEO는 로제와 리사가 공동으로 맡고 있어,
사외이사가 있는데 지수와 제니가 사외이사야,

✓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그림으로 그려보자.

✓ 내가 그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 보자.

☞교사용 자료

✓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그림으로 그려보자.



✓ 내가 그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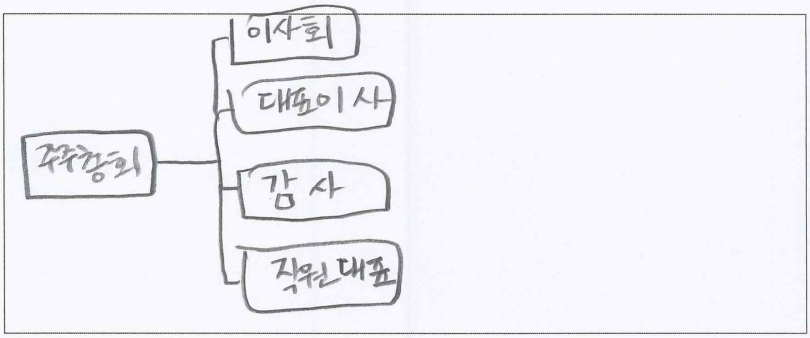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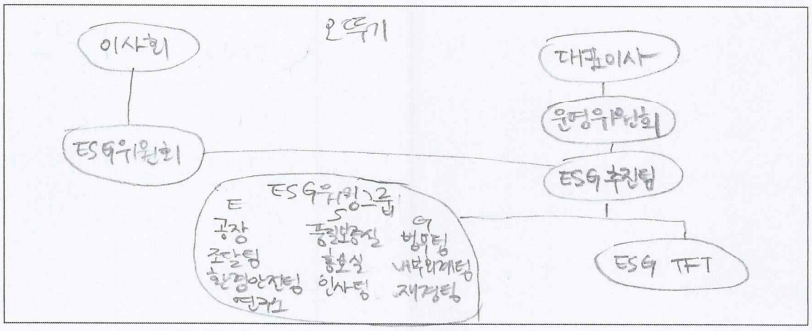


그림 51

✓ 홈페이지에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고 그림으로 그려보자.



✓ 내가 그 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그림으로 그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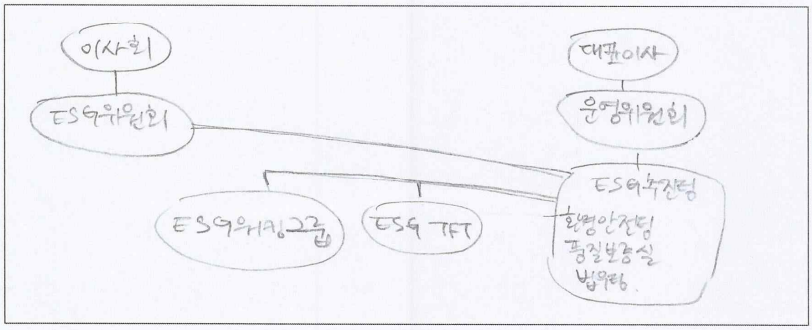


그림 52

✎ 실천활동3

✓ 내가 좋아하는 기업을 한 곳 골라 어린이소비자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 편지를 써보자.

편지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맛있고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사랑하는 어린이 소비자 중 한 명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저희 어린이들은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에게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회사에 어린이소비자위원회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해요. 어린이소비자위원회는 여러분 회사의 아이스크림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우리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소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스크림 맛을 개발할 때 어떤 맛이 좋을지, 포장 디자인에 어떤 모양과 색깔이 멋지게 보일지,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홍보 이벤트에도 관심이 많아요. 어린이소비자위원회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더욱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어린이소비자위원회는 다양한 나이와 성별의 어린이들로 구성돼야 해요. 우리는 회의를 통해 우리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나누고,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편지 보낸 날	
답장 온 날	
답장 내용	

☞교사용 자료

롯데글로벌로지스, 소비자중심경영 위원회 출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위원회 출범식'을 11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범식에는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와 안재용 최고고객책임자(CCO) 겸 택배기획혁신부문장, 그리고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CM 선언문을 통해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항상 고객이 중심이 되는 기업 경영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는 CCM 추진 전담반(TF)을 구성해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CC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1209313811622

12

마을에서의 민주적 참여

12. 마을에서의 민주적 참여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주민자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마을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마을
■ 주민자치위원
■ 지방의회
■ 주민참여예산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예산제도 등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마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법이다.

■ 지방의회는 사는 지역의 대표를 주민이 직접 뽑아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으로 마을의 주요한 일을 결정한다.

✓ 주요개념

■ 마을

: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을 일컫는 장소적 개념.

■ 주민자치위원

: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

■ 지방의회

: 지방자치제도에 따라 해당 지역의 법인 조례를 제정하는 기관.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회가 있다.

■ 주민참여예산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결정하는 제도.

■ 마을축제

: 마을 단위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 진행하는 축제.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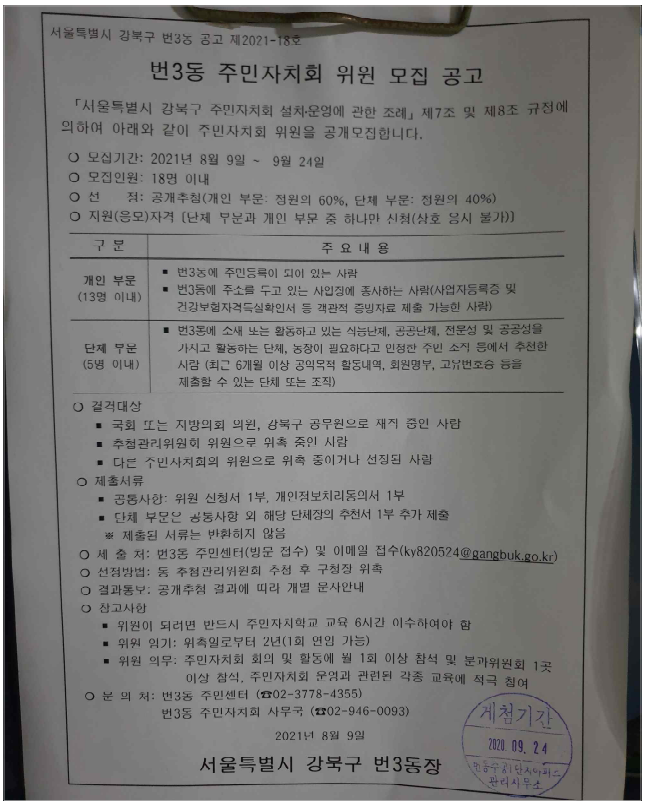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3동 공고 제2021-18호

번3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2021년 8월 9일 ~ 9월 24일
○ 모집인원: 18명 이내
○ 선 정: 공개추첨(개인 부문: 정원의 60%, 단체 부문: 정원의 40%)
○ 지원(응모)자격 (단체 부분과 개인 부문 중 하나만 신청(상호 중복 불가))

구 분	주 요 내 용
개인 부문 (13명 이내)	▪ 번3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번3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사람)
단체 부분 (5명 이내)	▪ 번3동에 소재 또는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 공공단체,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 농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 소지 등에서 추천한 사람 (최근 6개월 이상 공익목적 활동내역, 회원명부, 고유번호증 등을 제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조직)

○ 결격대상
▪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강북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추첨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 제출서류
▪ 공통사항: 위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단체 부문은 상동사항 외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1부 추가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 출 처: 번3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ky820524@gangbuk.go.kr)
○ 선정방법: 동 추첨관리위원회 추첨 후 구청장 위촉
○ 결과통보: 공개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문사안내
○ 참고사항
▪ 위원이 되려면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교육 6시간 이수하여야 함
▪ 위원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 의무: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 및 분과위원회 1곳 이상 참석,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
○ 문 의 처: 번3동 주민센터 (☎02-3778-4355)
번3동 주민자치회 사무국 (☎02-946-0093)

2021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3동장

제첨기간 2020. 09. 24 번동주민자치회사무소 관리사무소

그림 53

✓공고문을 보고 주민자치위원을 뽑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공개추첨

✓공고문을 보고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필요한 활동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주민자치학교 교육 이수(6시간)

✓주민자치위원 모집의 근거가 되는 법(조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강북구와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등의 업무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교사용 자료

주민자치위원회 [住民自治委員會]

주민자치위원회는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이다. 1999년 읍 · 면 · 동을 주민센터로 기능 전환하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정의

1999년부터 읍 · 면 · 동의 문화 · 복지 및 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자문 기구 형태의 조직.

개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하는 행정 개혁 과정에서 읍 · 면 · 동사무소의 남는 공간에 문화 · 복지 ·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현안과 지역 발전 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참여 자치의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주민자치센터에는 읍 · 면 · 동사무소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 운영되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시범 실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변천 및 현황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적 근거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칙」 제15조에는 읍 · 면 · 동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읍 · 면 ·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 복지 ·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독립된 의결 기관이나 집행 기관은 아니며 읍 · 면 · 동장의 자문 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OO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 읍 · 면 · 동의 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총 3, 491개의 읍 · 면 · 동 중 3,119개 읍 · 면 ·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6만 8177명이다.

의의 및 평가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민주성 ·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미흡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 등이 지적된다. 이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점차 주민자치회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2013년「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제정으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 참여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주민 대표 기구라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각 동별로 예산까지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 · 면 · 동의 자문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민관협치 기구로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자치위원회 [住民自治委員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학습활동2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열렸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 올해, 시민이 주인 된 지난 30년의 발자취를 돌이켜보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행사였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 1960년에 2대 의회가 개원했으나, 1961년에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30년의 긴 공백기를 겪었다. 1987년에 6·10 민주항쟁과 헌법 개정, 야당 지도자 단식투쟁 등을 거쳐 1991년 6월 20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가 재개됐고 서울시의회도 3대 의회를 출범하며 부활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는 서울교통방송(TBS) 생방송과 서울시의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제 기념식 현장에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세종시 및 충청남도의회 의장,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장 등 내빈 10명 내외만 참석해 부활 30주년을 축하했다.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해외 17개국 18개 도시 주요 인사들은 영상 축하인사를 보내왔다.

축사가 끝난 후 시민 공모전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발자취를 담은 다양한 수장품이 타임캡슐에 봉인됐다. 시민기자증, 의정모니터 위촉장과 표창장, 시의회보, 시의원 당선증, 역대 의원 수첩 등 시민이 기증한 수장품과 의사봉,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 책자, 시의회 기념품 등 서울시의회를 기억할 수 있는 수장품 30점이 봉인됐다. 이 타임캡슐은 2091년 서울시의회 부활 100주년 때 개봉될 예정이다. 봉인식에는 서울시의회 의장과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이 대표로 등단해 타임캡슐에 의사봉을 수장하는 세레모니를 선보였다.

봉인식이 끝난 후, 시의회 본관 세종대로 변에서는 옛 정문 전시세트장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은 현재는 폐쇄된 옛 정문을 민주주의의 역사와 연계해 복원하자는 의견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기념식에서 선보인 다양한 기념행사 프로그램 이외에도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역사·역할·기능 등을 다방면에서 조명하는 기념사업들을 추진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는 '시민과 함께한 30년의 기록' 이라는 주제로, 시의회 외부와 내부에 전시돼 이목을 끌었다.

또 지방자치 관련 기관, 학계, 언론인 등 외부전문가와 시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30선』을 지난 3월 선정한 바 있다. 선정 내역을 보면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수요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참여(광장·학생인권·찾동·혁신학교), 보행친화도시(자전거·시내버스·교통약자), 기후변화(미세먼지), 보편복지(친환경급식·온마을돌봄) 등 시대별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온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7월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무상급식 조례가 지난 30년간 최고의 조례로 뽑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분야별 기념사업을 통해 시민과 함께 달려온 30년의 역사를 담아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희망찬 미래를 다짐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기념식에서 "앞으로의 30년도 시민의 손을 잡고 나아가겠다"며, "강화된 권한만큼 입법의 깊이를 더해 더욱 세심한 지방자치를 만들고,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며 따뜻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내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767

✓서울시의회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서울시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 서울시의 사무처리를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의회

✓지금 서울시의회 의장이 누구인지 찾아보자.

☞**교사용 자료**

농림수산위는 이날상오 전체회의를 열어 李承潤부총리와 曺京植농림수산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금년산 추곡수매동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나 민자당측은 표결처리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은 이를 실력저지한다는 태세여서 파란이 예상된다.

金晋榮 朴泰權의원등 민자당의원들은 ▲농수산물 수입관세전액을 농어촌발전기금에 편입시키고 ▲한국마사회의 체육부이관을 보류하며 ▲농어촌복권의 발행검토를부대조건으로 달아 통일벼 5%, 일반벼 10%를 각각 인상하고 통일벼 4백50만섬과 일반벼 4백만섬등 총 8백50만섬을 사들이는 수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李炯培 金泳鎭 愼順範의원등 평민당측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작년보다 웃돌고 있고 공무원의 보수인상률도 두자리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 작년수준인 통일벼 12%, 일반벼 14%로 각각 인상하고 수매량도 통일벼 5백만섬, 일반벼 6백만섬등 1천1백만섬이상이되어야할것이라고 맞섰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특정강력범죄가중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의, <출판물등록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규정 추가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보도금지조항및 최소한의 처벌조항을 포함시키자는 민자당측 주장과 보도금지에 대한 선언적 규정은 두되 처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평민당측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424187?sid=100

✎ 학습활동3



그림 54

✓주민참여사업의 제안 방법은 무엇인가?

온라인 온통중구

동주민센터

중구청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구 주민 편익, 지역 발전에 관한 사업

☞교사용 자료

"직접민주주의 구현" vs "소수단체 꿀단지"...주민참여예산 논란

수원 87%·대전 50% 삭감 등 곳곳서 예산 편성 놓고 갈등
지방권력 재편후 사업 성패 중대기로..."주민 관심·참여 늘어야 의미"
(전국종합=연합뉴스)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 지하차도 벽화 그리기, 테마 둘레길 조성, 전신주 전단 부착 방지 시트지 설치, 버스정류장 벽체 환경 개선....
(서울=연합뉴스) 서울 종로구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하나로 기생충 촬영지로 알려진 부암동 자하문터널 북측 옹벽 약 80m 구간에 금속 조형 벽화를 전시했다. 사진은 금속 조형 벽화 '불현듯 인왕산' 모습. 2021.12.6 [종로구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올해 경기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다.
모두 39건이 선정됐고 6억3천400여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는 작년(46억9천400만원)의 13.5%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수원시는 114건에 48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해 12월 2023년도 본예산 심사, 의결 과정에서 시의회가 87%를 삭감했다.
20년 전인 2003년 참여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을 권고해 탄생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다.
민선 8기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 권력 재편과 맞물려 곳곳에서 이 제도의 확대나 축소를 두고 갈등이 벌어져 올해 어떠한 성과를 내느냐에 관심이 쏠려 있다.

◇ "예산 집행 비효율·불투명" 지적하며 '싹둑'
대전시는 지난해 200억원 규모이던 주민참여예산을 올해 100억원으로 절반 삭감했다.
시는 올해 재정능력 악화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를 두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참여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시·구의원들은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참여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방향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 이 제도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단 수십 명이 사업을 선정하는 등 주민 없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락했다"고 맞받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며 이 제도를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본예산 편성 연도인 올해 주민참여예산을 지난해 485억원(397건)의 40% 수준인 196억원(411건)으로 대폭 삭감했다.

이는 민선 7기 당시 2019년 199억원(42건), 2020년 297억원(247건), 2021년 401억원(286건), 2022년 485억원(397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꾸준히 늘린 것과 상반된 조치다.

지난해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과거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이 급증한 것에 대해 제도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이 인기영합적 예산 수립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의 한 구청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주민 참여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자체가 주민 참여라는 구실을 내세워 특정 주민이나 모임의 민원을 들어주거나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부산시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적어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2021년 75억원, 지난해 70억원, 올해는 68억원이 편성됐다.

◇ 분야별 확장·주민참여 유도 사례도 많아

이와 달리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되며 사업이 확장하는 사례도 많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역사회, 참여사업, 광역사업, 청년사업 등 4개 분야에 사업비 200억원을 책정했다.

2013년 제도 도입 첫해에 132억원으로 시작한 이후 2016년 150억원으로 처음 증가했고, 2017년 170억원으로 늘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200억원이 유지되고 있다.

사업 건수도 2018년 283건, 2019년 289건, 2020년 302건, 2021년 334건, 지난해 357건 등으로 늘었다.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제주 구도심 지역에서 마을별로 이뤄진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됐다"며 "그 외 CCTV 설치 등 시설비 중심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사업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경우 민선 7기 민주당 최문순 도정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김진태 도정으로 바뀌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1억8천300만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올해 이 예산이 사용될 사업은 강원도립대 사무실 석면 자재 교체(9억3천만원), 자전거 도로 조성(2억1천만원), 지방도 유지보수(2억원) 등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예산이 증가한 것은 지방권력 교체와는 별개로 사업 채택률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미 하는 사업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아이디어는 사업화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 참여 위원들이 해당 부서, 전문가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어 채택률을 높였다"고 말했다.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에 주민 참여를 늘리고자 올해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
시정을 제안하거나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등에 참석한 시민에게 1천~3천 포인트를 준다. 상·하반기로 나눠 포인트가 1만점을 넘긴 시민에게 1만원 단위로 김해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충북도는 이달 중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주민참여 범위 확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계획이다.

◇ "주민 실질 참여하도록 제도 취지 살리는 노력 중요"
전문가들은 주민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주민 다수가 참여한 사업이 이뤄져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초단체들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전체 예산의 1% 정도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되는데 이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보통 공모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하는데 공모 사업에 두는 제한을 최소화하고 일부나마 직접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식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줄이는 지자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맞게 작은 규모의 사업 위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업이 계속되면 주민들의 관심도 떨어지게 된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희권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제대로 시행되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사업 선정과 진행 과정에서 일부 주민이 아닌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 점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등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용민 손상원 김준범 고성식 김근주 이정훈 이해용 전창해 민영규 신민재 최종호 기자)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141900061?input=1195m

☞**교사용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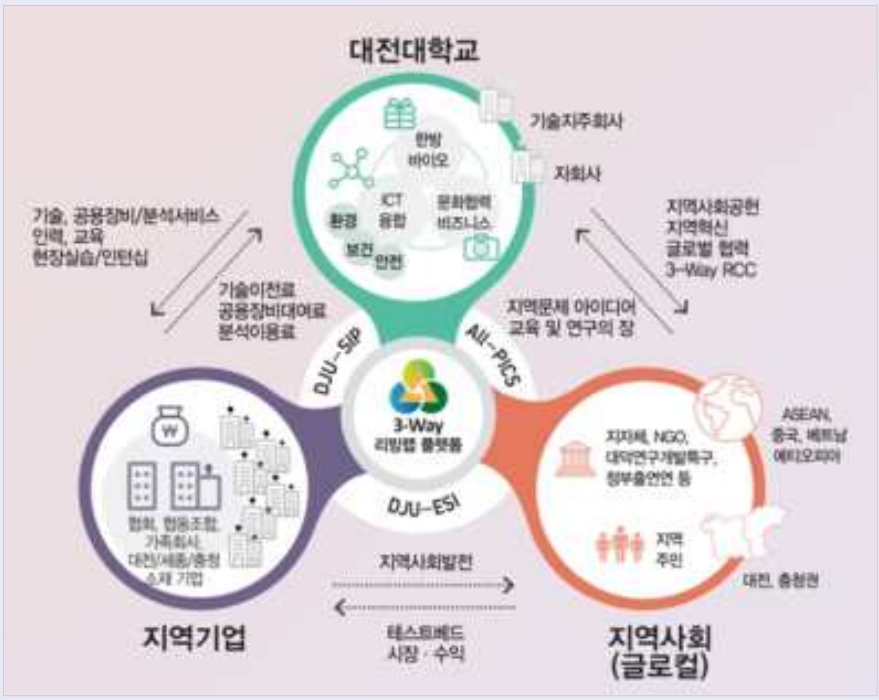


그림 55

국가와 시장의 실패 늘수록 리빙랩의 역할 커질 것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어쩌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과 시민의 더 큰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은 본래부터 '열린 실험'을 추구하는 리빙랩과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일지 모른다. 다시 말해, 국가와 시장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난제가 늘어날수록 시민의 혁신적 발상과 협력에 기대려는 흐름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런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리빙랩이라는 '열린 실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리빙랩 실험 1호이자 여전히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대전 '건너유 프로젝트'는 여러모로 곱씹어 볼 만하다. 최근 서울에서 만난 실험의 기획자 천영환 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사업지원팀장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행정에만 의지하지 않고 시민의 자발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실험을 추진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오픈소스 운동으로 누구나 ICT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을 가진 개인 간 호혜적 네트워크가 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물고기 다리'의 잦은 범람이라는 지역 문제를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혁신적 해법을 도출해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122254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지방의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지방의회는 지역의 법률을 만들고 조정하는 곳이야.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모여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어.
지방의회는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야. 그래서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맡아.
지방의회는 의원들로 구성돼 있어.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선거로 선출되거나 임명되어 역할을 맡는다고 해. 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해.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야. 이를 통해 지역의 재정을 관리하고, 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할당할 수 있어.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의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역할도 맡아. 지방의회의 법률은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
그래서 지방의회는 지방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야.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지방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의회와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도 좋을 거야! 함께 지방의회를 알아가면서 우리 동네와 지방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자!

✎ 토론활동2

✓ 마을의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걸까?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어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
모둠2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해야 한다.
모둠3	아이들만 할 수 있는 마을 일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마을일이라는 건 우리 동네나 마을에서 함께 해야 하는 일들을 말해. 이 일들은 동네를 더 좋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줘.
우리 어른들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마을일을 알아서 진행하면 더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 어른들은 우리 동네의 발전을 생각하며 적절한 대안을 찾고,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을일은 동네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고, 우리 동네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어른들이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마을일을 함께 알아서 해주면 동네가 더욱 행복한 곳이 될 수 있어.
어른들은 우리 동네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그래서 마을일을 알아서 진행하면 어른들이 동네를 더욱 잘 돌봐줄 수 있어. 어른들은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주는 거야.
마을일에 참여하려면 어른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해.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을 들어주고, 우리가 동네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 알려줘. 우리는 어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동네를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마을일을 어른들에게 맡기면 동네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 어른들은 우리 동네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며, 마을일을 알아서 잘 해주면 동네가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될 거야.

<모둠2>
마을일은 우리 동네를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야. 어른들은 경험이 많고 지식이 풍부하니까 마을일을 진행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마을일을 통해 동네의 일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게 되지. 우리 아이들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며 책임감을 갖게 되어 성장할 수 있어.
마을일은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공동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야. 우리 아이들도 우리 동네에 사는 일원이니까, 우리 의견을 내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재미난 아이디어로 동네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마을일은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야.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데, 아이들이 마을일에 참여하면 동네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마을일을 통해 사회적인 책임감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우리 동네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니까, 마을일에 함께 참여하면 동네가 더욱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을일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배울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각으로 동네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

<모둠3>
마을일은 우리 동네를 더욱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일이야. 아이들은 우리 동네의 미래이기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아이들만의 마을일을 만들면 우리 아이들은 자신감을 갖고 동네에 기여할 수 있어. 그들은 동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의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어.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 이를 마을일에 활용할 수 있어.
아이들만의 마을일은 동네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해줘. 아이들끼리 모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네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어. 이를 통해 아이들은 동네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아이들만의 마을일은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성장을 촉진시켜줘.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어. 동네에서 아이들만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 조직력, 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아이들만의 마을일은 동네에 새로운 에너지와 활기를 가져다줘. 우리 동네에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면 동네가 더욱 활발하고 유쾌한 장소가 될 거야. 아이들이 동네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마을일을 진행하면 동네의 사회적인 결속력이 더욱 강해질 거야.
그래서 아이들만의 마을일을 따로 만든다면 아이들은 동네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 토론활동3

✓ 마을 축제를 함께 만들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 축제 준비팀을 만들어보자.

✓ 참여한 사람 :

✓ 거절한 사람 :

✓ 준비팀에서 준비한 마을축제 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여름이 다가왔어! 이번 마을축제는 어린이들이 최고로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해,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재미있는 이벤트를 마련해볼까?
먼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 부스를 준비하면 어떨까? 승부욕을 자극하는 경쟁 게임이나 재미있는 퍼즐 게임을 마련해서 아이들끼리 경쟁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면 좋아, 상금이나 작은 선물도 준비하면 더욱 흥미로울 거야!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을 만들어보자, 큰 풍선 미끄럼틀이나 모래 놀이터를 마련하면 어린이들은 놀이에 열중할 수 있을 거야, 심지어 작은 풍선을 묶어서 색깔로 구분된 구역을 만들어 어린이들끼리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건 어때?
축제에는 먹거리도 꼭 준비해야 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팝콘, 멜론 아이스크림, 오뎅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마련하면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먹을 수 있을 거야, 물론, 안전을 위해 어른들이 반드시 도와줘야 해!
마을축제에서는 무대 공연도 필수적이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법쇼, 동물들과의 만남, 마스크댄스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봐, 또한, 동네 아이들 중에서 재능이 있는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어 공연에 참여하도록 하면 동네 사람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마을축제를 위해서는 동네 주민들과의 협력도 중요해,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네 아이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서 원하는 행사를 알아봐도 좋아,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FmLV-rOd0Gs&t=38s
우리 지역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해 줄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 / 행정안전부

☞ https://www.youtube.com/watch?v=DxF2g9zbrH8
주민도 모르는 주민참여예산, 누가 기획했나 / KBS 2021.03.24. / KBS 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uem_Xe-MlYQ
[이제, 다시, 주민자치] 포르투 알레그리로 만나는 주민참여예산제 / 자치분권대학

☞ https://www.youtube.com/watch?v=ZBW6EYC6PEM
[지방자치30주년 특별교육과정] 지방자치 부활 그리고 주민주권의 신장 / 자치분권대학

☞ https://www.youtube.com/watch?v=xJOhpi0T-lQ
처음으로 만드는 우리마을축제 1부 /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TV

☞ https://www.youtube.com/watch?v=MYSQ5vqlnZo
2022 천안북중학교 주관 마을축제 '우리 마을로의 초대' / 천안교육지원청

✎ 실천활동2

✓ 우리 마을을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보자.

✎ 실천활동3

✓ 준비팀에서 준비한 마을축제 기획안을 실행할 수 있는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할 수 있는 제안서를 만들어보자.

안녕 친구들! 지금 나와 함께 마을축제를 위한 모금운동에 참여해보자!
이번 마을축제는 우리 동네를 더욱 즐겁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준비되었어. 하지만, 축제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래서 모금운동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우리는 작은 기부금을 모아서 마을축제를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는 사업가분들께서 작은 기부를 해주실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모금통을 돌리며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
이렇게 모은 돈은 마을축제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사용될 거야. 예를 들면, 축제 부스나 놀이기구를 더 다양하게 준비하거나, 아티스트들에게 좋은 공연료를 지불하거나, 맛있는 음식과 간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
작은 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모금에 참여해주면, 우리 동네 축제는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게 진행될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마을축제에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 마을축제를 위한 모금에 함께 참여해주면 어떨까? 작은 도움이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우리 동네를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보자!
감사해, 친구들! 함께하는 마을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함께 모금을 통해 우리 동네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자!

13

정부의 민주적 지배구조

13. 정부의 민주적 지배구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정부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민원, 제안, 청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정부
■ 참여재판
■ 민원
■ 제안
■ 청원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우리나라도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민원, 제안, 청원제도를 통해 정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 주요개념

■ 정부
: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좁은 의미로는 행정부를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법부, 입법부까지 포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구분하여 지역정부라 칭한다.

■ 참여재판
: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진행하는 재판제도. 우리나라는 2008년 도입되었다.

■ 민원
: 국민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원하는 바.

■ 제안
: 국민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제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 청원
: 국민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진술하는 희망사항.

■ 배심원
: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시민.

■ 입주자대표회
: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주요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회의기구.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 기사를 완성해 보자.

결혼하고 10여 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살해한 3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A]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B]7명은 유죄 [C]과 함께 만장일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의견을 제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남편 B 씨 몰래 음료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한 뒤, 잠든 남편의 얼굴을 침구류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10여 년 동안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무직자로 지내며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A 씨는 지속적으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온 B 씨에게 공포와 불만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B 씨는 술에 취해 A 씨를 폭행하고 성적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가족을 잃었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이 곤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평결하는 제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선고에 참작한다.

출처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1820321470125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선고
B	배심원
C	평결

☞교사용 자료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2004. 12. 30.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하고, 제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모델을 결정하지는 않고,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한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2. 6.「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 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 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 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진실한 답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 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됩니다.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 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평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공판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배심원 선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

증거조사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 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필기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
 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평의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요청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검사/변호인의 최종 변론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배심원대표 선출
먼저 배심원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요청, 평결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평의 진행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 평결 확인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재판부 의견 청취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습니다. 재판부 의견을 들은 후에는 충분히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알립니다.

양형토의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들어가시면, 양형기준의 내용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
선정기일 통지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 3~4주 전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냅니다.

질문표 제출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질문표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정기일 출석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심원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자격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당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재판기간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신변 보호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는지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배심원 직무 수행 보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피용자의 배심원 직무 수행을 국민의 의무이행으로 당연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고용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심원 유의사항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배심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배심원 상호간 또는 다른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습니다. 재판절차 외에서 사건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 평의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선정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러한 범죄 시도를 접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 학습활동2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구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또 다른 위원회인「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특별법 시행일인 '20.4.1일 기 출범해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신청 등을 '20.9.1일 이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기준 마련 등 사전준비를 위해 위원회가 29일 출범 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에서 규정한 ①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 ② 피해자와 포항시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 ③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구성을 위해 관련 분야 최고 권위의 학회와 단체,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전문성, 공정성 및 지역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9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추천기관은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협, △한국법학교수회, 법률구조공단, △한국손해사정사회, △손해보험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 11개 기관 이다.

특히, 민간위원 5명중 2명을 포항시에서 추천한 후보자와 포항지역인사로 선임해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으며,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해 차질없는 피해구제 지원과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성낙인 위원이 선임됐다.

출처 : https://www.ekn.kr/web/view.php?key=502387

✓포항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보자.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라고 걱정이 많이 되었어. 지진은 큰 지구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 나는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 또한 집이나 건물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더욱 불안해지지 않을까 싶었어.
지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는 꼭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 학교에서는 비상대피 훈련을 하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줬어.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큰소리로 소리쳐 도움을 요청하거나, 테이블 밑이나 벽 가까이로 숨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 또한 부모님과 함께 대피 계획을 만들고, 비상용품과 음식을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
지진은 무서운 일이지만, 우리는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어. 어린이들이 지진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에게 지진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지진 대비 훈련을 시행해주는 거야. 이렇게 지진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친구들, 지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만, 우리는 지진 대비를 위해 알아두고 준비해두는 거야. 학교나 가족과 함께 지진에 대한 대비 계획을 만들어보자.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진을 대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는 곳에서 지진이 난다면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만약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면 국가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거야. 지진은 큰 자연재해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어. 그래서 국가는 우리를 돕고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될 거야.
첫째, 국가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 빠르게 구조와 구호 작업을 진행할 거야. 사람들이 건물이나 장소에서 구조될 수 있도록 구조대원들을 보내고, 응급 의료팀들이 부상자들을 돌봐줄 거야. 국가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산타클로스나 구호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주려고 노력할 거야.
둘째, 국가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할 거야. 지진으로 인해 손상된 건물이나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거야.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피해를 입은 도로나 다리를 수리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거야. 이를 통해 우리의 생활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한 재건을 도모할 거야.
셋째, 국가는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을 제공할 거야. 지진에 대한 예방 수칙이나 대피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거야. 국가는 지진 예측과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여 사전에 경보를 발령하고,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마지막으로, 국가는 지진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시행할 거야. 건축물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지진에 대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지원할 거야. 또한 지진에 대한 대비와 대처를 위한 훈련과 교육을 제공하여 우리가 지진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 학습활동3



그림 56

✓어려운 말의 뜻을 찾아보고, 어떤 예가 있을지 생각해보자.

- 민원 :

민원 : 국민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원하는 바, 예) 집 근처 공원 앞 도로에 주차 단속

- 제안 :

제안 : 국민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제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 예)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우리 동네에도 자율주행차 운영 특구로 지정

- 청원 :

청원 : 국민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에 진술하는 희망사항, 예) 독거노인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상담사를 집집마다 파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교사용 자료**

대통령실, 청와대·국민권익위·행안부로 나뉘었던 민원·제안·청원 모두 다룬다

강승규 "통합 소통 창구에서 국민 편에서 효율적 운영"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민 제안은 국민 모두가 제안자이고 주인"이라며 "좀 더 국민 편에서 제안과 청원에 대해 기존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포함해 통합 소통 창구에서 국민 편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권익위, 행정안전부가 나뉘어져 다르게 운영됐다"며 "국민 신문고가 민원 제안을 다루고 행안부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제안 제도를 운영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청원법에 규정된 내용과 민원 제안 등을 인기 투표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소통 체계 역시 이 세 기관을 통해 하지만 각각 다른 양상으로 권익위와 국민신문고는 그대로 운영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가 없어지고 청원법을 개정하면서 온라인 청원제도가 가능해 청원 24라는 누리집을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온오프로 대통령실에 민원과 청원을 내고 싶어 한다"라며 "대통령실이 이를 아우르는 만큼 국민의 믿음과 필요성도 있다. 온오프로 들어오는 민원과 제안, 청원을 민원 제안은 권익위, 청원은 행안부로 가고 저희 나름대로 정책 제안 제도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후 빅데이터로 어떤 민원이 많으며 어떤 서비스가 되는지 통합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대통령실을 통해 민원과 제안, 청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권익위에서 민원과 청원, 행안부에서 청원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창구다. 다시 정리하면 국민은 통실 통해 민원제안 청원 서비스 할 수 있고, 권익위에서 민원 청원, 행안부에서 청원할 수 있다고 말 드린다.

출처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29000435

☞교사용 자료

120다산콜재단은 전화, 챗봇, 수어, 외국어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2만여 건의 행정상담을 수행하는, 서울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기관입니다. 2007년 120다산콜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이래 교통, 수도, 25개 구청 및 보건소 업무 등 서울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민원 접수를 도맡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래 자가격리, 공적 마스크, 수도권 대유행,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 접종 등... 끊임없는 감염병 현안들로 쏟아진 시민 문의에 총력으로 대응해 온 120이 없었다면 서울시민 백신접종률 80% 달성 등의 S-방역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2017년 출연기관 '120다산콜재단'으로 출범한 후에는 사회적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중장기 혁신사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공공콜센터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선도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다산콜재단은 15년간 축적해 온 운영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에 접목하는 '120다산콜 버전 2.0'의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즉, 나날이 변화하고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민원 해결의 편의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담인력풀 탄력적 업무 투입, 인공지능 빅데이터 콜센터 조기 도입, 재택-청사 복합 스마트워크 체제 수립 등 인력운용과 업무방식을 개선하는 다각적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민원행정 업무방식을 변혁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120다산콜재단이 1천만 서울시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임직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향해 다시 뛰는 120다산콜재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s://www.120dasan.or.kr/dsnc/main/contents.do?menuNo=200003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위의 내용 이외에 정부 활동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소개해 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정부 활동에 어린이가 참여할 수 있는 사례는 많아. 정부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첫째, 어린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나 동아리에서 대화 모임이나 의견 수렴 행사를 개최해. 정부는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를 알고 싶어해. 그래서 어린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게 해.
둘째,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 참여 프로그램이 있어. 정부는 어린이들이 정치적인 활동을 경험하고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예를 들어, 어린이 시장을 선출하거나 어린이 시민회의를 열어 어린이들이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돕고 있어.
셋째, 정부는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정부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어린이들을 위한 정부 박물관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알려줘. 또한, 어린이들이 정부 활동을 더욱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교육 자료나 게임도 개발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정부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지역사회나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어린이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정부는 어린이들의 의견과 참여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

✎ 토론활동2

✓ 배심원제는 법률가가 아닌 사람이 재판에서 유무죄에 관한 의견을 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배심원들의 결론을 꼭 따를 필요는 없다. 배심원제에 대해 더 조사해 보고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유무죄의 결론은 법률 전문가가 내는 것이 옳으므로 우리나라처럼 배심원들의 의견은 참고로 하는 것이 좋다.

모둠2 일반 시민들이 올바른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편견이므로 미국처럼 배심원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좋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유무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지, 그들은 법과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증거와 증언을 분석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그래서 법정에서는 법관과 변호사들이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야.
하지만 배심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해. 배심원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일반 시민이지만,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그래서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요한 일이야.
법정은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야 해. 법관과 변호사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유무죄 판단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은 그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야.
그래서 친구야, 법정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의 결론을 따르지만 배심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게 여겨져.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공정한 재판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대우받고,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

<모둠2>
일반 시민들이 올바른 유무죄의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편견일 수도 있어. 배심원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가져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에서는 배심원들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중요한 원칙이야. 배심원들은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와 증언을 검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그들만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 그들은 법과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배심원들의 조합으로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법정에서는 공정성과 정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이 존재해. 어떤 시스템이 최선인지는 국가의 법적 체계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야.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 작용하며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거야.

✎ 토론활동3

✓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생각해보자.

내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 :

학생들이 시험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려고 해. 학교는 우리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지만,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은, 시험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양화하고 유연하게 하는 것이야. 시험은 우리의 학습을 평가하고 지식을 확인하는 도구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같은 방식과 형식의 시험에 잘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정부에 제안할 것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야. 우리는 각자의 장점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표, 그룹 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의 이해도와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해.
또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해.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해. 그래서 정부에는 학교 시설 개선과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청할 거야. 좋은 교실과 도서관, 학습 자료, 교육용 기술 장비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마지막으로, 학업과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싶어. 학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예술,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야 해. 학생들이 흥미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해.
우리는 학생으로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내보자!

✓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부에 내고 있는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자.

물어본 사람 :

정부에 내고 싶은 의견 :

✓ 정부에 건의할 내용과 내고 싶은 의견을 어디로 전달하면 좋을지 알아보자.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g1vwE7uO0Ro
'어른들은 몰라요'...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만든다 / KBS뉴스(News)

☞ https://www.youtube.com/watch?v=pFyJVEQbdF0
제5회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최우수상) 말하는대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https://www.youtube.com/watch?v=TqMqbHMa1HI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민관협치!! 😁😁 / 인천광역시

☞ https://www.youtube.com/watch?v=OGAbYRCBc0Y
협치와 시민(1) 거버넌스의 개념과 역사성 / 함께 살아가는 가치

☞ https://www.youtube.com/watch?v=w5r4_tIUWAY
[최경영의 최강시사] 협치란 가능한가? - 김경일 교수 (아주대 심리학과) | KBS 220520 방송 / KBS 1라디오

☞ https://www.youtube.com/watch?v=oLrd9Oe4gm0
[대한민국 좋은 정책 대회] 민관협력 희망에코 마을조성사업 / MBN Entertainment

✎ 실천활동2

✓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일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사해 보자.

- 시장/군수/구청장

서울시장 : 오세훈
마포구청장 : 박강수

- 지방의원

마포구의회 의원 :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 주민자치위원

<단독주택/빌라의 경우>

- 통장

- 반장

<아파트의 경우>

- 동대표

- 입주자대표회장

- 기타

✎ 실천활동3

✓ 조사한 사람 중 1명을 골라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해보자.

- 물어보고 싶은 말 :

- 답변 :

인터뷰어(어린이):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희 학교에서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해요. 의원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의원님(성인):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방의회에 대해 물어보실 건가요? 저도 기꺼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인터뷰어(어린이): 의원님은 왜 지방의회에 참여하셨나요?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의원님(성인): 제가 지방의회에 참여한 이유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제정하며, 예산 배분과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토의하고 결정합니다. 인터뷰어(어린이): 의원님은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내리나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나요? 의원님(성인): 저희 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고, 각종 회의와 청문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의원사무실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어(어린이): 의원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하시나요? 의원님(성인): 저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14

학교에서의 참여와 의사결정

14. 학교에서의 참여와 의사결정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학교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학생들의 학교 참여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교육청
■ 학교운영위원회
■ 협정회원
■ 대학도서관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민까지 참여하여 학교일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 원래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어도 협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다.

✓ 주요개념

■ 교육청

: 학교 등 교육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 학교운영위원회

: 단위학교별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

■ 협정회원

: 조직의 설립 목적에 따른 원래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약속을 통해 회원 자격을 부여받는 사람.

■ 대학도서관

: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보통 중앙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쓴다.

■ 학급회의

: 같은 학급을 구성하는 학생들이 진행하는 회의.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57

✓학교운영위원회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만약 나에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라고 한다면 동의하겠는지 생각해보자.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별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협의기구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첫째로,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보다는 공부와 친구들과 함께 놀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둘째로,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조직이지만, 저는 아직 어린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후에 학교 운영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기에 참여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도움을 주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학생회나 학급회와 같은 조직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참여하는 제안을 받아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제 시간과 노력을 공부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데에 집중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교사용 자료

서거석 교육감 "전북학생의회 설립·학교운영위에 학생 참여"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일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 의견을 듣기 위해 전북학생의회를 설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청소년참정권확대 전북운동본부의 청소년 위원 등과 '청소년이 바란다'를 주제로 가진 간담회에서 "학생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 검토, 심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14400055?input=1195m

☞**교사용 자료**

우리에게 신촌이란 어떤 공간일까? △네 개의 사립대학이 모여 있는 대학가 △놀거리와 마실 거리가 많은 곳 △유흥가 등 신촌을 수식하는 말은 수없이 많다. 하지만 여기 신촌을 '우리 동네'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신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하는, '신촌민회(아래 민회)'다.

민회는 신촌동·대신동·봉원동 주민들의 '풀뿌리 회의체'로, 지난 2000년 이신행 명예교수(뉴욕대·정치이론및사상)와 우리대학교 제자들이 '대신교회', '봉원사', '봉원교회', 인근 대학 및 고등학교 등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고,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었지만 신촌민회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회는 지역주민들을 끌어안지 못해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후 지난 2005년 재창립했지만 역시 지역민의 참여가 저조했고, 활동을 지속해나갈 내부의 동력도 잃었다. 민회에 참여하던 8개 단체의 지원이 점차 끊겼고, 2010년에는 '암흑기'를 보내야만 했다.

신촌민회를 지원하고 있는 봉원교회 박용권 목사는 민회 활동이 "무르익다가 좌절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초기에는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을 추진하고, 매달 '주민음악회', 방학마다 '어린이 학교' 등을 열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민 참여 저조 △민회 확장에 대한 지나친 의지로 인한 방향 상실 △민회를 주도할 주체의 부재 등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민회는 올해 다시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고 있다. 새롭게 민회의 살림을 맡고 있는 하수용 사무국장은 민회를 "'지역이 살아야 지구가 산다'는 모토로 활동하는 지역운동 단체"라고 소개했다. 또한 박 목사는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 민회의 사업을 다시 마을차원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회는 지난 3월, 3년 만에 다시 '마을 음악회'를 개최했고, 4월에는 주거권 논의를 위한 논단과 '원룸 축제'를 열어 지역 청년들을 만나기도 했다. 5월에는 '에너지 자립'과 관련한 논단을 개최했다.

출처 :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

✎ 학습활동2

영화초등학교(교장 박승숙)가 학생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만들어가는 급식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아이디어는 영화초 전교회장인 곽현아 어린이가 내놓은 선거 [A] 에서 출발해 더욱 눈길을 끈다.

영화초는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을 위해 학급별 학급자치회의를 통해 희망 메뉴 2개씩을 선정한 뒤 13개 메뉴를 대상으로 [B] 를 진행했다.

영화초등학교 전교회장 곽현아 어린이는 "이번 투표를 통해 영화초 학생들의 [C] 를 직접 들어볼 수 있어 좋았고, 전교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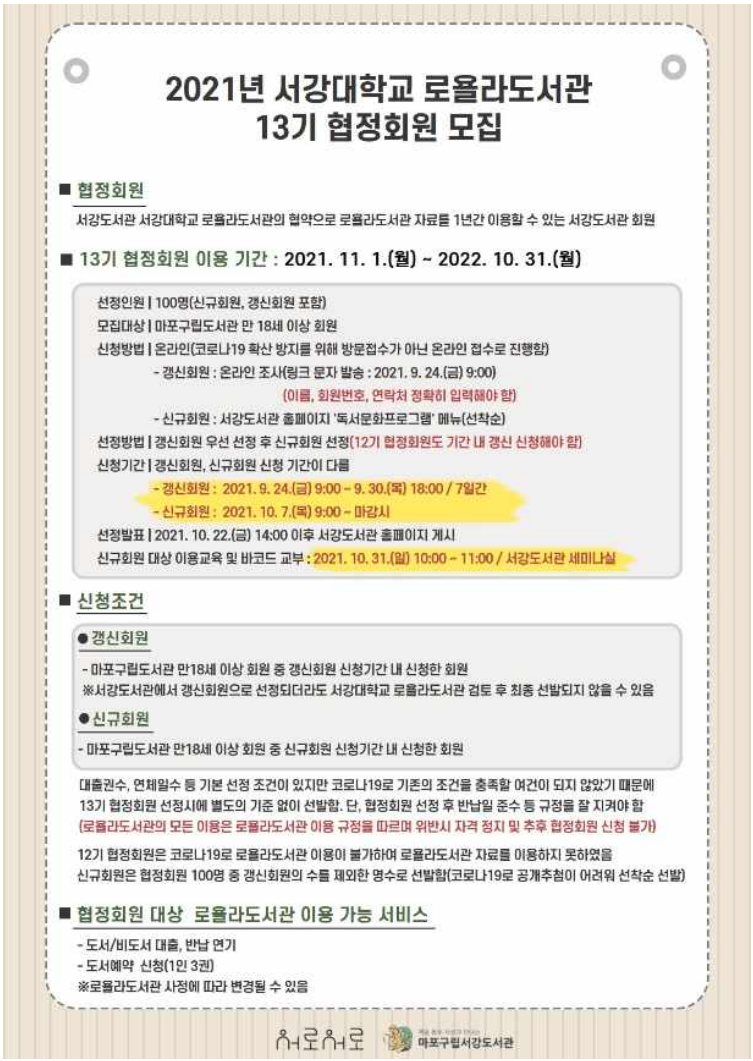
박승숙 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D] 을 갖고 여러 민주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020580149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공약
B	투표
C	목소리
D	자율성

✎ 학습활동3



2021년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13기 협정회원 모집

■ 협정회원
서강도서관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의 협약으로 로욜라도서관 자료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서강도서관 회원

■ 13기 협정회원 이용 기간 : 2021. 11. 1.(월) ~ 2022. 10. 31.(월)

선정인원 | 100명(신규회원, 갱신회원 포함)
모집대상 | 마포구립도서관 만 18세 이상 회원
신청방법 | 온라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가 아닌 온라인 접수로 진행함)
- 갱신회원 : 온라인 조사(링크 문자 발송 : 2021. 9. 24.(금) 9:00)
(이름, 회원번호, 연락처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신규회원 : 서강도서관 홈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 메뉴(선착순)
선정방법 | 갱신회원 우선 선정 후 신규회원 선정(12기 협정회원도 기간 내 갱신 신청해야 함)
신청기간 | 갱신회원, 신규회원 신청 기간이 다름
- 갱신회원 : 2021. 9. 24.(금) 9:00 ~ 9. 30.(목) 18:00 / 7일간
- 신규회원 : 2021. 10. 7.(목) 9:00 ~ 마감시
선정발표 | 2021. 10. 22.(금) 14:00 이후 서강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신규회원 대상 이용교육 및 바코드 교부 : 2021. 10. 31.(일) 10:00 ~ 11:00 / 서강도서관 세미나실

■ 신청조건
● 갱신회원
- 마포구립도서관 만18세 이상 회원 중 갱신회원 신청기간 내 신청한 회원
※서강도서관에서 갱신회원으로 선정되더라도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검토 후 최종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회원
- 마포구립도서관 만18세 이상 회원 중 신규회원 신청기간 내 신청한 회원

대출권수, 연체일수 등 기본 선정 조건이 있지만 코로나19로 기존의 조건을 충족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3기 협정회원 선정시에 별도의 기준 없이 선발함. 단, 협정회원 선정 후 반납일 준수 등 규정을 잘 지켜야 함
(로욜라도서관의 모든 이용은 로욜라도서관 이용 규정을 따르며 위반시 자격 정지 및 추후 협정회원 신청 불가)

12기 협정회원은 코로나19로 로욜라도서관 이용이 불가하여 로욜라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였음
신규회원은 협정회원 100명 중 갱신회원의 수를 제외한 명수로 선발함(코로나19로 공개추첨이 어려워 선착순 선발)

■ 협정회원 대상 로욜라도서관 이용 가능 서비스
- 도서/비도서 대출, 반납 연기
- 도서예약 신청(1인 3권)
※로욜라도서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로서로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그림 58

✓대학교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서강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말해보자.

마포구립도서관 회원 중 갱신회원 또는 신규회원 신청기간 내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서강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

1년

☞교사용 자료

[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서부교육지원청과 관할 중학교 51개교 학생회장단은 학교 운영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 공유와 개선을 위한 서부학생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생의회는 25일 오후 2시 대전시서부교육지원청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상생과 협력, 함께 누리는 안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학생회장단이 주도해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책 내용과 실천 전략 등을 토론·발표했다.

올해 초 수립된 학생회장단은 대전 서부지역 51개 중학교의 학생회장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회장단은 팬데믹을 우려해 교사와 전문가의 지도하에 SNS 등 온라인에서 안전한 학교문화를 위해 논의해왔다.

이날 양숙 중등교육과장의 개회식에 이어,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회사 해본사람들 김원경 이사의 진행으로 학생들의 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학생회장단은 각각 40여분의 토론을 거쳐 지구별로 특성화된 정책 내용과 실천 전략을 담은 8건의 제안서를 발표했다.

먼저 관저중과 봉우중 등 7개교로 구성된 1분임에서는 '교내축제 학생회 영향력 확대'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학교 내 축제 진행 과정에서 학생회의 의견 반영이 미비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예방과 더불어 교내 쓰레기 문제 개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개선안, 청소년 담배·마약·음주, 학생회 중심 의정활동 확대, 스쿨존 교통안전, 짝궁 제도 운영 등을 8지구 안건이 발제됐다.

특히 6분임에서 발표한 '학생회 중심 의정활동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일탈 학생에 의해 흐트러지고 위축되는 학생회가 자발적으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생회 활동 홍보를 시행하면 교내 분위기가 확립될 것이라며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전관저중학교 조예준 학생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다양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학교별 교육 환경에 적합한 정책들을 도출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전시서부교육청 중등교육과 조성준 장학사는 "대전 서부를 대표하는 학생회장들의 각양각색 목소리를 대전 교육 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수용하겠다"며 "이를 학생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교육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부교육청은 이번 학생의회 결과를 분석, 평가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며, 학생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실제적 교육정책을 반영해 내실 있는 학생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233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현재 우리 학교/반은 학급회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 우리 학교/반의 학급회의를 학생 참여가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는지 이야기해보자.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학교나 반의 학급회에 학생 참여가 더 잘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해보겠어요.
첫째로, 학급회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을 독려하고, 학급회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해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급회에 참여하면 학급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둘째로, 학급회의 활동을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다양화해야 해요. 예를 들어, 학급회의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학급 행사를 기획하거나 학급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학생들이 직접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학급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가 높아질 거예요.
셋째로, 학급회의 일정과 활동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요. 학생들이 학급회의 일정을 미리 알고,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게시판이나 공지를 통해 전달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참여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급 학생들 간의 소통을 장려해야 해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해요. 학급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학급 전체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학생 참여가 더 잘 이뤄지도록 학급회의를 조직하고 지원하면, 학급 전체의 의견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 토론활동2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참여할 필요 없다.
모둠2 참여해야 한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 학습활동1 참고

<모둠2>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첫째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여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결정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에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하고, 학생들의 관점과 필요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둘째로, 학생 위원의 참여는 학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어요. 학생 위원이 참여하면 학교 시설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행사 기획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셋째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책임감과 리더십 등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학생 위원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맡으며, 팀워크와 의사소통 등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는 학생들이 미래에 더 나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학생 위원이 참여하면 학교와 학생들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는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참여도와 학교에 대한 애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 토론활동3

✓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구인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자.

의원 구성 방법	
위원회(자치회) 구성 시기	
논의 안건	주민자치회는 동네 주민들이 함께 모여 동네 발전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에요.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회원을 선출하거나,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자치회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해요.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이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해요. 주민자치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환영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동네에서 사는 주민이니까, 동네의 문제점을 알고 있고 동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주민자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은 동네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의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변 시설의 개선, 안전 문제 등이 논의되는 주제일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동네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곳이에요.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동네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동네에 적용하거나, 동네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는 우리 동네를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 어린이들도 주민자치회에서 동네 문제를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여 동네를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추가로 조사한 사항1	
추가로 조사한 사항2	
추가로 조사한 사항3	
추가로 조사한 사항4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rt1clkY0nWk
2019.06.06 "학생 참여 총장직선제 보장하라"..거리로 나선 대학생들 / 뉴스EBS

☞ https://www.youtube.com/watch?v=sawRC7Fm0_o
이번주 서울대 총장 선출 사상 첫 학생 참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https://www.youtube.com/watch?v=jubnf3v5JbY
EBS 다큐프라임 - Docuprime_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2부- 수업의 주인_#001 / EBSDocumentary

☞ https://www.youtube.com/watch?v=a7l1HYceMYI
학생참여예산제 / 충남교육청 교육자료채널

☞ https://www.youtube.com/watch?v=Ik9iJCPXxwQ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을 위한 학생 참여위원-부총리 간담회 / 교육부 TV

☞ https://www.youtube.com/watch?v=pkLMlkzCyZM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함께해요! -학부모 편- / 교육부 TV

☞ https://www.youtube.com/watch?v=iA8KQOP1hgI
서울시학생참여위원회 의장 김진아 축하영상 / 2021랜선서울학생자치나눔축제

✎ 실천활동2

✓ 우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한 사람을 골라 편지를 써보자.

저는 OOO이에요. 저희 학교를 운영하고 관리해주시는 학교운영위원님들께 편지를 쓰려고 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수업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제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님들께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먼저, 학교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가끔씩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실에는 좀 더 편한 의자나 책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또한 우리 학교 근처에 더 좋은 놀이터나 체육시설이 있다면 더 재미있는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과목이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학교운영위원님들께서는 수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더 다양한 활동이나 실험을 통해 수업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학교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을 즐길 수 있는데, 더 많은 행사를 개최해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문화제나 체육대회, 독서대회 등 많은 행사들이 우리 학교를 더욱 활기찬 곳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 내가 학생회 임원이 된다면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은지 공약을 생각해 보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 보자.

저희 학교를 더욱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공약은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이에요. 학교생활은 우리들의 중요한 시간이니까, 학생들이 더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저희 학생회는 다양한 행사와 문화제를 기획할 거예요. 예를 들면 스포츠대회, 교내 공연, 독서대회, 친목 활동 등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해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거예요.
두 번째 공약은 "학습환경의 개선"이에요. 저희 학생회는 학교의 학습환경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수업에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교실 환경 조성, 교재나 학습도구의 다양성 확보, 독서실의 개선 등을 추진할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더욱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세 번째 공약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학교 운영"이에요. 저희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학생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 실천활동3

✓ 모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극본을 만들어보자.

장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등장인물:
학교 운영위원장
학생 위원들
교사 위원들

학교 운영위원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모두 준비됐나요?
학생 위원1: 네, 저희는 준비됐어요! 학생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학생 위원2: 저희도 준비됐어요! 학교 생활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장: 좋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것이에요. 학생들은 어떤 시설 개선을 원하나요?
학생 위원3: 저희는 교실의 시설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의자와 책상이 더 편하면 학생들이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위원4: 그리고 우리 학교 근처에 더 좋은 놀이터나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운동을 즐길 수 있을 텐데요!
학교 운영위원장: 의견들을 잘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학생 위원1: 저희는 수업을 더 흥미롭게 만들기를 원해요. 실험이나 체험활동을 더 많이 하면 수업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학생 위원2: 그리고 어려운 과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15

ESG와 우리

15. ESG와 우리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10대로서 세상을 바꾼 다양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다.
■ 10대도 ESG 실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 keyword

■ 시장
■ 노벨평화상
■ 살색
■ 본분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세션즈는 10대에 시장이 되었고 말랄라는 10대에 노벨상을 수상했다.
■ 살색이라는 잘못된 말을 살구색으로 바꾸는 데 10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공부라는 본분을 다하면서도 10대가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 주요개념

■ 시장
: 행정구역 시의 대표자.
■ 노벨평화상
: 노벨상의 일종으로 평화 증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 살색
: 살구색의 과거 명칭.
■ 본분
: 각자의 처지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일컫는 말.
■ 진정서
: 억울한 일을 호소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정을 적어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미고교생 시장당선 확정

한국에선 고교생들이 지하철 전동차 방화범을 격투 끝에 붙잡아 대량 참사를 막아 화제가 되는 가운데 미국에선 고교생이 재선을 노리던 50대 현직 시장을 누르고 시장에 당선돼 시선을 모으고 있다.
인구 8200여명의 미국 미시간주 소도시인 힐스데일 카운티에서 고교 3년생인 마이클 세션즈(18)가 상대 후보의 재검표 철회로 시장 당선이 확정, 21일 시장직에 취임했다.
재선에 실패한 더글러스 잉글스(51) 시장은 12월 5일 실시 예정이던 재검표를 자진 철회했다.
잉글스 시장은 지난 8일 실시한 선거에서 2표 차(668표 대 670표)로 고교생후보에 패하자 재검표를 요청했다가 19일 열린 시의회 특별회의에서 이를 철회하며 "세션즈 당선자가 훌륭하게 시장직을 수행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오하이오와 미시간주간 미식축구 경기 관전을 포기한 채 시의회 특별회의에 참석했던 세션즈 당선자는 재검표 철회 소식에 "우리 마을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일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세션즈 당선자는 18세 생일(9월 22일)을 맞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게 되자 이튿날 유권자 등록과 기명 출마 신청 절차를 마친 뒤 지난 여름 아르바이트로 번 돈 700달러(약 70만원)를 선거비용으로 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잭 베텔 힐스데일 시의회 의장은 "잉글스 시장은 재검표 철회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용감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0131665?sid=104

✓마이클 세션즈는 어떻게 시장이 되었는지 말해보자.

18세 생일(9월 22일)을 맞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얻게 되자 이튿날 유권자 등록과 기명 출마 신청 절차를 마친 뒤 지난 여름 아르바이트로 번 돈 700달러(약 70만원)를 선거비용으로 시장 선거에 뛰어들었다.

✓10대의 시장 취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기사에서는 10대의 시장 취임에 대한 반응은 나오지 않는다.

☞교사용 자료

"청년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계 최연소 의원이었던 안나 뤼어만 인터뷰

지난 9일 정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만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한 선거법에 항의하며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가 "19금 선거법 불복종"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 여덟 명이 각자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 대해 지지,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노동당 용혜인 후보(26세, 비례대표 1번)가 지지 발언을 했다.
한국에서는 19세가 되어야 선거권과 선거운동을 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것도 만 나이로, 대부분 국가에서 시민들이 18세부터 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늦다. 또한 선거권이 있는 사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 정당법에 따라, 만19세 미만은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 조항이 부당하다며 지난 달 20일, 녹색당은 청소년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는 특정한 나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라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피선거권은 어떨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연령 기준은 만25세 이상이다.

이에 대해서도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민중연합당 공동대표인 손솔(흙수저당 대표)씨가 제기한 것으로, 올해 21세의 손솔 대표는 피선거권이 없는 정당 대표로 활약 중이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3년에 펴낸 '청년 정치참여 보고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다.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투표할 수 있는 연령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이는 세계 최연소 의원으로 활동하며 주목을 받았던 독일의 안나 뤼어만(1983년생)이다. 2002년에 녹색당 소속 비례대표로 독일연방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을 때 나이는 19살이었다.

한국에서라면 피선거권은커녕 선거권(만19세)도 갖지 못하는 나이다. 안나 뤼어만이 세계 최연소 의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독일 피선거권 연령이 선거권 연령과 같은 18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 총선을 앞두고, 지금은 스웨덴 요테보리대학교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는 뤼어만과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년들은 사회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청년들의 꿈과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가 존중받아야 해요."

안나 뤼어만 박사는 "청년들이 정치 영역으로 들여오는 신선한 생각들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최연소 의원' 직함이 항상 따라다닌 것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부담스럽지 않았는지 묻자, 뤼어만은 "청년도 의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직함은 "정말 많은 걸 의미했다"라고도.

"임기 시작 2년 뒤에 (꽤 권위있는) 예산위원회에 자리가 있다고 제안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정치인이냐는 흰머리 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역량, 그리고 성실성에 달려 있습니다."

안나 뤼어만은 재선에 성공해 두 번의 임기를 마쳤고 청년의 정당 활동, 나아가 청년의 국회 활동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상징이 되었다.

"중요한 건,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입니다"

정치인이 되길 꿈꾸거나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묻자 뤼어만은 이렇게 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과 이를 위해 싸우려는 진정한 욕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정치적 활동들을 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답니다."

안나 뤼어만이 품었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비전"은 다름 아닌 '녹색정치'였다.

"녹색정치란 자유,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한 정의를 목표로 합니다. 그 사람이 언

제, 또는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를 떠나서요. 이 소박한 생각이 여러 정책 분야에서, 예컨대 환경보호, 사회정의, 갈등예방 등에서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이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요. 일상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에서도 그렇고요, 젊고 늙음, 여성 남성을 떠나서 말이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젠더를 떠나 모든 인간이 평등한 권리와 기회, 역할을 갖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여성주의는 녹색정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는 말도 덧붙였다.
뤼어만 박사는 이번 한국 총선에 최연소 후보로 출마한 김주온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25세, 3번)를 비롯해 한국의 녹색당에 대해서도 응원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믿으세요!"라고 말했다. "30년의 계속된 노력을 통해, 이제 녹색당은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가운데 한 곳(Baden-Württemberg)에서 주지사가 나올 정도예요."
15세에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하원의원 시절에 대학에서 정치학과 조직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연구자로서 유엔개발계획 '청년 정치참여 보고서'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한 안나 뤼어만 박사. 정치인으로 숨가쁘게 달렸을 때보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성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찰해나가는 자신의 삶을 전했다.

출처 : https://www.ildaro.com/7430

☞교사용 자료

지방선거 출마한 10대 당선인 천승아...첫 10대 시의원 타이틀 얻어
10대 후보 7명 중 1명만 당선, 나머지 6명은 고배
천승아 당선인 "청소년들 꿈 펼칠 수 있게 지원하고파"

[소셜밸류=소민영 기자] 지난 1일에 실시한 2022 지방선거에 10대 후보가 출사표를 냈지만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출마 최저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18세로 낮춰지면서 이번 선거에 10대 후보로 7명이 출마했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른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고양시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한 국민의힘 천승아(19) 후보가 득표율 49.30%를 기록하며 당선됐다. 그는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2학년 휴학 중이며, 국민의힘 고양(정) 청년위원회 여성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해 왔다. 이와 반면 경북 경주시의원 다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주(18) 후보는 득표율 3위에 올랐고 전남 무안군의원 나선거구에 도전한 무소속 오신행(18) 후보는 득표율 6위로 낙선했다. 이어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한 정의당 노서진(19) 서울시의원 후보, 정의당 이재혁(18) 경기도의원 후보, 진보당 신은진(19) 경기도의원 후보, 녹색당 이건웅(18) 제주도의원 후보도 모두 탈락하며 10대 후보들이 지방선거 관문에 높은 턱을 느꼈다. 경기도내 유일한 10대 시의원이 되면서 최초 타이틀을 얻게 된 국민의힘 천승아 고양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인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능력을 개발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출처 : https://www.socialvalue.kr/news/view/1065602904570645

✎ 학습활동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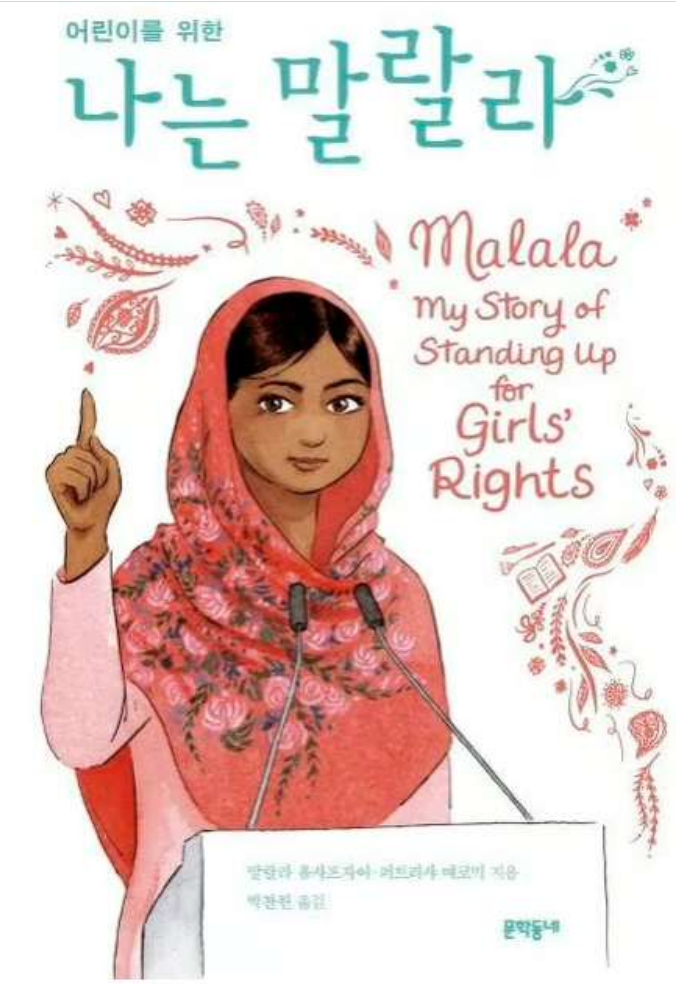


그림 59

최연소 노벨평화상, 말랄라 유사프자이 어린이용 자서전 출간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어린이용 자서전 '나는 말랄라'가 국내에 출간됐다.

문학동네는 말랄라가 청소년 소설 작가 퍼트리샤 매코믹과 함께 쓴 어린이용 자서전이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고 4일 밝혔다. 옮긴이는 박찬원이다.

1997년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말랄라는 10살 때부터 여성 교육운동을 시작했다. BBC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하는 등 여성 교육을 위해 어린 나이에도 열심히 활동했다. 탈레반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여성들의 교육 여건이 어려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런 활동 때문에 말랄라는 탈레반의 표적이 됐고 학교에서 귀가하던 도중 총격을 당하기도 했다. 다행히 탈레반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말랄라는 이후에도 계속 여성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다.

말랄라는 이런 용기와 선구자 정신을 인정받아 제1회 파키스탄 청소년 평화상을 받았고, 2014년에는 최연소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국제아동인권평화상, 사하로프 인권상, 국제앰네스티 양심대사상 등 인권이나 평화와 관련된 상을 여럿 수상했다.

지금은 영국 옥스퍼드대를 다니며 말랄라 펀드를 통해 모든 돈을 교육 운동에 쓰고 있다.

문학동네는 "나는 단지 학교에 가고 싶을 뿐이라는 어린 말랄라의 목소리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도 감동과 교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204.html?utm_source=n 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인터넷 서점에 소개된 '나는 말랄라'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말랄라 유사프자이 퍼트리샤 매코믹 저자(글) · 박찬원 번역
문학동네 · 2014년 10월 06일

열일곱 살의 교육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
2014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년간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웠고, 어린이와 젊은이도 그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스스로 기여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 주었다. 그것을 그녀는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냈다. 그녀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말랄라는 소녀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싸우는 선도적인 대변자가 되었다."_2014 노벨평화상 선정 이유

"노벨평화상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_말랄라의 수상 소감 중에서

모든 아이들은 학교에 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총에 맞은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의 또렷한 음성을 듣다

2012년 10월, 파키스탄 스와트에서 열다섯 살 소녀가 탈레반에 의해 총격을 당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로 타전된다. 납치와 살인, 자살 폭탄 테러 등 무장 세력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이토록 어린 여자아이까지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계는 공분한다.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피격을 당한 이유는 단지 아이들의 학교에 갈 권리에 대해 말했다는 것이었다. 탈레반은 성명을 내어 이 사실을 자인한다. 피격 소식이 전해지며 파키스탄 전역에서 "나는 말랄라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학생 시위대가 일어났다. 유엔과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말랄라와 그의 뜻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 말랄라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2013년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2014년,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내 이름은 말랄라, 이것은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파키스탄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파키스탄 사회를 점차 장악해 들어오는 탈레반에 맞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교육운동을 전개해 온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다정하면서도 힘 있는 말랄라의 목소리는 독자를 파키스탄의 밍고라 언덕 너머 개울을 낀 소박한 삶의 풍경 속으로 데려간다.
슬프게도, 누구보다도 극적인 경험을 한 뒤 가까스로 살아난 말랄라지만 그는 사소한 일로 동생들과 다투고 친구와 수다 떠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청소년기의 평범한 소녀이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말랄라는 학교를 운영하는 아버지와 함께 파키스탄의 현실을 외부 세계에 알리기 위한 운동을 해 왔다는 점이다. 열한 살에 BBC 우르두어 웹 사이트에 '굴 마카이'라는 가명으로 말랄라가 연재한 일기는 테러리즘이 장악한 일상의 생생한 모습을 아이의 목소리로 세계로 전했다. 《뉴욕 타임스》의 다큐멘터리 《수업 끝Class Dismissed》은 탈레반이 공식적으로 여학교 폐쇄를 공표한 날의 풍경을 영상에 담아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청소년 독자를 위한 단 한 권의 책

1인칭으로 서술되는 말랄라의 이야기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신념을 지켜 나가는 한 가족의 삶과 테러리즘의 공포에 일상을 잠식당한 파키스탄 아이들의 현실,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 세력의 추악한 실체를 닿을 듯 선명하게 들려준다.
말랄라의 이야기는 이미 몇몇 형태의 출판물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책은 말랄라 자신과, 실력 있는 청소년소설 작가 퍼트리샤 매코믹이 함께 집필하면서 청소년 독자에게 분명히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우리에게 파키스탄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세계의 개요와 그 문화적 특징은 상당 부분 가려지거나 덧칠되어 있었다. 말랄라의 이야기는 청소년 독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습관적으로 내면화해 왔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현대 세계 정세의 가장 치열한 갈등의 현장을 바로 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말미에 파키스탄과 인접 국가들의 주요 사건 연보를 실었다.
그러나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아와 세계와의 갈등을 시작하는 청소년 독자들에게 말랄라가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하는 어떤 순간에 있다. 의심 없이 옳다고 믿어 왔던 가치들이 위협을 받을 때, 사회적인 갈등이 개인의 삶 속으로 닥쳐들 때, 말랄라의 솔직한 목소리는 한 사람의 내면에 쌓여 왔던 역사가 마침내 그 힘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말랄라의 시간을 따라가며 느끼게 되는, '사실'만이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그들은 총탄이 우리를 침묵하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목소리가 침묵을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우리의 목표를 바꾸고 열정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제 인생에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나약함과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말랄라입니다. 같은 열정, 같은 희망, 같은 꿈을 가진 말랄라입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명의 선생님이,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있었던 말랄라의 연설이다. 말랄라의 열여섯 번째 생일이기도 한 이 날을 유엔은 '말랄라의 날'로 선포하고, 말랄라의 교육 운동을 격려한다. 말랄라는 총격 이후 영국의 버밍엄으로 옮겨 가 가족과 함께 산다. 이제 말랄라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공명하며 더욱 강력하게 세상을 울리고 있다. 믿음이, 진실이, 한 사람의 시작이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동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출처 : 교보문고 홈페이지

출간시기	
출판사	
저자 소개	
책 내용	

✎ 학습활동3

살색→연주황→살구색, 9~11살 소녀 6명이 바꿨다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경기 성남시 이매중학교 2학년 김민하(14)양 자매와 또래 친척 등 6명은 요즘 자부심과 뿌듯함이 넘쳐난다. 크레파스나 물감의 색깔 표현인 '살색'을 차별 없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달라는 이들의 '당돌한'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들의 대표 격인 민하양은 외국인노동자들의 '대부'로 불리는 김해성 목사의 딸. 김 목사가 2001년 8월 "크레파스 색깔 가운데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색깔 논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듬해 8월 "한국산업규격(KS)에 특정색을 '살색'이라고 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기술표준원에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2002년 11월부터 '살색' 대신 '연주황'이 사용됐다.

그러나 민하양 등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딸들의 반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8월 "새로 바뀐 색깔인 '연주황'은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다. 이는 크레파스나 물감을 자주 쓰는 어린이에 대한 또다른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알기 쉬운 '살구색'으로 바꿔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진정서에 피해자를 '대한민국 어린이들'이라고 적었다. 차별행위 당사자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살색을 연주황으로 고친 위원 및 담당자'라고 썼다. 이들은 "어른들도 잘 모르는 '주황'을 왜 어린이들이 쓰는 크레파스와 물감의 색 이름으로 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어른들만 아는 색깔은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기술표준원은 최근 '살색'을 이들의 요구대로 '살구색'으로 바꿨다.

민하양은 "사람들이 요즘 색깔을 얘기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앞으로 '어린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색상으로 세상을 바꾼' 위대한 주인공들은 민하양을 비롯해, 김예진(9), 김예은(13) 김민선(13) 김민영(12), 김효민(13)양이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388.html

✓살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말해보자.
✓살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색깔이 무엇이었는지 말해보자.

살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살구가 먼저 떠올랐어요,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 세상을 바꾸기 위해 또는 사회를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10대를 더 찾아보자.

✓ 내가 찾은 사람

✓ 주요 활동

Emma Gonzalez는 미국의 학생 활동가로, 학교 총기 규제와 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의식화를 이끌었어요. 그녀는 2018년에 플로리다주 파크랜드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후, 'Never Again MSD'라는 학생 단체를 조직하여 총기 규제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어요.
Emma는 용기 있고 강인한 목소리로 총기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안전을 위한 변화를 촉구했어요. 그녀의 열정과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Emma Gonzalez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사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 변화를 이끌어냈어요. 그녀의 모습은 젊은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심어주고, 사회적 변화를 이루는 데 영감을 주었어요.

✓ 영역 : (E, S, G, etc.)

✎ 토론활동2

✓ 10대 학생 시절의 본분은 공부라는 말을 하는 분이 있다. 이에 대해 모둠을 나누어 토론해 보자.

모둠1 학생의 본분은 공부이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모둠2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사회를 위해 이바지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좋다.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공부는 우리가 지식과 스킬을 배우는 일이야.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거야.
첫째, 공부를 통해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과학, 역사, 문학, 수학 등 다양한 과목들을 배우면서 우리의 지식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이렇게 배운 지식들은 우리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거야.
둘째, 공부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 학생 시절에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고,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거야.
셋째, 공부는 우리의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공부를 통해 얻은 성취감은 우리를 더욱 자신감있게 만들어줘. 공부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어려운 도전에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거야.
공부는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주는 열쇠야. 지식과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길을 열어줄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중요해. 학생 시절의 노력이 미래의 나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거야. 함께 공부하면 더 재밌고 즐거울 거야! 이렇게 공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모둠2
학생 시절에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공부는 우리가 미래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데에는 나이나 경험에 상관 없을 때도 있어.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변화를 추구하고 소중한 문제들을 다루었어. 그들은 학생 시절부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깊게 관찰했어.
사실, 학생들은 이미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어. 어린이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생 시절에 이미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성인이 되기 전에도 소중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어.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작은 일들도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성장과 발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지만, 어릴 때부터 나의 꿈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일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 토론활동3

✓ 살색을 살구색으로 바꾸는 것처럼 인권을 비롯한 ESG를 증진하기 위해 바꾸어야 할 말을 생각해보자.

내가 찾은 말 :

바꾸고 싶은 대안이 되는 말 :

(예시) 노약자석 → 우선배려석, 교통약자석

✓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자.

말해준 사람 :

바꾸어야 할 말 :

바꾸고 싶은 대안이 되는 말 :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1FzseEKJBg0
스무 살, 어린놈이 뭘 알겠냐고? / 셀레브 - sellev.

☞ https://www.youtube.com/watch?v=i6UimJSXbcU
아동인권운동가 이크발 마시흐 이야기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로서 살 권리가 있다" / 이로운법(법사랑사이버랜드)

☞ https://www.youtube.com/watch?v=_iHN-zb7jro
[CRC30]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 기념 영상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InCRC국제아동인권센터

☞ https://www.youtube.com/watch?v=hnf41mIsHxI
15살에 기적적으로 살아나 17살에 최연소 노벨평화상을 탄 소녀 말랄라 유사프자이 / 스브스뉴스

☞ https://www.youtube.com/watch?v=XwCrjluRtKI
(영재발굴단) 전문가들도 극찬한 초등학생의 발명아이디어💡 21세기형 에디슨 김동윤 | 💡 21st Century's Edison has Risen! / 우와한 비디오

✎ 실천활동2

✓ 사회를 위해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더 생각해보자.

✓ 만나서 취재하고 싶은 사람을 한 명 정하고, 질문 문항을 만들어보자.

인터뷰어 (어린이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랄라 선생님을 인터뷰해보려고 해요. 말랄라 선생님, 안녕하세요!

말랄라 (말랄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도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인터뷰어: 우선, 말랄라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유명한지 알고 싶어요.

말랄라: 제가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여자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에 맞서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자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저는 유명해졌어요.

인터뷰어: 멋지세요! 말랄라 선생님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말랄라: 제가 이루고자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세계 어린이들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여자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국제적인 플랫폼에서 연설을 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인터뷰어: 말랄라 선생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말랄라: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쓰기도 하고,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 이야기를 전 세계에 공유하고,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 실천활동3

✓ 소개된 사람 중 한 사람을 골라 편지를 써보자.

말랄라 언니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을 무척이나 존경하고, 당신의 용기와 인내력에 감탄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여자 아이들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게 다가와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육의 중요성과 여자 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당신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당신의 목소리와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 사회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말랄라 언니, 저는 당신과 함께 꿈을 키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당신의 활동을 응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당신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요!

✓ 쓴 편지를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할까?

✓ 주소를 알아냈으면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려보자.

편지 보낸 날	
답장 받은 날	
답장 내용	
답장을 받은 후 나의 행동	

16

ESG &

16. ESG &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 주제와 관련된 질문형 문장을 제시하여,
· 주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 챕터 번호, 챕터 제목
- 수업 목표 : 키워드 | 질문형

✎ **수업목표**

■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동참을 통해 ESG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 내가 할 수 있는 ESG 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획할 수 있다.

✎ **keyword**

■ SDGs 옹호자
■ 유엔기후변화회의
■ 연설
■ 걸그룹

들여다보기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학습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
· 주요 개념에 대한 용어 설명을 통해 기본적인 지식을 학습하게 함.

- 전체 수업 요약(문장형)
- 주요 개념 용어 설명

✓ 수업요약

■ 우리나라의 연예인과 유명인들도 전세계적으로 ESG 증진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 ESG의 실현은 10대에게도 중요한 본분이며,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야 한다.

✓ 주요개념

■ SDGs 옹호자

: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SDGs 확산을 위해 선정하는 홍보대사.

■ 유엔기후변화회의

: 유엔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처를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

■ 연설

: 많은 사람 앞에서 의견을 말하는 행위.

■ 걸그룹

: 여성으로 구성된 가수.

■ 굿즈

: goods. 원래는 그저 상품이라는 뜻이나 주로 연예인 또는 브랜드와 관련되어 출시되는 상품을 일컫는 말로 통용된다.

확장하기

※ 수업 운용 관련 안내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은 모듈화하여 여러 가지를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활동을 시간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도교사의 판단하에 학습활동, 토론활동, 실천활동별로 1가지 활동을 선정, 자율적으로 수업 시간을 구성하여 지도하면 됩니다.

☞지도안

·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심화 읽기를 진행하고
·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 소활동을 수행케 하여, 주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심화적으로 숙지하게 함

- 주제 관련 자료 제시
- 자료 학습과 관련한 소활동 : 예) 기사 완성, 삼행시, etc.

✎ 학습활동1



그림 60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결성된 한국의 걸그룹이다. 4인조는 지수, 제니, 로제, 리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블랙핑크는 미국 최대 음악 축제인 코첼라에 초대된 최초의 여성 K-POP 가수가 되었고, 2020년에는 K-POP 걸그룹 최초로 앨범 판매 130만 장을 돌파했다. 게다가,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최근 6천 5백만 명의 구독자를 돌파하여, 그들은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는 아티스트가 되었다. 이 밴드의 세계적인 [A]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각 멤버들은 명성 있는 명품 브랜드에 대한 적극적인 글로벌 [B]였다. 블랙핑크는 2020년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의 [C]로 임명되었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unsdgadvocates.org/members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영향력
B	앰배서더
C	옹호위원

☞교사용 자료

리처드 커티스는 네 번의 결혼식과 장례식, 노팅힐, 브리짓 존스의 일기, 미스터 빈, 러브 액츄얼리, 그리고 가장 최근의 어바웃 타임과 예스터데이 등의 영화를 책임지는 영화 작가이자 감독입니다.리처드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코믹 릴리프의 공동 창립자이자 부회장이다.그는 모금 행사인 Red Nose Day를 만들어 1988년부터 BBC를 위해 16번의 라이브 나잇을 공동 제작했으며, 이 자선단체는 영국과 그 기간 동안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13억 파운드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2015년, 그는 NBC와 월그린스의 협력으로 미국에 빨간 코의 날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월그린스는 지금까지 미국과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거의 1억 5천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출처 : https://www.unsdgadvocates.org/members

☞교사용 자료

SK스포츠의 앞선 '시대정신'. 사회, 지구 위한 4개 구단 공동 캠페인 ESG 활동

과거 스포츠는 '성적'이 최고의 미덕이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스포츠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오히려 통신수단의 고도화로 파급력은 더욱 늘어났다. 단, 스포츠의 '시대정신'은 완전히 변했다. '선한 영향력 전파'가 더욱 중요해졌다. 아무리 좋은 성적, 좋은 경기력을 보여도, 거기에 걸맞은 '선한 영향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스포츠의 근간이 되는 팬은 외면한다. 따라서 스포츠는 윤리와 환경, 그리고 사회공헌도와 더욱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게 됐다. NBA의 슈퍼스타들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세계적 스타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은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다.

SK스포츠는 시대를 선도한다. SK그룹이 운영하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 남녀 핸드볼 SK 호크스와 SK 슈가글라이더즈 구단이 스포츠를 통한 선한 영향력 전파에 함께한다.

SK는 23일 서울 서린빌딩에서 4개 스포츠 구단 관계자와 대표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지역 사회 공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담은 '스포츠 ESG'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ESG 슬로건은 '플레이 포 어스, 체인지 포 어스(Play for Us, Change for Earth)'다.

'우리와 함께 플레이하고, 지구를 변화시키자'는 이 슬로건은 팬들과 함께 즐거운 스포츠를 통해 사회와 지구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한마디로, 현 시대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 시대정신'을 함축한 캠페인이다.

여러가지 의미를 담은 만큼, 스포츠를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한다. 경기장 안에서 페어 플레이는 기본, 경기장 밖에서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한다. 일단, 환경보호가 담겨져 있다. 친환경 유니폼과 응원도구, 굿즈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 환경정화를 위한 플로깅(스웨덴에서 시작된 캠페인으로 조깅과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노 플라스틱(No Plastic) 캠페인'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경기장을 찾는 관객 수는 증가하고 있다. 프로농구 SK 나이츠의 경우 경기당 약 3000여개의 일회용기가 버려지고 있다. 시즌으로 환산하면 약 8만개가 폐기된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캠페인도 이어간다. 연고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기부 및 이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부정 이슈 방지를 위한 선수단 정기 교육 시행, 중대 위반행위 발생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제보 채널 운영 등 윤리적이며 투명한 구단 운영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경식 스포츠마케팅 담당은 "SK그룹은 '따로 또 같이'라는 특유의 문화이자 전략이 있다. '따로'는 회사 차원에서 미래성장과 수익을 강화하는 것이고, '같이'는 경영 소프트웨어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높이는 노력이다. 이 부분을 스포츠에 도입한 것이 4개 스포츠단이 함께하는 ESG 캠페인이다. 스포츠팀 각각의 윤리와 도덕성의 잣대를 높이고, 4개 구단이 함께 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했다.

SK는 '스포츠협의회 워킹 그룹'을 통해 지속적으로 ESG 추진 현황을 점검,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SK 스포츠 홈페이지에 주요 활동 결과를 공개한다.

출처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2240100173160022874&servicedate=20230223

✎ 학습활동2

📖 기사를 완성해 보자.



그림 61

김종국, 화장품 프로젝트 공개..."수익금 기부→ A 노력할 것"

[SBS연예뉴스 | 전민재 에디터] 가수 김종국이 자신의 가치관을 녹여낸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2일) 김종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김종국은 절친인 박민철 변호사와 E.S.G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공연한다면 B 를 가장 낮추는 공연을 하도록 설계하는 게 요즘 유행이다"라고 말하자 김종국은 "난 삶이 E.S.G 아니야?"라고 답했습니다.

김종국이 말하는 E.S.G는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용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C 를 일컫습니다.

박민철 변호사는 "최근에는 '생활 ESG'로 개인을 ESG 지수로 평가할 수 있다. 김종국 씨는 연예인 중 ESG 레벨을 봤을 때 거의 탑티어(최상위)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국은 "짠돌이라는 말 안 쓰고, ESG를 밀어야겠다"며 "피부도 건강의 한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모든 것이 기본에 충실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라며 스킨케어 화장품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출처 :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67298&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보자.

A	선순환
B	탄소
C	핵심 가치

✎ 학습활동3

📖 방탄소년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그림 62

✓방탄소년단이 유엔에서 한 연설의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18년 방탄소년단은 유엔에서 연설했어.
연설한 곳은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이야.
유엔아동기금(UNICEF ·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Generation unlimited) 행사에서 한 연설이야.
RM은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고 강조했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방탄소년단의 앨범 제목이기도 해. "Love Yourself(너 자신을 사랑하라)".

☞교사용 자료

방탄소년단 UN 연설 전문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남준이며 RM으로 알려져있고, 방탄소년단의 리더입니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에 초대되어 매우 큰 영광입니다.

작년 11월 방탄소년단은 유니세프와 함께 Love Myself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믿음으로 만들어진 캠페인입니다. 유니세프와 파트너로 함께했던 End Violence 프로그램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은 행동력과 열정으로 이 캠페인의 메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정말로 세계 최고의 팬들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서울 근처에 있는 일산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강과 언덕과 매년 열리는 페스티벌까지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냈고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고, 세상을 구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의 초기 앨범 인트로 중에 9-10살 정도에 제 심장이 멈췄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때가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인식하고, 그들의 눈을 통해 저 자신을 보기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밤하늘과 별을 바라보는 것을 멈췄고, 꿈꾸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시선에 저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이어 저는 나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췄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고, 저조차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멈췄고, 제 눈은 감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령이 됐습니다. 이때 음악이 작은 소리로 "일어나서 너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저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소릴 듣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탄소년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조차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죠. 때때로 저도 전부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정말 행운이고 감사하다고 여깁니다.

저는 계속해서 잘못 딛거나 넘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형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수백만 장의 티켓을 파는 아이돌이지만, 저는 여전히 24살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성취한 모든 것들은 다른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저희의 팬인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하고 지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는 실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제의 저도 여전히 저입니다. 오늘의 저는 과거의 실수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내일,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저입니다. 그 실수들은 제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주며, 제 인생의 우주를 가장 밝게 빛내는 별자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이고 싶은지를 모두 포함해 나를 사랑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앨범이 발매된 이후, (유니세프)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우리는 전세계의 팬들로부터 중요한 메세지들을 듣게 됐습니다. 인생의 시련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죠. 이 이야기들은 저희에게 책임감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봅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신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피부색은 무엇인지, 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찾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세요.

저는 김남준이고, 방탄소년단의 RM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이돌이며,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온 아티스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는 제 인생에서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저 자신을 북돋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RVLY6D5

상상열기

☞**지도안**

· 확장하기 학습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함
· 챕터별로 각각 전체토론, 모둠토론, 연장토론 틀을 모두 제시하되, 교사가 선택하여 활용하게 함
· 전체토론은 학급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의미하고,
· 모둠토론은 그룹을 나누어 모둠별로 진행하는 토론을 의미하며,
· 연장토론은 수업 중이 아닌 학생 각자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해볼 수 있는 토론을 의미함
· 연장토론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활용가능함

- 토론활동 1 : 전체토론
- 토론활동 2 : 모둠토론
- 토론활동 3 : 연장토론

✎ 토론활동1

✓소개된 사람(그룹) 중 한 사람(그룹)을 골라 가상 인터뷰를 해보자.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써보자.

어린이 기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어린이들에게 방탄소년단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방탄소년단: 안녕하세요! 우리는 방탄소년단입니다. 저희는 음악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어요.

어린이 기자: 방탄소년단은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경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방탄소년단: 유엔에서 연설을 하는 경험은 정말 놀라웠고 의미있었어요. 우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자아 사랑과 세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희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이 기자: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어린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방탄소년단: 우리의 음악은 희망과 사랑, 꿈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어린이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의 음악을 통해 어린이들이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기자: 방탄소년단이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방탄소년단: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키우세요" 입니다.

✓추가로 SDGs 옹호자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자.

선정한 사람(그룹) :

선정 이유 :

ESG 증진과 관련하여 함께 하고 싶은 활동 :

스파이더맨을 SDGs 옹호자로 임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스파이더맨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전파하는 캐릭터입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용기, 정의, 도움, 공평 등의 가치를 배울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히어로이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동네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바로 SDGs의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다.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목표들의 집합체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SDGs의 중요성과 그 실천 방법을 알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스파이더맨과 함께하는 SDGs 활동으로는 예를 들면, 환경 보호를 위한 캠페인, 빈곤 극복을 위한 기부 행사,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스파이더맨을 통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책임감을 얻을 수 있을 거에요.

스파이더맨은 모두가 알아주고 사랑하는 히어로이며, 그의 참여는 SDGs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SDGs를 실천하는 활동을 펼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큰 도약일 것입니다.

✎ 토론활동2

✓ 블랙핑크 같은 유명인이 유엔기후변화회의(COP26)의 지지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ESG 증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모둠을 나눠서 토론해보자.

모둠1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모둠2 도움이 되는 이유는?

✓ 토론 결과를 기록해보자

<모둠1>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증진에 있어서 유명인이 유엔 기후 변화 회의 (COP26)의 지지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지자로 임명된 유명인의 관심사와 역할: 유명인이 COP26의 지지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그가 ESG 증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인은 주로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의 전문적인 관심사와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참여와 행동의 일관성: 유명인이 COP26의 지지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ESG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할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지자로서의 이름이나 명성을 사용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행동과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SG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 정책 제안 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협업과 지속가능한 전략: ESG 증진은 전문적인 지식과 지속가능한 전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유명인이 COP26의 지지자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둠2>
그러나 유명인이 ESG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는 있으며, 그들의 참여를 통해 관심을 끌고 대중들에게 ESG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토론활동3

✓ 위에 소개되었거나 직접 선정한 유명인의 활동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보자.

이야기한 날	
이야기한 사람	
나눈 이야기	
반응	

✓ 나중에 어떤 활동을 더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자.

방탄소년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ESG 증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명인으로서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으며, 팬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환경 청소 캠페인: 방탄소년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지역 내 공원, 해변, 도로 등을 청소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물 심기 및 플로리스트 활동: 방탄소년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공장소나 학교 등에 나무나 꽃을 심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봉사: 방탄소년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회적 약자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들과 함께하는 활동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 방탄소년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거나 커뮤니티 행사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식 개선,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 캠페인 및 메시지 전달: 방탄소년단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SNS나 공공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상더하기

☞지도안

· 실천활동1은 관련 영상 링크를 제시하여 추가적인 학습이 가능케함
· 실천활동 2,3은 챕터에 따라 관련 콘텐츠 제작, 만들기 등과 같은 창작실천활동과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동실천활동으로 구성함

- 실천활동 1 : 유튜브 관련 영상 시청
- 실천활동 2 : 창작실천 - 관련 콘텐츠 제작
- 실천활동 3 : 행동실천 - 지역사회/학교/또래/가족 실천활동 아이디어

✎ 실천활동1

✓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 시청하고 내용을 정리해보자.

제목	
만든이	
영상 게시일	
시청일	
내 용	
느낀점	

☞교사용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wx2Jq7dKfqo
[SUB] 이효리와 순심이가 함께한 3647일의 시간... '효리와 순심이' / SBS STORY

☞ https://www.youtube.com/watch?v=Fs0qitF-qWM
[#알쓸신잡2]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에 대한 박사들의 생각 / tvN

☞ https://www.youtube.com/watch?v=KF4n0QbGEYA
정준하가 아무도 모르게 베풀어온 선행! 방송엔 나오지 않았던 정준하의 따뜻한 마음 | 정준하 방송인 1편 / 사피엔스 스튜디오

☞ https://www.youtube.com/watch?v=CIVRhOM33NQ
[풀버전] 그 유명한 〈정의란 무엇인가〉, 설민석이 엑기스만 뽑아 읽어드립니다 | #책읽어드립니다 #사피엔스 / 사피엔스 스튜디오

☞ https://www.youtube.com/watch?v=q39SQp2wuqU
연예인들 조용한 선행...따뜻한 나눔의 씨앗 / YTN (Yes! Top News) / YTN

☞ https://www.youtube.com/watch?v=935EJdr0PZ8
[4시에 만나는 미래] ESG 관점에서 의류산업을 들여다보니... | 2022.3.31. (목) / 미래에셋 스마트머니

☞ https://www.youtube.com/watch?v=G95XRqEwq-Q
에스파는 왜 UN에서 연설을 했을까? - ESG 최고전문가 인터뷰 Part.2 / Seoul Speakers Bureau

✎ 실천활동2

✓ 내가 UN에서 연설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말할지 생각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인 오늘 이 자리에서 귀하들과 대화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로 인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많은 도전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빈곤, 교육의 부족, 인권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향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빈곤과 교육의 부족은 우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불평등을 줄여야 합니다.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 내 연설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써보자.

오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 정말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열정과 희망을 갖고 있구나. 너의 메시지는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 나도 이제부터 함께 세상을 바꾸는 데 동참하고 싶어!
너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있어. 하지만 너의 연설을 통해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어. 우리는 모두 함께 손을 잡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어.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이 일에 전력을 다할 거야!
교육과 빈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것도 너무 중요했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해. 나도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함께 커뮤니티 활동을 진행하고, 우리가 사는 이곳을 더욱 포용적이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가자!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에 대해 얘기한 것도 인상 깊었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해. 나도 함께 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야.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함께 조성해 나가자!
네 연설은 내게 큰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었어.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어.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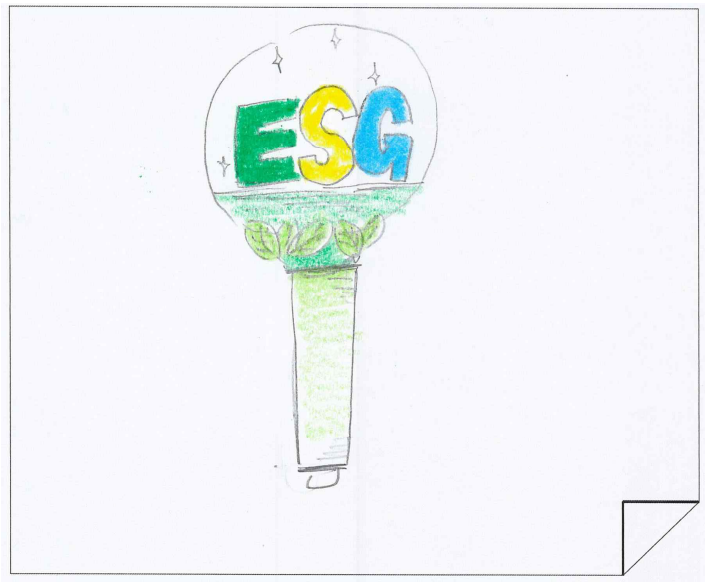
✎ 실천활동3

✓ ESG를 증진하기 위한 나의 활동을 잘 표현하는 굿즈를 구상해보자.

✓ 굿즈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보자.

굿즈 물품 : ESG응원봉

이유 : 어디서든 들고다니며 흔들 수 있기 때문에 ESG 서포터즈가 들고다닐 수 있는 응원봉



굿즈 물품 : 텀블러 + 플라스틱 빨대

이유 : 일회용 컵과 빨대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 컵과 빨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수록문 출처

구분	쪽수	출처
학습활동	39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교사용 자료	42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707251037b
교사용 자료	47	http://news.bizwatch.co.kr/article/finance/2017/05/25/0001/prev_ver
교사용 자료	63	https://www.etnews.com/20230510000009
교사용 자료	64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10721/38984541/1
교사용 자료	6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10721/38984541/1
학습활동	91	네이버 지식백과
학습활동	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사용 자료	123	https://www.news1.kr/articles/5005993
토론활동	126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3150174
교사용 자료	130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jum&query=%EC%95%88%EC%A0%84%EC%B1%84%EB%84%90+e
교사용 자료	130	http://www.schoolsafe.kr/community/information
교사용 자료	141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
교사용 자료	146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5%90%ED%86%B5%EC%95%BD%EC%9E%90#undefined
교사용 자료	151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3/17/RNCMOPK2J5FQZLH556IKKVCTVI/
교사용 자료	152	교보문고
교사용 자료	153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DYWS5P3
교사용 자료	164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968
교사용 자료	16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86196&ref=A
학습활동	171	https://www.mk.co.kr/news/business/10678363
교사용 자료	17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281026?sid=102
교사용 자료	17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66166
실천활동	183	https://www.moel.go.kr/mainpop2.do
교사용 자료	185	http://www.newsroa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
학습활동	191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23793
학습활동	194	http://news.tf.co.kr/read/economy/2005417.htm
교사용 자료	19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99126635543648&mediaCodeNo=257&OutLnkChk=Y
교사용 자료	198	https://www.news1.kr/articles/4976612
교사용 자료	2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1995001
교사용 자료	212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22126331
교사용 자료	214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564

구분	쪽수	출처
학습활동	227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3/03/18/6U52ENUUIJEKPFYJ3NTVWI3RX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학습활동	22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6231&cid=47314&categoryId=47314
교사용 자료	233	https://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9653
교사용 자료	235	http://www.koreai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024
교사용 자료	243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1209313811622
교사용 자료	249	[네이버 지식백과] 주민자치위원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학습활동	25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767
교사용 자료	2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3424187?sid=100
교사용 자료	255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0141900061?input=1195m
교사용 자료	25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122254
학습활동	270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21820321470125
교사용 자료	271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8/index.html
학습활동	277	https://www.ekn.kr/web/view.php?key=502387
교사용 자료	28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1229000435
교사용 자료	281	https://www.120dasan.or.kr/dsnc/main/contents.do?menuNo=200003
교사용 자료	293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2114400055?input=1195m
교사용 자료	294	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0
학습활동	295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1020580149
교사용 자료	297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233
학습활동	3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0131665?sid=104
교사용 자료	309	https://www.ildaro.com/7430
교사용 자료	311	https://www.socialvalue.kr/news/view/1065602904570645
학습활동	3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2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학습활동	313	교보문고 홈페이지
학습활동	3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388.html
학습활동	328	https://www.unsdgadvocates.org/members
교사용 자료	329	https://www.unsdgadvocates.org/members
교사용 자료	330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224010017316 0022874&servicedate=20230223
학습활동	332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67298&plink=COPY PASTE&cooper=SBSENTERNEWS
교사용 자료	335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RVLY6D5

수록 이미지 출처

구분	쪽수	출처
그림1	38	BNK금융그룹 광고
그림2	38	하나금융그룹 광고
그림3	38	SK이노베이션 광고
그림4	40	네이버 지식백과
그림5	40	KDI 경제정보센터
그림6	53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7	53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8	57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블로그
그림9	58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블로그
그림10	59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블로그
그림11	60	대우건설 대학생 홍보대사 블로그
그림12	61	네이버 블로그 사장의 독서
그림13	61	네이버 블로그 사장의 독서
그림14	62	네이버 블로그 사장의 독서
그림15	76	더 나은미래
그림16	78	UN
그림17	84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18	84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19	8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림20	91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1
그림21	99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22	99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23	106	비건뉴스
그림24	108	SMARTTODAY
그림25	109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그림26	116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27	116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28	116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29	121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30	122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31	125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32	129	학교안전정보센터
그림33	139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34	144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35	145	권&리가치교육센터

구분	쪽수	출처
그림36	164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37	168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38	175	https://news.imaeil.com/page/view/2006070510580713274
그림39	176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0
그림40	177	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0
그림41	192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23793
그림42	197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443
그림43	206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44	206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45	211	https://biz.sbs.co.kr/article/20000106711?division=NAVER
그림46	212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47	21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314/118332665/1
그림48	216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30717164225613
그림49	219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그림50	231	https://www.koreanair.com/kr/ko/footer/about-us/corporate-governance/board/configuration
그림51	242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52	242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그림53	248	권&리가치교육센터
그림54	25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315000039
그림55	259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06
그림56	280	대통령실
그림57	293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82383
그림58	297	마포구립서강도서관 홈페이지
그림59	31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4/2019060402204.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그림60	329	https://www.unsdgadvocates.org/members
그림61	333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10267298&plink=COPY_PASTE&cooper=SBSENTERNEWS
그림62	335	https://www.soompi.com/article/1235485wpp/bts-encourages-youth-historic-speech-launch-unicefs-generation-unlimited-un-general-assembly

연구 및 집필위원
안지훈 한양여대 교수
이재희 상계고 교사
김은주 한성대 교수
권영태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수석연구원

자문위원

전문가 자문	이의헌	점프	대표
	정명은	사회적가치연구원	연구팀장
	김성희	한양대	교수
교사 자문	장미애	구리고	교사
	정현아	도봉고(전)	교사
	장진실	고명중	교사
	최윤미	효자중	교사

디자인 소셜혁신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ESG 실천,
우리 삶으로부터

나와 너, 공동체와 지구를 성찰하는
청소년을 위한 ESG 교과서

발행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발행일 2023년 6월
발행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원길 48

이 책은 학교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수업 이외의 무단 사용, 복제 및 변형, 배포를 금지합니다.

ESG 실천,
우리 삶으로 부터

나와 너, 공동체와 지구를 성찰하는
청소년을 위한 ESG 교과서